
水原學研究

第五號



水原學研究所



간행사



| 유 병 현 |
수원문화원장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하여 앞으로 수원시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수원 지역 전통문화의 조사, 개발, 전승을 위한 전통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소에서는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매 년 개최하는 한편 정조시대 사료총서 발간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원학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의 현황 파악 및 제언 중심의 사업에서 나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 화성문화유산해설사, 그리고 수원시 관계자 등을 모시고 “수원-과거를 딛고 미래를 꿈꾼다”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남의 것을 배우기만 급급한 오늘날의 문화 토양 안에서 우리 고장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작업은 탁상공론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료총서 및 연구총서의 발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수원학 연구 5호는 수원학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 논문 4편과 수원지역 역사 관련 일반논문 5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에 대한 현실 적용 가능한 논의들을 담아내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지역 전통문화총서와 같은 학술자료집 간행, 영화역

복원사업과 같은 수원시 문화정책 및 전통문화 축제 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문화교육 사업 등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벌여갈 예정입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여 수원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평소 수원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제언 부탁드립니다.



간행사 •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5

특집 : 수원, 과거를 딛고 미래를 꿈꾼다

- 수원 화성 내 옛길의 보존과 현대적 재생 • 김동욱 9
- 수원시내 4대문 안의 도시 계획 • 김동훈 21
- 화성박물관의 특성화와 운영방안 • 조성을 41
- 문화도시 수원의 세계무형유산 만들기 • 김준혁 61

일반논문

- 화성 건축미 연구 • 박천우 77
- 일제하 재수원일본인의 지방지 편찬-酒井政之助의 『水原』을 중심으로 • 박환 117
-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華城 • 이동근 139
- 수원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외삼미동 고인돌을 중심으로 • 우장문 167
- 수원지역 혼례(婚禮)의 변화 양상과 의미 • 최자운 189

< 휘 보 >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209
-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213
-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216

수원 화성 내 옛길의 보존과 현대적 재생

김 동 욱 (경기대학교)

-
- | | |
|--------------------|------------------|
| 머리말 | 3. 옛길의 현대적 재생 방안 |
| 1. 화성신도시 건설과 길 만들기 | 맺음말 |
| 2. 화성 내 옛길의 잔존상황 | |
-

머 리 말

200년 전 신도시로 건설된 화성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 성벽은 일부 미 복원 구간을 제외하고는 잘 남아있다. 행궁 역시 거의 흔적을 잃었다가 지금은 번듯한 외관을 되살려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궁 앞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노후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넓은 광장을 만들고 있다. 이제 화성은 성벽만이 아니고 행궁이나 화령전 등 성내 시설들이 정비되어 과거 신도시를 이루었던 중요 시설 일부가 제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화성 성내는 정비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화성 성내의 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성내를 역사 도시의 경관에 걸맞게 한옥으로 개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어나 강무당 등 과거 성내 중요 시설이었던 부분들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성내 시설들을 한옥으로 개축한다는 것은 비용문제 뿐 아니라 도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서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내 주요 시설의 복원도 토지매입에서부터 재정조달 및 복원후의 관리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일들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옥 개축이나 사라진 시설의 복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여기서는 화성 성내의 경관을 역사도시에 걸맞게 꾸며가는 데서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손대야 할 것으로 옛길의 정비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시에서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역사적인 정취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사적 기념물이나 공원에서 보다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는 거리에서이다. 사람들은 오래된 도시의 비좁은 골목을 거닐면서 사람들의 체취를 느끼고 길거리 주변의 상점을 둘러 기념품을 고르면서 오랜 도시가 갖는 역사성을 피부로 느끼게 마련이다. 이런 체험은 거대한 기념물을 방문하거나 넓은 공원을 산책하는 데서 얻을 수 없는 역사적 도시의 생생한 체험이 되며 이것이 진정한 역사도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 화성은 성벽이 잘 남아있고 행궁이 있고 머지않아 행궁 앞에 넓은 광장도 건설될 것이지만 이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오랜 도시에서 맛볼 수 있는 골목길을 체험하기는 어렵다. 이미 남문과 북문을 잇는 도로는 넓게 확장되었고 성내 주요도로들도 적지 않은 부분이 직선형태로 개조되어 옛 모습을 잃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는 옛 골목길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정비작업의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옛길의 분위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곳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0년 전 화성을 건설할 때 만들었던 도로들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중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이 남아있는 옛길들을 어떻게 가꾸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시론을 하려고 한다.

1. 화성신도시 건설과 길 만들기

1789년 사도세자의 무덤을 옛 수원도호부 뒷산인 화산 아래로 옮기면서 시작된 신도시 건설은 그 해 10월에는 어느 정도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고 현릉원 참배 차 수원부에 내려온 정조는 새로 조성된 도시를 둘러보고 짧은 기간에 도시를 건설한 관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후에 수원은 주변에서 주민들이 모여들어 점차 인

구도 늘고 살림집도 늘어났다. 도시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힌 1794년 드디어 성 외곽을 둘러싸는 성벽 축조가 시작되었다.

화성축성은 기본적으로 성벽을 쌓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행궁의 대대적인 증축과 함께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정비와 십자가로라고 불리던 중심부 교차도로 건설 및 신작로 조성과 같은 도로개설도 포함되었다.

『화성성역의궤』 권4, 「품목」조 갑인3월4일의 기사에는 남북 성터를 닦고 준천과 가로조성을 할 곳에 들어서 있던 집과 전답을 성역소가 사들이는 일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도청의 품의. 지난번의 서명을 근거로 하여 남북의 성터 및 개울을 치고 길 내고 하는 데에 수용된 집과 전답을 사들이는 값을 넉넉하게 마련하여 부록에 붙여 품의하였으니, 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떨는지 하는 일에 의거하여 품의함.”

이라고 하고나서 남성에 침범해 들어간 집 20호와 북성에 침범해 들어간 집 21호, 개울치는 곳에 들어간 17호에 대한 집주인의 이름과 보상비를 명시하고 나서 장차 십자가로를 조성하려는 곳에 들어선 집에 대해서

“南里 鞋塵 瓦家5間 價錢七十五兩
 俞文塵 瓦家3間 價錢四十五兩 草家 5間價錢 十五兩
 米塵 瓦家5間價錢 七十五兩
 沈必大 草家 4間 價錢 十二兩 加給錢 8兩
 柳光宅 土室2間 價錢 2兩加給錢1兩
 李澄伊 草家 5間價錢十五兩加給錢10兩
 洪得亨 草家 8間價錢 二十四兩加給錢十六兩”

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화성의 축성이 시작된 것은 갑인년 정월7일이었는데 공사 개시 2개월이 되어서 성벽을 쌓을 곳에 들어서 있던 가옥들과 개울 칠 곳 및 십자가로라고 불렀던 중심부 가로조성할 곳에 들어선 집들을 돈을 주고 사들여 그 자리 집을 헐고 성벽을 쌓거나 길을 낸 기록인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십자가로는 행궁에서 동쪽으로 뻗은 길과 북문과 남문을 잇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가리킨다.

한편 『화성성역의궤』 권6, 「실입2」 조에는 ‘新作路’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십자가로에서 동쪽으로 동장대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장안문에 이르기까지, 장안문에서 영화정에 이르기까지”

를 신작로라 하고 신작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안문 밖에 들어온 초가집 4호, 동장대 앞길의 움집 20호를’ 보상해 준 값이 74냥이었다고 적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신작로는 십자가로의 동쪽에서 하나는 동장대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장안문으로 났다고 하며 다시 장안문에서 영화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신작로가 조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동장대가 낙성된 것이 을묘년 8월이므로 그보다 앞선 시기에 동장대 앞길을 조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화성 성내에는 이 도로 외에도 사람들의 왕래를 위한 여러 갈래의 도로가 만들어져있었을 것이며 남문과 북문을 잇는 남북도로 외에도 화서문이나 창룡문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간선도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의 거주지 구역에도 작은 골목길들이 형성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실핏줄같은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화성성역의궤』 권수 「도설」에 실린 「화성전도」에는 성내 곳곳을 잇는 여러 갈래의 도로들이 묘사되어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길은 북문과 남문을 잇는 남북 도로이며 행궁에서 홍살문을 나서서 동쪽으로 난 큰길이 다리를 지나 동장대까지 이어진 부분이다. 십자가로는 이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임을 알 수 있다. 또 십자교차로 아래 즉 동쪽에서 또 하나의 큰길이 장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신작로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 밖에도 화서문에서 내려온 길이 장안문에서 십자가로로 향한 길과 만나고 있으며 행궁 남쪽으로는 남지와 행궁 중간 부분에서 서쪽 산쪽으로 향해서 두 갈래 길이 갈라지는데 하나는 성신사로 보이는 건물로 향하

고 있고 또 하나는 서남암문으로 나가서 화양루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화성전도」에는 축성 당시 성내의 가로 모습의 대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도로가 실제로 어떤 폭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화성전도」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화성 내 옛길의 잔존상황

화성내 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20세기에 와서야 제작되었다. 화성내 도로를 구체적으로 측량해서 지도상에 표현한 것으로는 1916년에 작성된 『朝鮮一萬分之一地形圖集成』에 수록된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이 지형도는 1916년 이전의 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자료와 함께 1915년에 작성된 지적도도 당시의 성내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또 다른 자료가 된다.

우선 1916년 지형도를 보면 성내의 큰길은 남북 성문을 잇는 길이 제일먼저 눈에 들어오고 다음 행궁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길이 눈에 띈다. 두 길은 성내 한가운데서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이 길이 십자가로가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큰길을 쫓아면 십자가로에서 동쪽으로 조금 나아간 곳에서 약간 굽어지면서 북쪽으로 연결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장안문까지 이어지지 않고 도중에 십자가로에서 올라온 길과 합류된다. 이 밖에 큰길 주변에 좁은 구부러진 많은 길들이 동서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지형도상에는 집들이 밀집된 지역을 사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답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성내는 남북간선도로를 따라서만 집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서 벗어나서는 거의 전답인 상태로 그려져 있다. 특히 화서문과 창룡문으로 이어지는 곳은 좁은 도로 표시는 있지만 주변은 온통 밭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아마도 20세기 초 화성의 성내는 남북 큰길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답들이 늘어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십자가로에서 북쪽으로 약 150미터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길이 좁아지면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다. 적어도 성내 남북을 잇는 큰길이라면 일정한 길폭이 유지되어야 마땅할것인데 도중에서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나

타난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추정이 어렵다.

시대를 훌쩍 거슬러 현재 시점에서 화성 성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20세기초 지형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남문과 북문을 잇는 간선도로 모습이다. 이미 1916년 지형도에서 보이던 좁은 길과 십자가로에서 북쪽으로 가서 두 갈래로 갈라지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대신 남문과 북문을 잇는 길은 일정한 폭으로 확장된 4차선 도로가 보인다. 1915년 지적도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길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양쪽으로 크게 확장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제 남북간선도로가 확장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도로 확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에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수원 시내 풍경 중에는 도로 중심에 일본식 옷을 입은 사람이나 상점 건물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도로폭은 크게 확장된 이후의 모습이다.

또 하나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남문에서 십자가로 사이 부분에 생겨난 격자형 도로이다. 이 부분은 1960년대에 시행된 시가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획은 도심지의 구부러진 가로를 격자형으로 재편해서 가로체계를 고치고 주민거주구역을 네모반듯한 구역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용이 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도심지 전체에 까지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수원의 경우 남문 일대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때문에 기존의 좁은 골목길들 대신에 반듯한 격자형 도로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과거의 도로체계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도 낳았다.

십자가로인 현 종로 네거리에서 동쪽으로 매향교를 지나서 넓은 직선도로가 만들어진 것도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 길은 창룡문 북쪽의 성벽을 관통해서 나가게 되며 기존의 십자가로에서 동장대로 이어지던 구부러진 길 대신에 반듯한 이 길이 주 통로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 난 반듯한 도로 사이사이에 화성 성내에는 많은 오래된 좁고 구부러진 골목길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서문에서 성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과 화홍문에서 성 중심부로 이어지는 몇 갈래의 골목길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드러나는 길은 종로 네거리 동쪽 약 15미터에서 장

안문 쪽으로 이어진 비교적 넓은 구부러진 큰 길이다. 이 길은 1910년대 지형도에도 그대로 남아있던 부분이며 『화성성역의궤』에서 신작로로 부르던 길 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길은 노폭도 그대로 남아있고 길의 형태도 거의 온존하게 남아있다.

이 밖에 성내 곳곳에는 오래된 좁은 골목길들이 마치 싹뿔처럼 연결되어 옛길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지적도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지적도와 실제의 도로 상황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된다. 화서문에서 성안으로 연결된 도로는 비록 모습은 남아있지만 군데군데 주택지가 도로를 침범하여 길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도중에는 길이 끊어진 부분도 있다. 화홍문에서 성내와 연결된 길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직선도로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지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로쪽으로 주택지가 침범한 결과로 보인다.

3. 옛길의 현대적 재생 방안

화성의 옛길을 다시 살리는 것은 화성의 성내 경관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옛길의 정취를 느끼고 오래된 도시의 역사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화성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간선도로의 확장이나 격자형 도로의 신설 등의 변화는 겪었지만 적지 않은 옛길이 잘 남아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들 옛길에 대한 적절한 보존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길가에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설 개조를 하고 역사적 경관에 어울리는 상업시설을 유치한다면 화성 성내의 역사성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옛길의 잔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각 길의 성격이나 의미를 살펴서 옛길 중에 반드시 보존하고 정비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다. 종로네거리 동쪽에서 장안문쪽으로 이어진 길이나 화서문에서 성안으로 이어진 길처럼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고 길의 모습이 확실히 남아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보존과 정비 대상으로 삼고 이 밖에도 관광객들의 동선을 살펴서 관광객들이 성내를 걸어서 이동할 때 이용해야 하는 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는 선정된 길에 대해서는 도로의 폭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일을 막고 길 주변의 건축행위도 당분간 통제해서 남아있는 옛길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는 작업이다. 특히 노후화되어 있는 길 좌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들 길 양쪽의 건축을 어떻게 정비할지 방안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길 좌우의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 지침을 설정하는 일이다. 가능하다면 단층 또는 이층 정도의 한식 건물이 길 양옆에 늘어서면서 길 좌우에 상점을 유치한다면 시의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역사적 가로 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 뒤편은 현대식 건물로 3, 4층 정도를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화성 성내는 한식 건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남아있다고 해도 큰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내에 한식건물을 인위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거주하는데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한식 건물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서울의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이 기존에 한옥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화성처럼 이미 한옥 밀집지역이 사라지고 없는 곳에서 인위적으로 한옥밀집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그 성과도 거두기 어렵다. 그것보다는 오래된 길 양옆에 한식건물을 짓고 그곳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업시설을 유치한다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대신 건물은 단층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공간의 협소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식 건물은 이미 구한말에 서울의 상업 가로변에서 이층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역사적 경관에 어울리는 이층 한식건물이 늘어난 옛길 조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맺음말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안에 지나지 않으며 실천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심지에서 가로를 정비하거나 건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일은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서 갑자기 실천에 옮길 경우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부족에 따른 비협조, 집단적인 민원유발 등이 뒤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방안의

검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두를수록 문제점이 크고 실패의 확률이 높아진다.

화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군사유적인 동시에 2백년 전에 새로 조성한 도시유적이다. 이제 잘 정비된 성벽과 함께 옛길의 역사적 경관이 살아난다면 화성의 문화유산 가치는 한층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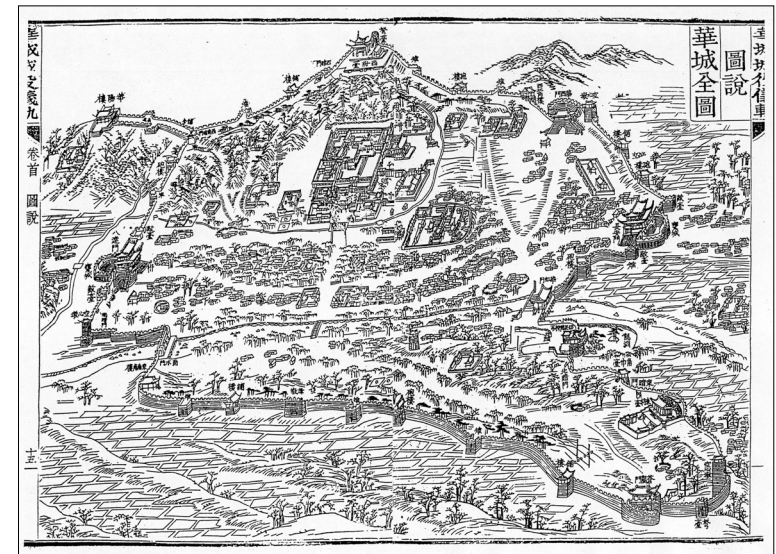


그림1.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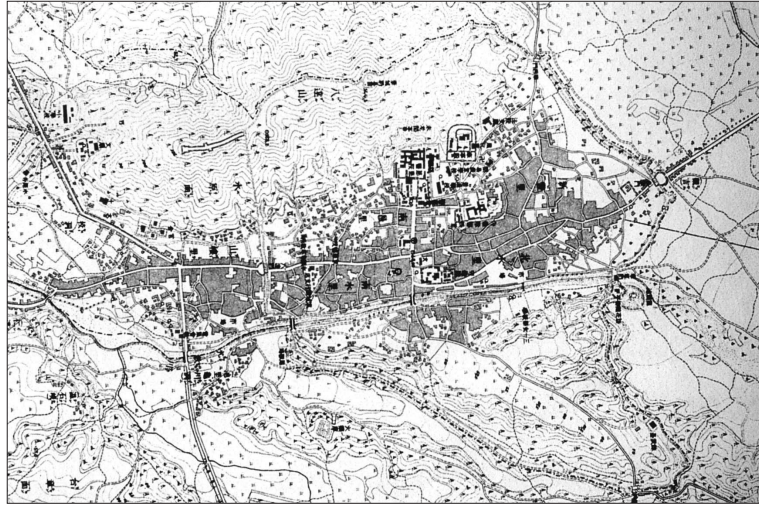


그림2. 수원지형도(부분, 『朝鮮一萬分之一地形圖集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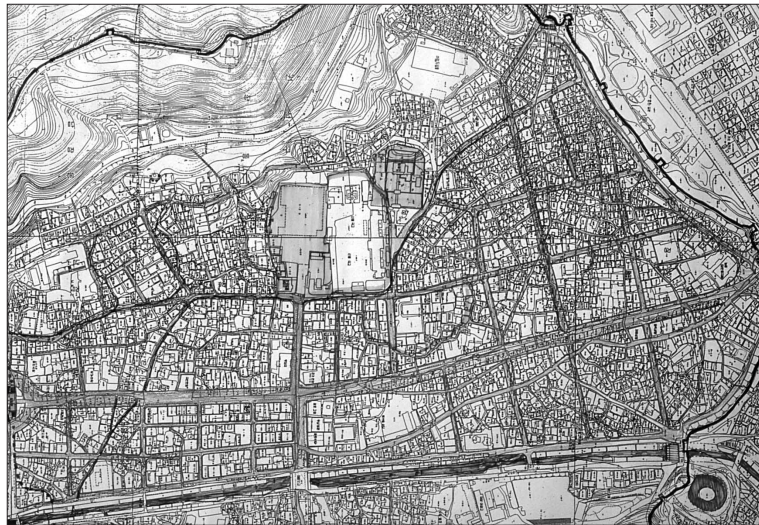


그림3. 현재의 수원 중심부 지적도에 나타난 옛길

참고문헌

華城城役儀軌

日省錄

朝鮮總督府作製 朝鮮一萬分之一 地形圖集成, 朝鮮總督府, 1916.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현대지도문화사, 2000.

수원시, 『수원도시변천사』, 수원시, 2004.

수원시내 4대문 안의 도시 계획

김 동 훈 (홍익대학교)

-
- | | |
|--------------------|-----------------------------|
| 1. 수원화성 내 한옥의 현황 | 1.6. 수원화성 내 현존하는 한옥의 조사, 분석 |
| 1.1. 수원 화성의 축성배경 | 2. 수원화성 내 한옥의 발전방향 |
| 1.2. 수원화성의 변천과정 | 2.1.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
| 1.3. 수원화성의 주요시설물 | 2.2. 화성 내 한옥의 조성 |
| 1.4. 수원화성의 현황 | |
| 1.5. 수원화성 내 한옥의 현황 | |
-

1. 수원화성 내 한옥의 현황

1.1. 수원 화성의 축성배경

수원화성은 1789년 10월 7일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을 당시 수원의 중심지인 현재의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용건능으로 이장(移葬)하고 읍치(邑治)를 팔달산 동쪽 기슭에 관아(官衙)와 행궁(行宮)을 건설하면서 화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인 1794년 1월에 착공, 약 2년여 후인 1796년 9월에 완공된 길이 5.74Km, 면적 1,297,060m²인 성곽이다.

화성의 건설은 18C 실학을 토대로 건축기술·재료 및 과학의 집성과 정치·군사·경제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하천준설, 문루(門樓), 도로, 수문, 교량, 연못 등)이 완비되었다. 농업 진흥을 위한 만석거와 둔전을 경영하

고, 오늘날 수원이 농업연구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축만제와 만년제를 건설하였다. 또한, 상공업 진흥을 위하여 화성 내 종로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의 유치와 많은 세계특혜로 팔부자 거리 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화성 주변에 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2. 수원화성의 변천과정

조선시대 화성의 모습은 화성행궁(華城行宮)을 중심으로 십자가로(현 팔달로)와 신작로(현 팔부자거리)로 나뉘어져 십자로 주변으로는 관청이 위치하여 축성 당시부터 상업이 번성하였다. 당시에 장안문(長安門)지역 보다는 팔달문(八達門)지역의 상업이 발달하였고 주거시설 또한 팔달문(八達門)지역이 장안문(長安門)보다 규모가 큰 주거시설이 많이 분포하였다. 이에 비해 장안문(長安門)은 소규모 주거시설이 분포하였다. 또한, 신작로 내에는 상업을 장려하기 위한 팔부자 거리를 조성하였고 우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반면, 동창부리지역은 밭과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는 철도와 경부선의 개설로 팔달문(八達門) 주변의 성곽이 헐리게 되었으며, 수원역의 개설로 팔달문(八達門) 주변과 도로변은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비해 장안문(長安門)주변의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갔다. 1905년 조선통감부에 의해 화성행궁(華城行宮)이 철거되고, 경기도립 수원병원이 들어섰으며, 화성 내 객사는 신평초등학교로, 낙남헌(洛南軒)은 수원군청으로 용도가 변하는 등 수난을 겪어야했다.

일제시대의 화성은 교통의 요충지였으나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훼손이 일어났다. 특히 장안문(長安門)의 문루(門樓)는 포격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창룡문(蒼龍門)의 문루(門樓) 또한 완전히 훼손되는 등 많은 성곽시설물들이 상당부분 파손되어 성벽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곳은 서쪽 산 정상부의 극히 일부분 뿐이었다. 특히 여장이 온전히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1970년대 화성이 복원되기 이전까지 팔달문(八達門)의 통행은 팔달문(八達門)내로 통행하였다. 그러나 웅성(甕城)의 문이 좁아 불편하다하여 웅성(甕城)의 앞부분을 절단하였다가 화성 복원시 웅성(甕城)은 복원하고 로타리 형식으로 통행하도록

되어졌다.

현재 화성의 모습은 화성성곽과 주요 시설들의 복원을 완료하였거나 복원 중에 있으며, 미복원 시설들 또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복원사업을 통해 화성행궁(華城行宮) 등을 복원하였으며, 현재는 화성행궁(華城行宮)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행궁광장 조성 등 주변대지를 회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창룡문(蒼龍門), 화홍문, 화서문(華西門) 등의 문화재 주변으로 회복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화성 내 주거지역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였고 팔달로변 건축물은 신축보다는 리노베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1.3. 수원화성의 주요시설물

수원화성의 주요시설물은 2008년 6월 현재 총 85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시설물은 팔달문과 화서문을 포함한 11개소, 장안문과 창룡문 등 복원된 시설물은 40개소, 아직 복원되지 않은 미복원 시설물은 34개소가 있다.

이 중, 성곽과 관련된 부속 시설물로는 총 50개소가 있으며, 내부 시설물로는 35개소가 있다. 성곽과 관련된 부속시설물 중 수해와 전란으로 소실된 7개의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43개의 시설물이 현존해 있다. 내부 시설물로는 화성행궁과 종루등 7개의 시설물들이 복원 등으로 현존해 있으며, 중영이나 이아 등 28개소는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수원화성의 시설물 현황-2008년〉

구분	시설물	비고	구분	시설물	비고	구분	시설물	비고		
문루 門樓	장안문	복원	포루 砲樓	북동포루	복원	연못	동지	미복원		
	팔달문	원형보존		동포루	복원		복지	미복원		
	화서문	원형보존		북서포루	복원		용연	복원		
	창룡문	복원		서포루	복원		남군영	복원		
암문 暗門	북암문	원형보존	포사	남포루	복원	공해 公廩	북군영	복원		
	동암문	복원		서남포사	복원		서리청	복원		
	서암문	원형보존		동북포루	복원		외정리소	복원		
	서남암문	복원		북포루	복원		종루	복원		
수문 水門	북수문	복원	포루 鋪樓	서포루	복원	공해 公廩	중영	미복원		
	남수문	미복원		동일포루	복원		이아	미복원		
隱溝 은구	남은구	미복원		치성 雉城	동이포루		복원	공해 公廩	별효사청	미복원
	북은구	미복원			서일치		복원		별군관청	미복원
공심돈 空心墩	동북공심돈	복원	치성 雉城		서이치	복원	공해 公廩		강무당행각	미복원
	남공심돈	미복원			서삼치	복원			무고행각	미복원
	서북공심돈	원형보존		용도서치	복원	수성고		미복원		
각루 角樓	동북각루	원형보존		치성 雉城	용도동치	복원		공해 公廩	군무소	미복원
	서북각루	복원	동일치		복원	창고(5)	미복원			
	서남각루	복원	동이치		복원	성신사	미복원			
	동남각루	복원	동삼치		복원	중포사	미복원			
장대 將臺	서장대	복원	봉돈	북동치	복원	공해 公廩	내포사	미복원		
	동장대	원형보존		남치	복원		별주	미복원		
적대 敵臺	북동적대	원형보존		노대	북동적대		원형보존	공해 公廩	분봉상시	미복원
	북서적대	원형보존			서노대		복원		감옥	미복원
	남동적대	미복원	弩臺		동북노대	원형보존	화령전		원형보존	
	남서적대	미복원	행궁		화성행궁	복원	수문청(4)		미복원	
			연못	남지	미복원		미로한정	미복원		

1.4. 수원화성의 현황

1.4.1. 화성주변의 자연적 환경

수원화성은 수원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과거부터 수원의 행정·상업중심 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제1도심지역에 화성생활

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도 1호선, 국도 42, 43호선과 연결하고, 구시가지의 중심가로인 팔달로가 관통하여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팔달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화성성곽으로 인한 높이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화성의 성외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저층의 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이의신도시 예정지와 연초제조창 이전부지 등의 개발가능지역과 KBS드라마센터, 월드컵경기장 등 인구유입시설이 입지해 있다.

수원화성의 자연환경은 서측으로는 팔달산과 동측으로는 동공원이 입지해 있으며 표고는 40~100m로 팔달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 이하의 평탄한 시가지로 되어 있다. 광교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는 광교저수지에 유입되고, 이 물은 다시 수원 시내를 관통하여 화성의 대표적 선형요소인 수원천을 형성하고 있다.

1.4.2. 토지현황

수원화성의 전체면적 중 대지가 1,246m²로 55.6%를 차지하고 도로 21.2%, 임야 10.0%로 분포되어 있다. 구역 내는 대부분 시가지로서 대지와 도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학교용지와 성곽주변으로 임야 및 수원천의 하천용지가 분포하고 있다.

〈화성내 지목 현황-2006년〉

구분		계	대지	도로	임야	학교용지	기타
면적	천m ²	2,240	1,246	473	225	105	191
	%	100	55.6	21.2	10	4.7	8.5
필지수	개	11,169	7,776	2,048	186	22	1,137
	%	100	69.6	18.3	17	0.2	10.2

1.4.3. 용도지역 현황

수원화성 주변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59.6%)와 일반상업지역(27.9%)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팔달로 주변으로 일반상업지역이, 그 배후로 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팔달산, 동공원 및 성곽주변의 근린공원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성내 용도지역 현황-2006년〉

구분	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면적(천m ²)	2,240	1,264	593	369	14	
구성비(%)	100	56.4	26.5	16.5	0.6	

1.4.4. 용도지구 현황

용도지구 현황으로는 팔달로와 창룡문 주변으로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성곽주변, 화령전, 향교 및 팔달산 주변으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팔달산 주변 성곽연결 지역과 행궁에 문화지원보존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팔달문과 장안문 주변 상업지역에 4층 이하, 기타지역은 6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화성내 용도지구 현황-2006년〉

구분	계	일반	역사문화	문화자원	최고	방화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고도지구		
면적	천m ²	1,581,290	93,990	416,580	76,250	671,829	322,641
	%	100	5.9	26.4	4.8	42.5	20.4

〈화성내 용도지구 규제사항〉

구분	규제사항	비고
일반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제한 : 3층이상 • 건축선후퇴 : 2m이상 	
역사문화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제한 : 3층이하 • 건축선후퇴 : 2m이상 • 건축물형태 : 경사지붕(단, 1/2이상 경사지붕) • 1/2이상은 옥상녹화 	
문화자원보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최고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문, 팔달문 주변 : 3층이하 • 일반상업지역 : 6층이하 • 수원천 : 3층이하 	

1.4.5. 가로구조 현황

수원화성의 가로망 구조는 팔달로(25m)와 창룡문로(25m)가 간선축이며, 화성의로의 주된 접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성내부는 격자형으로 139개 도시계획도로(6~15m)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내 도시계획도로 현황-2006년〉

구분	계	대로	중로	소로	비고
노선수(개)	139	8	7	124	
연장(m)	43,704	10,741	4,383	28,579	

화성 내에는 약8개 노선의 주요 옛길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옛길은 팔부자길, 동창부리길, 한데우물길, 남수길이며, 옛길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팔창길, 군량고길, 복수문옛길, 서문옛길 등이다.

〈화성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옛길현황-2006년〉

도 로 명	연장(m)	폭원(m)	비고
팔부자길	372	8	소로2-236, 소공원조성
동창부리길	730	8	소로2-196
한데우물길	168	6	소로3-360
남수길	325	6	소로3-369

1.4.6. 수원화성의 건축물 현황

화성 내 건축물들의 95.5%가 3층이하로 건축되어 있다. 이 중 83.3%가 1~2층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팔달로 주변의 상업지역과 주요간선도로변으로는 3층 이상의 건축물들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팔달문 일대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 팔달문 주변으로는 재래시장과 현대적 쇼핑센터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상권이 번창하고 이로 인하여 높은 지가(地價)가 형성되어 건물들도 비교적 고층화(3~7층)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성곽주변과 복수동 일대는 상업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의 약화로 저층의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다.

〈화성내 건축물 층수 현황-2006년〉

구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상
건축물수(동)	2,750	1,504	786	335	96	24	5
구성비(%)	100	54.7	28.6	12.2	3.5	0.8	0.2

건축물의 구조형태로는 연와조가 47.7%, 철근콘크리트구조가 17.0%를 차지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 팔달로와 창룡문길에 면한 상가건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면부의 소규모 저층건물과 주거형 건축물, 건축년도가 오래된 건물들이 블럭조와 목조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성내 건축물 구조 현황-2006년〉

구분	계	연화조	철근콘크리트조	블럭조	목조	기타
건축물수(동)	2,750	1,504	786	335	24	5
구성비(%)	100	54.7	28.6	12.2	0.8	0.2

화성 내 건축물의 준공년도를 살펴보면, 전체 건축물의 51.1%가 1970년~1980년대에 건축되었는데, 이는 1979년도에 시작된 복원정화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에는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성곽주변 및 접근이 불리한 블럭 내부에 노후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팔달로 주변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조차 최고층수 규제, 성곽에 의한 높이규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불법건축물과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화성내 건축물 준공년도 현황-2006년〉

구분	계	1959년 이전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년 이후
건축물수(동)	2,750	570	253	849	556	423	99
구성비(%)	100	20.7	9.2	30.9	20.2	15.4	3.6

지붕의 재료로는 슬래브와 기와가 지붕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슬래브가 5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내 건축물 지붕재료 현황-2006년〉

구분	계	기와	슬래브	슬레이트	초가	패널	기타
건축물수(동)	2,832	970	1,545	118	151	23	25
구성비(%)	100	34.25	54.56	4.17	5.33	0.81	0.88

역사문화미관지구내의 지붕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경사지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이외의 상업건축물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된 상태였고,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경사지붕의 형태에서 변형된 눈썹지붕의 형태로 편법적인 건축물이 나타났다. 주도로인 팔달로 변에 접한 건축물은 주로 평슬래브로 되어 있으며, 주거건물에는 주로 기와지붕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 조선기와 대신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1.5. 수원화성 내 한옥의 현황

수원화성의 축성 당시에는 한옥이 군집을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이 마음껏 연출되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한옥들도 성내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양성관 가옥은 일제시기 수원 제일의 부호 가옥으로 팔달산 아래 남창동에 입지해 99칸 규모의 웅장함이 돋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용인민속촌으로 옮겨져 있고, 대부분의 화성 내 한옥들도 절반 이상이 증·개축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헐린 상태로 지어질 당시의 건축형식과 전체적인 구성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흔적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수원 화성 내에는 전체 4,343세대 중 166세대만이 한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성내 전체 거주 세대의 약 3.8%만이 한옥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 약 3.8%의 한옥들마저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전통적인 형태의 한옥마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화성 내 1,192,000m² 라는 넓은 면적 안에 분산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분산 분포되어 있는 한옥들은 군집 속에서 나타나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주변건축물 속에 군데군데 불량한 상태로 끼어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성내 현존 한옥은 건축주의 개인적 실익과 지속적 유지, 보수 관리 비용

에 대한 부담으로 손실과 훼손에 노출되어 있다.

1.6. 수원화성 내 현존하는 한옥의 조사, 분석

수원화성 내 현존하는 한옥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북촌지역 한옥의 실태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 한옥의 ①지붕재료, ②천막 설치 여부, ③처마 노출 여부, ④외벽 유형, ⑤대문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①지붕 재료의 경우 한식 기와 2.0, 한식 세기와 1.5, 금속 기와 1.0 시멘트 기와 0.5, 기타 재료 0.0의 가중치를 주었다.

②지붕 천막 설치 여부에 따라 천막이 없을 경우 2.0, 일부 천막 설치 시 1.0, 전체 천막 설치시 0.0의 점수를 주었고,

③처마의 노출 정도에 따라 완전 노출시 2.0, 반 노출 1.0, 비노출 시 0.0의 점수를 주었다.

④외벽의 경우 전통 양식일 경우 2.0, 일부 전통 양식 1.0, 기타 양식 0.0의 점수를 주었고,

⑤대문은 한식으로 했을 경우 2.0, 대문 일부가 한식일 경우 1.0, 비한식일 경우 0.0의 가중치를 주었다.

〈화성내 한옥상태 판단기준표-2008년〉

구분	지붕재료	천막설치여부	처마노출여부	외벽유형	대문유형
점수 기준	한식 기와:2.0	없음:2.0	완전노출:2.0	전통양식:2.0	한식대문:2.0
	한식세기와:1.5	일부:1.0	반노출:1.0	일부전통양식:1.0	일부한식대문:1.0
	금속 기와:1.0				
	시멘트기와:0.5	전체:0.0	비노출:0.0	기타양식:0.0	비한식대문:0.0
	기타 재료:0.0				

이러한 점수 기준표로 전체 166세대의 현재 수원 화성 성내 한옥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량(3.5이하), 보통(4.5~7.5), 양호(8이상)의 세가지 기준으로 전체 성내 한옥의 상태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166세대의 성내 현존하는 한옥들은 그 상태가 양호한 한옥이 20세대,

보통인 한옥이 58세대, 불량인 한옥이 59세대, 확인불가 한옥이 29세대로 나타났다.

〈화성내 한옥상태 현황-2008년〉

구분	계	양호 (8이상)	보통 (4.5~7.5)	불량 (3.5이하)	확인불가	비고
한옥수(동)	166	20	58	59	29	
구성비(%)	100	12.0	34.9	35.6	17.5	

2. 수원화성 내 한옥의 발전방향

2.1.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수원화성이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이다. 화성이 축성된 후인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는 공사일정, 공사감독관 명단, 각 부분의 그림과 설명, 각종 공문서 및 어전회의기록, 상량문, 각종 자재의 명칭과 수량, 소요된 비용의 출납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공사보고서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화성성역의궤는 2007년 7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은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면 등록 후 6년마다 보고를 하고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재심사를 하는데, 세계 유산이 등록할 당시 존재했던 이른바“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상실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계 유산 보존에 대해 조건부로 등록했으나 그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위기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세계유산으로서의 등록말소를 결정한다.

독일의 쾰른 대성당의 경우 인근의 고층빌딩 건설에 따른 경관 파괴가 문제되어 2004년 위기유산으로 지정되었다가 시당국의 노력에 의해 2006년에 해제되었고, 아라비아 사막의 생지리학적 지대로 유명한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계

획의 불충분으로 등록연기를 권고받았으나 오만 정부의 무리한 개발우선정책으로 인해 등록이 말소되었다.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위협에 처한 세계위기유산은 30개나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종묘의 경우에도 주변 100m가 채 안되는 위치에 1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관할구청의 허가까지 득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종묘를 둘러싼 주변 경관의 훼손으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의 경우처럼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AMOS)는 올 초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가 주변 개발로 가치와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경우 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수원화성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리에 소홀할 경우 위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지, 관리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2. 화성 내 한옥의 조성

수원화성의 주변 경관을 위해 성곽과 어우러지는 밀집된 한옥 모습의 재현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화성 내부에 한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통 한옥을 조성할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사비는 비싸다는 (3.3m²당 1,000만원~1,500만원 내외)생각이 대부분이다. 특히, 화성의 경우 지가(地價)가 비싸고 개별 필지가 소규모로써 한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변형된 한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전통 한옥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통 한옥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조건 전통 한옥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된 한옥의 모습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 한옥과 변형된 한옥(도시형 한옥, 보급형 한옥)을 주변 여건에 맞게 병행하여 조성할 경우 한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성곽주변이나 4대문(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주변, 화성내부의 문화재 및 복원시설주변에는 전통한옥으로 조성하고 그 외 지역에는 변형된 한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2.1. 한옥에 대한 부정적 관념 탈피

건축주에게 한옥건축물을 제안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갖는 한옥에 대한 편견 때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은 생활이 불편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공사비가 비싸고,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도시형 한옥의 조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화된 평면을 구성하고 표준화 모델과 표준화 시공방법을 구축하며 새로운 방식의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부정적 관념을 충분히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2.2.2. 공공에서의 인프라 구축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에서 한옥의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반인이나 민간사업자가 한옥을 조성할 경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 예를 들면 건축법상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변형된 한옥 건축물의 발생이나 경제적 손실, 이웃간 분쟁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의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청사나 관공서, 공공시설물을 한옥으로 조성하고 시범사업이나 정책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일반인에게 점차 보급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2.2.3. 한옥의 기능 개선

한옥 생활에 있어 가장 불편한 부분은 마당과 연계된 부엌, 화장실의 공간구성과 냉난방시설, 단열, 방습 등이다.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마당의 개념은 일반건축물에도 심심치 않게 적용되고 있지만 현대인의 생활방식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공간과 연계된 공간구성은 다소 불합리하게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와 연결된 부엌과 화장실을 복도라는 공간을 통해 실내로 끌어들이 수 있다. 또한 고래 켜고 구들장을 놓은 온돌방은 현대적 냉

난방시스템의 도입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단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스템 창호를 적용한 전통문양의 창호디자인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옥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현대적 시스템 적용으로 각 실의 공간구성 역시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침실과 거실에 인접한 화장실과 욕실, 주방과 식당의 기능을 복합시킨 입식부엌 등 현대인의 생활패턴에 알맞은 공간구성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옥의 기능개선이 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통의 기와지붕과 서까래와 부연 등이 어우러진 처마를 구성하고, 목재마감의 기둥과 보를 설치하며 전통재료를 사용한 외벽마감과 담장, 대문, 창호디자인을 지켜야 한다.

2.2.4. 한옥관련 정책 제안

한옥을 널리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에서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형성시킨 한옥 시장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옥조성으로 인한 개개인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화성주변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과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정도의 규제만으로 문화재들을 보호하며 관리하고 있을 뿐, 주변 조성을 위한 규제나 지원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서울시와 전주시, 경주시, 전남 장흥군과 같은 지자체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한옥을 보급하는 것처럼 수원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조례제정과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옥조례 제정에 앞서 몇가지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화성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옥에 대하여 조례상으로 지정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화성 내에는 166세대의 한옥이 존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축형태가 보통이하의 불량스러운 건축물이다. 하지만 이 한옥에 대하여서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보호하고 관리하여 더 이상의 훼손과 소멸을 막아야 한다.

한옥의 지정제라 하면 한옥조례로써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와 외관 등의 형태를 한옥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시행하였을 경우

해당 한옥은 한옥 외의 형태로 건축행위가 불가하게 된다. 한옥 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강제적 성격이 강하여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옥의 수선 및 신축 시 그 비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주차 및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옥 지정제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경우 현존하는 성내 한옥의 추가적인 손실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존하는 한옥의 수선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개별 한옥 상태 개선의 가시적 효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한옥은 향후 성내에 신축되는 한옥들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옛길의 복원과 연계할 경우 전통경관 재현과 옛 모습 회복을 통한 전통적 관광요소를 확보하는 등의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한옥 지정제를 상업지역 내 한옥에 적용할 경우 주거지역 내 한옥에 비해 그 재산권 침해 정도가 더욱 심각할 것이며 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현재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33세대의 존치가능 한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건물을 한옥으로 지정 및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화성 내에 신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조례상으로 한옥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한옥 지정제가 현존하는 한옥의 개별 필지에 대한 강제적 규제라면 한옥 등록제는 지구단위별 자율적 등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옥 등록제는 장기적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한옥의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된 지구 내 비한옥 건축물의 건축주나 한옥으로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물을 한옥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지구단위 규모의 한옥군을 도입하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다. 한옥 등록제는 지정제와 달리 강제성이 배제되어 있어 건축주가 한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소기의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 홍보 및 설득 후 주민 참여까지의 소요기간이 장시간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은 장기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설득 과정, 건물 신축 시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과정들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을 경우 제도에 대한 참여 동기가 자율적이어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고 주민들이 자신의 건물뿐 아니라 자신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 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공공비용의 절감 효과와 다른 이웃 주민들에 대한 한옥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존치한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강제적 성격의 한옥 지정제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옥을 건축하도록 지원, 유도하는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 보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는 향후 수원 화성 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수원화성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옥 지정제와 등록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옥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옥 관리 부서는 한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옥 표준화 모델을 확립하고 지정 한옥의 수선 및 신축에 관한 자문을 함으로 지정 한옥을 더욱 더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셋째, 한옥의 건축구조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한옥이라 함은 단층 목조 구조의 전통 양식에서부터 다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구조가 다양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전통 양식의 한옥을 활성화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전통한옥의 양식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수선 및 신축하는 건축물의 공사비와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는 한옥의 활성화의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옥을 전통 한옥, 도시형 한옥, 보급형 한옥으로 나누어 적용 대상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구분된 한옥별로 지원에 대한 차등적용을 시행하여 건축주가 건물의 수선 및 신축 시 자발적으로 전통한옥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 한옥은 마당과 마루가 있는 전통식 배치를 한 전통 양식의 한옥으로 단층 이거나 단층에 다락이 있는 목구조 양식이다. 지붕은 전통 한식기와를 적용하고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재료와 양식을 사용한 한옥이다.

도시형 한옥은 목조 뿐만 아니라 목구조에 볼트를 조립한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까지 허용한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적용하고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재료와 양식을 사용한 한옥이다.

보급형 한옥은 변형된 한옥으로 목조뿐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조를 포함한다. 지붕은 기와지붕을 적용하고 일반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재료와 양식을 사용한 한옥이다.

넷째, 한옥조성과 다른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옥으로 조성시 도로에 대한 기준완화규정, 건축선의 지정 및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규정 등 법적인 완화규정과 조례상의 보조 및 용자에 대한 지원제도만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옥 보급을 위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2.2.5. 한옥마을의 조성

한옥에 대한 경관은 개별적인 건축물로서가 아닌 군집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살아있는 주민공동체로서 마을커뮤니티센터의 재생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하여야 한다.

단시간 내에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옥으로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옥구역의 도입과 그 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구역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원 화성 내 현존 한옥이 밀집된 곳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존 한옥이 밀집된 곳에 지원을 집중할 경우 제한된 사업비로 결과의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 화성 내 현존하는 한옥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장안동과 남수동 일대이다. 특히, 이 두 곳은 각각 서문옛길과 남수길과 같은 주요 옛길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구역 내 한옥이 활성화 될 경우 옛길 복원과 함께 그 연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다.

화서문 주변 장안동 일대 지역은 화성 성곽과 화서문의 전통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한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한옥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 순수 전통한옥으로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분양 시에는 향후 건축물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사항이 필요하고 임대 시 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이 구역은 주거, 게스트 하우스, 공방 등의 용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통한옥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장안동 일대와 남수동 일대의 한옥 밀집지역은 도시형 한옥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 건물의 신축 또는 대수선시 전통한옥과 도시형 한옥으로 제한한다. 이 구역 내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및 기존한옥을 제외 한 350세대는 그 용도를 주거 및 전통 관련 근린생활 시설로 규제한다. 그리고 경관저해 요소 건축물을 별도로 선정하여 우선매입대상으로 결정하여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한옥으로 건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전통한옥구역과 도시형 한옥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원화성 내부지역은 보급형 한옥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신축 또는 대수선을 요하는 건축물들에 대해 보급형 한옥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주거 및 전통관련 용도를 권장하도록 한다.

한옥구역 지정과 별도로 관에서는 장안동과 남수동의 한옥구역 내에서 경관에 저해되는 기존 건축물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한옥조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매입대상 건축물 선정기준은 1970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존치가능 한옥이 아닌 건축물, 옛길과 교차한 곳에 위치하여 외관이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로 상기 5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장안동과 남수동 한옥구역 내 상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장안동 한옥구역 내 12세대, 남수동 한옥구역 내 10세대로 총 22세대의 건축물을 우선 매입하여 전통한옥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한옥 건축물들은 게스트 하우스, 공방, 소규모 박물관 및 전시관 등의 용도로 위탁운영하거나 분양 및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2.2.6. 표준화모델 제시

한옥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와 경제성이 매

우 중요하다. 각 부재와 재료의 대량생산 체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의 절감을 수반할 수 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한옥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옥의 도면은 “간(間)”의 개념으로 매우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 개별 건축물마다 독립적으로 지어지다보니 규격화나 모듈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현장에서 대목이나 목수의 경험에 의한 재량권이 부여되다 보니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복촌 한옥마을,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남한산성 한옥마을 등과 같이 한옥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현장 대목들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수원화성의 여건에 맞는 표준화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원화성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1,169필지 중주거지역 최소분할기준 면적인 60m²이하의 필지는 4,219개로서 37.8%나 차지하고 있으며 60~150m²의 필지규모는 3,370개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50~300m²의 필지규모는 2,421개로 21.6%, 300~1,000m²의 필지규모는 906개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1,000m² 이상의 대형필지는 253개로 2.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정비가 필요한 많은 소규모 필지들이 성곽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화성내 필지별 규모 현황-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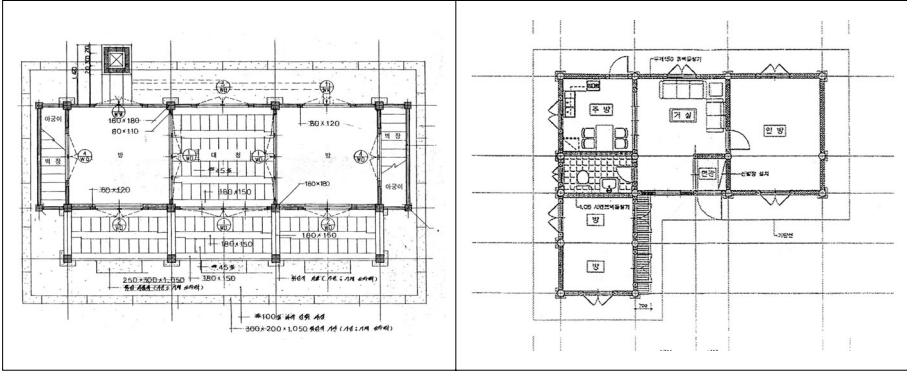
구분	계	0~60m ²	60~150m ²	150~300m ²	300~1,000m ²	1,000m ² 이상
필지수(개)	11,169	4,219	3,370	2,421	906	253
구성비(%)	100	37.8	30.2	21.6	8.1	2.3

따라서, 전통한옥구역에서 순수 전통한옥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지면적 300m²이상, 도시형 한옥구역과 보급형 한옥구역에서는 150m²이상의 대지면적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접 필지간 협의매수를 통한 충분한 대지조성이 필요하다. 자칫 이를 악용하여 대규모 대지가 조성으로 인한 대형 건축물이 입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은 한옥으로만 국한시키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중부지방의 건축특성인 「一」자형, 「ㄱ」자형, 역「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등 대표적인 건축배치와 평면형태를 반영한 한옥 표준화모델을

제시하여 건축주가 선택하여 한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화 모델 예시-남산한옥마을〉



수원화성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된 한옥의 조성은 소위 “내집앞 가꾸기”와 같은 주민 참여형 아젠다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민(民)과 관(官)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속에 수원화성이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화성박물관의 특성화와 운영방안

조 성 을 (아주대학교)

머리말	3. 화성박물관의 운영방안
1. 최근 박물관의 추세	맺음말
2. 화성박물관의 특성화 방안	

머 리 말

경기도 지역에는 이미 많은 박물관이 있으며¹⁾ 또 최근 여러 박물관이 건설 중 또는 개관 준비 중에 있다.²⁾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제 우리는 양적 확대에 더하여 박물관의 질적 발전을 생각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미 개관되어 있는 박물관 가운데 적지 않은 곳이 예산과 훈련된 인원의 부족, 지리적 불편 등 여러 제약 여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고 찾아오는 관람객 수도 많지 않다.

박물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기능을 하여 왔다. 이 가운데에서 초기에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

1) 경기도 박물관 협의회, 『현대인을 문화놀이터-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2007)에 소개된 경기 지역 주요 박물관 해도 90개 소에 이른다.

2) 수원만 해도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화성박물관이 현재 건물 자체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9년 4월 개관 예정으로 활발하게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수원역사박물관이 서예박물관, 사운 이종학 사료관과 함께 개관되었다. 또 인근 화성시 지역에 효 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며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향리 마재에 실학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시되었으나 점차 전시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최근에는 관람객에게 교육과 흥미, 체험을 중시되는 한편 박물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함양에 박물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박물관의 활성화는 많은 관광객을 외지에서 오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자체의 재정예의 도움 등의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수동적으로 관람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에 많은 박물관이 있는 상황에서 고유한 특색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활성화와 특성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관람객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이를 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최근 여러 박물관들이 지자체 주민·관람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런 추세와 이들의 구체적 사례를 우리는 잘 참고하면서 운영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최근 박물관의 추세를 살핀 뒤, 화성박물관의 특성화와 화성박물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최근 박물관의 추세

현대 박물관의 추세는 시민을 위한 박물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련 하에서의 지역문화의 종합적 활성화를 센터로서의 기능, 지역의 상징적 건설물과의 관련 하에서의 역사적 유물이활용, 테마 박물관, 박물관 네트워크의 형성, 전시 기법의 발달, 국제협력, 관광과의 밀접한 관련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³⁾ 이것은 대체로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즉 관람자 중심이라는 입장으로서의 방향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일반적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수요자 중심에 서게 될 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일, 관람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일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박물관은 단순한 오락 센터가 아니며 원래 그 고유 기능으로서 유물의 수집과 보존, 연구 기능 등이 있고 또 최근 평생 교육의 지향 추세와 더불어 사회 교육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가 건립하는 박물관의 경우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기능에도 기여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일견 상충적으로 보이는 두 측면을 화성 박물관의 경우 비교적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화성박물관이 소재한 수원 지역은 그 역사적 유적만으로도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며 이 유적들은 그 자체가 우리 조선후기 문화의 꽃으로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수원 사람들로서는 지역적 특색과 함께 자긍심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성박물관은 수원 중에서 행궁과 연무대 사이에 위치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장안문, 화홍문, 방화수류정이 위치하며 바로 옆에 유천(수원천)이 흐르고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화성박물관을 특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화성박물관의 특성화

박물관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위치 선정이다. 본 화성박물관국내에서 최초로 성곽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고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화성 성곽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위치 선정을 하였다. 이 점에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1차적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위치를, 그야말로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연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화성박물관 그 하나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역사문화의 도시로 가꾸는 것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적으로 선정된 화성의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

3) 오즈카 카즈요시(홍종필 역),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2004.

이다. 이것은 수원 전체가 문화 유적이라는 뜻도 된다. 적어도 화성 성곽 내부 및 그 주변은 모두 문화유적 도시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팔달문과 장안문 사이의 간선 도로와 창룡문과 화서문 사이의 길을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길은 장기적이고 전체적 계획 하에 조선후기 정조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화성박물관은 창룡문과 화서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행궁 앞 광장과 의 거리는 수백 미터에 불과하고 현재 화성행궁 광장과 화성박물관 사이에 종각이 재건되고 있다. 그리고 화성박물관에서 화홍문·방화수류정까지의 거리도 수백 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화성박물관에서 화홍문·방화수류정까지, 그리고 화홍문·방화수류정에서 화성행궁 앞 광장까지를 도보로 갈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수원 전체의 역사문화 거리 조성 사업을 일단 이 삼각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화성박물관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박물관을 그 자체로서 고립된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거리 속에서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화홍문·화성박물관·화성행궁의 삼각 지역은 유천(수원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환경도 아울러 갖고 있다. 역사문화의 거리와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거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화성박물관에 담장을 만들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개방 형태의 화성박물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물관 외부를 매우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수원천의 수변 녹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녹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성박물관과 수원에 맞는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조대에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시도한 조경 계획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즉 정조대의 정원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생각할 문제가 주차장이다. 현재 화성박물관 앞에 비교적 넓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지중화하고 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까지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수원천은 현재로서는 매우 벽이 높고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몇 군데 되지 않아 접근이 불편할 실정이다. 보다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화성박물관 녹지공간과 단절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자가 실제로 답사해 본 결과 화홍문에서 화성박물관에 이르는 좁은

도로에는 인도가 없으며 이에 더하여 차량 통행도 적지 않아 실제로 걷기에 상당히 불편하였다. 현재 도로를 넓힐 만한 공간도 없다. 따라서 수원천 천변 벽에 붙여 몇 명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으로 잔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좋으리라고 여겨진다. 잔도는 나무로 설치하는 것이 걷기에 편하고 천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 건너편에는 현재 인도가 있으나 불법 주차 등으로 걷기가 불편하다. 여기에도 나무도 된 보도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막아야 할 것이다. 가드레일은 문화역사거리에 맞도록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간 몇 군데에 앉을 자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역사문화거리에 맞도록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화성박물관과 화성행궁 사이의 역사문화 거리조성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 이 사이의 수원천에 화강암으로 다리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문화 거리 조성물로서 잘 어울리지만 이것을 좀 더 잘 꾸미고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설날 연날리기 대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전봇대를 없애고 지중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화성박물관과 화성행궁 광장 사이에는 원래 중영이 있었다. 현재 이곳에는 교회 건물과 시장 건물 등이 들어서 있으나 이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중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화성행궁 앞 광장과 화성박물관 사이의 도로를 걷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시 바닥을 나무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길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되 나무 바닥을 차량이 다니는 도로 사이에 계단을 2~3 단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막도록 한다.

이 길의 맞은편에는 소형 건물들이 있으며 종각은 화성행궁 앞 광장 건너편에 복원되고 있다. 종각 주변의 건물들을 매입하여 녹지 공간으로 하는 동시에 타종 의식 등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문화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전통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통음식 문화 체험은 다양한 메뉴가 필요하겠지만 크게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 전통음식과 조선시대 궁궐음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장소는 화성박물관과 화성 행궁 앞 광장 사이에 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

각된다. 즉 화성행궁을 보고 식사를 한 뒤에 자연스럽게 도보로 화성행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3. 화성박물관의 운영방안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다른 박물관들과 차별화하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없어 원래의 계획했던 목표와 취지를 이룩할 수 없다. 구체적 운영방안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과의 연계 관계이다. 마침 2008년 10월 1일 수원역사박물관이 한국서예박물관 및 사운이종학사료관과 함께 개관하였다. 그 위치는 바로 수원외고 옆이라서 화성박물관과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곳은 바로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곳이라 서울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수원역사박물관은 수원지역의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화성박물관의 테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성박물관은 화성행궁 앞 광장과 불과 수백 미터의 거리에 있다. 이 세 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련 아래 서로 협조하여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기적인 연관 아래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첫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특별 전시, 강연, 박물관 대학, 각종 이벤트, 답사 등의 프로그램 등을 전년도 연말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며 서로 연관되는 행사나 전시 등은 기간을 같게 하여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자가 입수한 2009년도 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수원역사박물관의 성인 및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 <화성박물관>

(일반인 프로그램)

1. 박물관대학

공통주제 : 화성박물관 개관

- 1) 주제1 : 문화중심국 조선, 새로운 문화의 꽃 화성
- 2) 주제2 : 조선, 아시아, 세계의 성
- 3) 주제3 : 기록을 통해 되살아나는 역사(의궤)
- 4) 주제4 : 내면의 표현(조선의 초상화)
- 5) 주제5 : 18세기 조선여성 2009년에 말을 걸다
- 6) 주제6 : 과학, 기술의 힘이 표출된 수원 화성(거중기 · 녹로 만들기)
- 7) 주제7 : 전통 예술 화성을 만나다

석각 · 목각: 조각보를 통해 본 멋과 슬기

[기간] 제1기 : 2009년 5월~8월

제2기 : 2009년 9월~12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 문화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대학과 대략 같다고 여겨짐.

[기간] 제1기 : 2009년 5월~8월

제2기 : 2009년 9월~12월

나. <수원역사박물관>

(성인 프로그램)

1. 박물관대학

- 1) 수원의 역사문화별 전문가 초빙
- 2) 전통문화 심화교육
- 3) 수원 관내 답사

[기간] 2008년 3월~6월(12주), 9월 12일(12주)

2. 공무원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공무원 및 교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교육
1일 이론 강좌, 1일 답사

[기간] 공무원 : 2009년 4월~6월(월2회)

교 원 : 2009년 7월~8월(월2회)

3. 서예·문인화 강좌

- 1) 서예 강좌 : 기초반, 작품반, 4개 서체
- 2) 문인화 강좌 : 기초반, 심화반

(어린이 프로그램)

1. 전통무예 체험교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무예24기 이론 및 실기 배우기

[기간] 2009년 3월~12월

2. 나도 서예가

기본적인 서예 및 문인화 배우기

3. 가족나들이

가족관람객 제공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자료/ 상설전시장 소개

[기간] 2009년 3월~12월

이상 화성박물관과 수원역사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박물관대학을 넣고 있는 점에서 두 기관이 일치된다. 필자가 입수한 자료로는 수원역사박물관의 박물관대학 프로그램에서 다룰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화성역사박물관과의 중복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두 기관이 모두 크게 보아서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중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두 기관의 박물관 프로그램 책임자들이 만나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은 수원 인근의 대학 및 인근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단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대학의 박물관 경우 이미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자가 알기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기전문화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박물관대학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성박물관과 수원역사박물관이 동시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게 될 경우 수강생 유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기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대

학의 프로그램을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하여 수강생들이 정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주대학은 경기·수원 지역사에 대하여 정식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경기대학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박물관대학의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 준다면 보다 많은 수강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교육법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면 대학원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문화콘텐츠 학과를 학부 과정 또는 석사 과정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들의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대학의 관련 교수들과 함께 알찬, 대학교육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화성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문화학교 역시 관련 중등기관과의 협력 아래 기존 학과목의 일부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것이 현재 교육법상 가능한지 알 수 없으나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원역사박물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전통무예 같은 것은 성인, 특히 대학생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전통무예를 교양체육 등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대학의 정식 과목이 되도록 인근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체험은 박물관에서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다루어 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화성박물관의 경우 인근 지역 성곽 관련 유적을 답사하는 것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교육적 효과도 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고의 말미에 최근 발굴된 인근 지역의 성곽 유적에 대해 설명해 두었다. 백제 관련 유적이 하층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의의로 고구려 관련 유적도 적지 않다. 좋은 답사 코스를 개발하고 실제 그 발굴에 참여한 분들의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연계 티켓 사용과 연계 셔틀 버스의 운행이다. 수원역사박물관, 화성박물관, 화성행궁의 티켓을 3장을 동시에 구입하면 대폭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즉 3장을 한꺼번에 할인하여 구입하고 한번 입장 시에 한 장씩 떼어서 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로 올 때에는 당연히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연계 셔틀버스는 접근성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화성 열차의 노선을 다양화하는 방법, 또는 별도의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입장권 3매를 동시에 구입한 관람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의 노선과 정류장을 약간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 강남 방면에서 오는 버스가 경기대학 후문 쪽에 정차하는데 일단 수원역사박물관 정문 바로 앞에 정류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성박물관까지 셔틀버스를 대략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화성박물관을 관람한 뒤에는 도보로 갈 수도 있으며 화성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화성박물관과 화성행궁 구간은 가급적 도보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구간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안문에서 화홍문·방화수류정을 거쳐서 화성박물관으로 오는 코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회성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화홍문·방화수류정에서 화성행궁까지는 잔도와 같은 통로를 잘 만들고 주변의 경관을 잘 가꾸어 도보로 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연히 상설전시이다. 상설전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소장품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화성박물관 건립기본계획(전시운영) 연구』(수원화성사업소, 2004)에 따르면 화성박물관은 수원역사박물관과는 달리 “가시적인 소장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위의 책, 138). 이리하여 “박물관 소장품 확보를 위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또한 소장품 정책도 정기적으로 3~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위와 같음).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화성과 화성행궁 관련자료

가. 화성에 관한 고문서·서화·고지도 등 전적류

- (소장처)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소장

나. 화성에서 출토된 유물

- 화성행궁 출토 유물 및 성곽보수 시 발견 유물

- 여기산 출토 유물

- 구운동 출토 유물

- 영통 고려유적 유물

- 화령전 출토 유물

- 수원 고읍성 출토 유물

-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가능 지역: 사직단 터, 성신사 터, 광교산 창성사 터, 여기산, 숙지산

다. 화성과 관련된 인물 자료

- 정조, 사도세자, 영조, 혜경궁 홍씨 등과 관련된 자료

- 화성 축성을 주도한 인물들의 자료, 화성 및 화성행궁 등 건축물과 관련한 인물들

- 화성과 장인들.....(중략).....

- 상량문, 고유문, 편액, 비

- 역대 화성유수 및 판관 관련자료

- 현룡원 및 현룡원령, 참봉 관련 자료

- 영화역 및 영화찰방

- 화령전 및 화령전령

- 화성유수부 5속읍 군수 및 현감

- 화성유수부 관련 관인, 증명서

- 화성에 살았던 사람들, 일산생활과 의식주

라. 화성의 역사적 배경인 정조시대와 18세기 관련 유물.....(중략).....

마. 『화성성역의궤』, 『언행음묘정리의궤』 등을 통해 복원 가능한 유물

바. 화성의 건축적 특징과 내용을 알려주는 각종 자료.....(중략).....

사. 현룡원 천봉과 용주사 중창에 관한 자료.....(중략).....

아. 화성 건설과 유지 운영과 관련한 자료.....(중략).....

자. 군사.....(중략).....

(2) 화성에서 행해졌던 의례와 행사 자료.....(중략).....

(3) 화성행궁에서 행해졌던 의례와 놀이

(4) 성곽 관련 자료.....(중략).....

- 성곽의 기원과 발달: 한국사에서 성곽의 의미를 알려주는 자료
- 각 시대별 성곽의 특징.....(중략).....
- 외국성곽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성곽들.....(중략).....
- 수원 인근의 성곽들
 - 화성지역 : 수원 고읍성, 독산성, 길성리 토성, 남양장성, 화랑진성
 - 용인 처인성, 광주 남한산성, 안산 별망성, 평택 농성
-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모든 자료와 연구성과를 집적한 중심으로 기능.....(중략).....⁴⁾

『수원화성박물관 건립기본계획(전시운영) 연구』(2004)에서는 이상과 같이 확보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소장품을 열거하고 바로 이어서 확보 계획을 제시하였다. 확보 대상물에 대한 정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제시한 대상들은 가운데에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확보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 계획에서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또 추가해야 할 대상도 찾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설유물의 확보도 수원역사박물관과 상호유기적인 관계 하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위에서 열거한 목록 가운데 여기산 출토 유물, 구운동 출토 유물, 영통 고려 유적 유물, 수원 고읍성 출토 유물 같은 것은 확보된다면 이것들은 수원역사박물관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진다. 화성박물관은 화성 관련 유적 및 기타 성곽 관련 유물로 특화된 박물관이므로 수원지역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화성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수원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가 행정구역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하나이고 앞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들까지 고려하면서 현재 화성시와 역사·문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

4) 『수원화성박물관 건립기본계획(전시운영) 연구』, 수원화성사업소, 139~146쪽, 2004.

로 발굴 조사 등을 할 경우에도 요청되는 일이다.

위에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가능 지역으로 사직단 터, 성신사 터, 광고산 창성사 터, 여기산 등을 들었으나 성곽 관련 유적이 화성, 남양 지역에 매우 많으며 이들은 수원 화성과 관련된 유적들이다. 법적으로 원칙상 매장문화재는 모두 국유이지만 그 유물을 발굴한 단체가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발굴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학예사가 여러 명 필요한데 현재 재정 형편상 화성박물관 한 곳에 여러 명의 학예사를 두기는 곤란하겠지만 화성행궁, 수원역사박물관의 학예사들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면 발굴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굴에 참여한다면 용역 발굴의 경우 별도의 발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즉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유물을 확보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소장품 대상과 관련하여 외국의 성곽들을 언급하였다. 이 경우는 직접 유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복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 유물은 기획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유물도 교환 전시를 해 주어야 하므로 우리 자체의 유물 확보가 긴급하다. 외국과의 교류 문제와 더불어 국내의 다른 박물관들과의 교류도 중요하다. 국내의 주요 성곽과 관련된 유물들이 소재한 박물관을 조사하여 이들과의 유물 교환 전시도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 성곽 박물관의 교류 및 국내의 성곽 관련 유물의 교환 전시는 앞으로 화성박물관을 특성화시키고 많은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담당할 실무자 또는 학예사는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화성박물관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곽박물관으로 특성화시킨다면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게 되어 수원 전체의 관광 진흥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획 전시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성박물관, 화성행궁, 수원역사박물관(서예박물관 및 사문자료관 포함)이 연말에 공동으로 기획하여 상호 연계되고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또 장기적으로 좋은 기획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 학예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 화성박물관 전시 담당 학예사와 수원역사박물관 전시 담당 학예사를 자리를 만들고 한 사람이 두 곳의 업무를 겸직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맺음말

위에서 화성박물관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 가운데에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몇 단계적으로 나누어 장기적 과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첫째, 화성박물관이 애초에 계획했던 소장품 확보 계획이 현재 얼마만큼 시행되었는지 점검해 보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둘째, 2009년도 사업계획을 화성박물관, 화성행궁, 수원역사박물관이 금년 연말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9년 4월 화성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화성박물관, 화성행궁, 수원역사박물관의 티켓을 연계해 할인하여 판매한다.

넷째, 수원 지역 관광객을 위해 1일 관광의 몇 가지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2단계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셔틀버스의 운행, 시내 버스노선의 변경, 화홍관과 화성박물관 사이에 잔도를 설치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수원 화성 성곽 내 전체를 역사문화도시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플랜 속에서 첫째 화성박물관과 화성행궁 앞 광장 사이를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이미 그 사이에 종각이 복원되고 있는데 필자가 답사하여 본 결과 종각 자체는 매우 잘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바로 옆에 빌딩이 붙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고 사람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다. 일단 이 주변만이라도 녹지공간과 작은 광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각 맞은 편 쪽에 중영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 이 중영이 재건되면 무예 교습은 바로 이곳에서 실시하여 수원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근지역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내외 명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주변 공간이 확보되면 마상 무예, 마상 활쏘기 같은 것도 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 가운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해당 분야의 능력 있는 전문학예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공식사회에서 구조조정이 분위가 커져 있으나 구조조정이 반드시 인원을 줄이거나 사람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늘리는 것이 경쟁력 강화, 효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문화 분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參考文獻

(資料)

경기문화재단, 『수원화성박물관 건립기본계획(전시운영) 연구』, 수원화성사업소, 2004.

(著書)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3.

국립박물관 편, 『박물관 건축과 환경』, 1995.

세계박물관협회 편(하태환 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궁리, 2001.

게리 에드슨·데이비드 린(이보아 역), 『21세기 박물관 경영』, 시공사, 2001.

조지 엘리스 버커(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1.

송동근·양홍석·최석영, 『문화관광과 박물관』, 민속원, 2002.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박물관 경영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김영사, 2002.

오즈카 카츠요시(홍종필 역),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2004.

네일 코틀러·필립 코틀러(한중훈·이혜진 역),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박영사, 2005.

제임스 트위첵(토탈브랜딩코리아 역), 『대학·교회 박물관의 브랜드마케팅 스토리』, 김앤김북스, 2007.

국립민속박물관 편,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07.

경기도 박물관 협의회, 『현대인을 문화놀이터-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 2007.

暮澤剛巳, 『미술관의 정치학』, 2007.

한국대학 박물관 협회,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2007.4.

(論文)

최영미, 『박물관 상점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산업미술학과 석사논문, 1989.
 정한수,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지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엄영근, 『박물관의 교육활동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원광대 건축학과 석사논문, 1996.

(資料) 최근 발굴이 진행된 경기 지역의 성곽·산성 유적

1. 포천 반월산성 유적

- 1) 소재지 :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
- 2) 조사기간 : 2001. 5. 21~ 2001. 8. 10(제6차 발굴)
- 3)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4) 내용 :
 - (1) 동문지, 대형건물지, 서쪽 건물지
 - (2) 기와 : 신라시대 주류
 - (3) 백제토기 : 4세기 중·후반(이웃 고모리산성 백제토기 3세기 전반~5세기 초)
 - (4) 신라토기 : 7~9세기

2. 이천 설성산성 유적 (제1차 발굴)

- 1) 소재지 : 이천시 장호원을 선읍리 산115-1
- 2) 조사기간 : 2001. 8. 1~ 2001. 10. 12
- 3)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4) 내용 :
 - (1) 제1, 2, 3차 문지(6세기후반~9 혹은 10세기 신라 유물)
 - (2) 가장 이른 시기 유물 : 백제토기
 문헌기록에 따르면 백제가 늦어도 4세기경에는 이천 지역까지 확장, 5세기까지 지배
 설봉산성은 4세기 후반 경 축조, 따라서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 축조 가능
 - (3)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은 신라 유물 :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설성산성 진출
 시기는 550년대

* 이천 설성산성 유적 (제2차 발굴)

- 1) 조사기간 : 2002. 6. 10~9월
- 2)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3) 내용 : 건물지와 주변 지역 : 이번 발굴된 것은 대부분 백제 유물(제1차와 상이)
 서울 구의동 유적 건물지와 비교됨(1건물 10명 내외)
 백제 수혈 건물지, 백제기와, 백제토기(4세기 후반~5세기전반)
 성벽(뒤채움에 석축부와 점토부 공존)-설봉산성, 반월산성 동일
 축조시기 4세기 후반 남방진출과 지방경영을 위한 거점, 설봉산성과 비슷한 시기
 (설봉산성·설봉산성 한성백제의 방지배 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

** 이천 설성산성 유적 (제3차 발굴)

- 1) 조사기간 : 2008. 8. 23~11월
- 2)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3) 내용 : 수혈건물지, 토광
 백제토기
 대도편, 화살촉-군사적 목적
 지금까지 백제토기가 신라토기보다 압도적, 신라토기 9세기 집중

3. 하남 이성산성 (제9차)

- 1)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 2) 조사기간 : 2001. 8. 16~8. 11
- 3) 조사기관 : 한양대 박물관
- 4) 내용 :
 - (1) 저수지일대 건물 유구: 저수지 북쪽 건물(초기~조선시대)
 - (2) 성곽 동벽 부분 구조, 동문지(수차에 걸쳐 보수): 백제시대의 가능성 제기
 - (3)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구 부존 가능성

* 하남 이성산성 (제10차)

- 1) 조사기간 : 2002. 10. 16~12. 28

- 2) 조사기관 : 한양대 박물관
- 3) 내용 : 동문지 미확인 구조, 성벽과 북쪽 회절부 구조
성벽은 두 차례에 걸쳐 축조(제2차는 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강 위한 것)

* 하남 이성산성 (제11차)

- 1) 조사기간 : 2004년 8월 12일~12월
- 2) 조사기관 :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 3) 내용 : 기존 2차성벽이라고 보았던 것은 보강을 위한 것(이미 10차에서 확인)

4. 연천 (전곡읍) 은대리성

- 1) 소재지 :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82-14번지 일대
- 2) 조사기간 : 2003년 3월 10일~5월
- 3)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4) 내용 : 한탄강과 장진강 합류 지점의 삼각형 하안단구에 축조
일단 고구려 성으로 추정, 5세기이후 축조, 신라 유물 거의 없음

5. 평택 서부 관방유적(5개소) 시굴조사

- 1) 소재지 : 평택시안중면, 청북면, 현덕면 일대
- 2) 조사기간 : 2004. 3. 12~2004. 5. 20
- 3)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4) 내용 : 삼국시대 이후 아산만 일대의 해안 방어(1998~1999 경기도박물관 지표조사)
 - (1) 무성산성 : 일부 백제토기 편, 고려시대 주류, 일부 통일신라(9세기) 토기
 - (2) 자미산성 : 백제고배와 토기 출토 토광 파괴하고 상면 신라 토기와 기와 편-신라축조
저장시설- 구조 이천 설봉산성과 유사, 신라토기, 7세기초 축조~9세기 신라 車城縣 치소 가능성
 - (3) 비파산성 : 車城명문 기와(고구려:上忽縣- 신라 경덕왕:車城縣-고려:龍城縣)
고려 龍城縣 치소 가능성(읍치의 이동?), 고려 토기
경기도박물관조사 乾德三年(송 연호, 고려광종7: 965) 명문-

안성 망이산성 준공 연호

- (4) 용성리성 :
- (5) 덕목리성 : 대부분 고려시대 기와

6. 이천 설봉산성 (제5차)

- 1) 소재지 : 이천시 관고동
- 2) 조사기간 : 2004년 10월 13일~12월 10일
- 3) 조사기관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 4) 내용 : 부엽공법 확인-백제 토목기술(풍납토성, 부여나성, 벽골제), 5세기 일본 전파
축조시기-4세기말~ 5세기초

7. 파주 덕진산성

- 1)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13번지
- 2) 조사기간 : 2004년 5월 21일~2004년 12월 16일
- 3) 조사기관 : 육사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 4) 내용 : 고구려 성(혹은 보루), 조선 광해군 이서가 수축
임진강 방어- 동쪽에 임진나루, 서쪽에 수내나루, 초평도를 통해 쉽게 도하
(임진강 북안에 덕진산성 외에 고구려성으로 당포성 · 은대리성 · 무등리보루)

8. 파주 육계토성

- 1)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 2) 조사기간 : 2005년 7월 4일~ 10월 26일
- 3)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 4) 내용 : 백제토기가 주류
기존 유물 재정리에서 고구려 유물 다수 확인- 백제 이후 고구려가 사용

9. 남한산성 행궁지 (제7차)

- 1)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 2) 조사기간 : 2005년 5월 2일~2006년 8월

3) 조사기관 : 토지박물관

4) 내용 : 제6차에서 통일신라 기와층과 초석 확인(문무왕대 주장성 기록)
통일신라 기와-村主, 林山高子, 天主 명문, 통일신라 때 중요한 곳

문화도시 수원의 세계무형유산 만들기

김 준 혁 (수원시 학예연구사)

-
- | | |
|----------------------|---------------------|
| 머리말 | 3.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특성 |
| 1.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란? | 맺음말 : 세계무형유산 추진 방안 |
| 2. 우리나라 세계무형유산 | |
-

머 리 말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정조의 8일간의 화성행차는 조선후기 문화의 총화를 보여준 우리 역사상 가장 장엄한 행사였다. 이 행차는 단순한 국왕의 행차가 아닌 위민과 개혁의 상징적 행차로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성이 담겨있는 종합문화의 보고이다.

정조가 8일간의 화성행차에서 벌인 일련의 행사들을 보면 이 행차가 단순한 회갑잔치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는 효성의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조 자신이 재위 20년간 쌓아 놓은 위업을 과시하고 신하들과 백성의 충성을 한데 모아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야심찬 기획이었다. 정조는 화성을 무대로 하여 부친 사도세자와 모친 혜경궁 홍씨, 그리고 문무관료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거창한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행사는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 거창한 프로젝트이기에 조선의 모든 문화적 역량을 총동원하였던 것이다.

8일간의 화성행차는 국왕 정조를 비롯한 국왕의 모친 혜경궁 홍씨와 여동생 청연군주·청선군주 등 국왕 일가족의 복식과 음식 등 조선 최고의 궁중문화가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영의정을 역임하였던 화성성역 총리대신 채제공을 비롯한 경기감사 서유방, 화성유수 조심태 등 문무관료들의 복식 및 행차의식 등이 세밀히 드러난 조선 최고의 행사였다.

조선시대 궁중 및 사대부들의 복식 및 음식문화를 포함한 잔치문화는 일반 서민들이 감히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왕실문화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특성과 더불어 지극히 비밀스럽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기에 오늘날까지 그 문화는 알기 어려운 신비감이 존재한다.

더불어 장엄한 궁중 회갑의식과 군사훈련은 조선시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문화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지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비밀스럽고 장엄한 문화는 내국인들에게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엄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무형유산들이 기록을 토대로 하지 않은 전승에 의한 무형유산임에 비해 8일간의 화성행차는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원행음묘정리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복식과 음식 등 모든 궁중의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기록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따라서 문화행사가 전승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수원시는 해방 이후 8일간의 행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재현을 하고 있었기에 문화적 역량도 충분하다. 무형문화재 지정의 원칙은 전승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록 8일간의 행차가 전승력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45년간의 문화재 복원에 따른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에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8일간의 화성행차는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는 우리 민족문화의 총화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1.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란?

무형 문화재는 문화적 정체성과 창조성의 증진,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의 핵심

요소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지정하는 동 사업은 정부와 각종 단체, 지역 공동체 등에 구전 및 무형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 홍보 등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형 문화재를 위한 동 제도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사업이 유형·무형의 분야에서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구전 및 무형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이러한 문화재들의 보존과 재생에 관한 즉각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국제적 의견을 수렴한다.
- 지역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
- 각 회원국에 무형 문화재 관련 목록의 작성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 문화재의 발굴, 보존, 재생에 관해 다양한 수준의 지역 창조자 및 개인·단체 기술 보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 선언은 2001년 5월에 제 1차로 시작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 심사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선정된다. 18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한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적 가치 및 전통의 뿌리, 문화적 정체성, 문화 간 교류 촉진,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역할, 기능 및 기술 응용의 탁월성, 독특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소멸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심사위원단 역시 전 세계의 유능한 학자로 선발되어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한다.

세계무형유산 사업의 주요 활동자 및 수혜자는 반드시 개인 혹은 단체의 창조자, 혹은 문화재 보호 단체여야 한다. 수혜자는 가능한 한 문화적 표현의 보존과 재창조를 위해 설립된 지역 단체나 비정부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전 및 무형 문화재에 관한 제 1차 선언은 일본정부의 재정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제 1차 선언을 통해 회원국의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영구적인 재정 지원 확보와 사무국 인적 자원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선언문 관련 사업의 지속을 위해 재정보조 체계의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회원국이 제공하는 신탁기금 및 포상금 등은 일차적으로 후보 명단 준비 보조에 사용하고, 이후 문화재 보호 계획 실천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산 외 자금은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방안의 실천에 도움이 된다. 무형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취합한 특별 자금의 조성도 가능하다.

2. 우리나라 세계무형유산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종묘제례란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의 나라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49위)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34위)를 봉안하고 있다.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거행되는 장엄한 국가제사이며,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유교사회에서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家禮)의 다섯 의례(五禮) 중 길례인 제사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으며, 예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번영시킨 왕과 왕실의 조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문무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종묘제례는 크게 정시제(定時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뉘며, 계절에 따라 햇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천신제(薦新祭)도 있었다. 정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

의 첫 달인 1월·4월·7월·10월과 납일(臘日:12월에 날을 잡아 지내는 선달제사)에 지냈으며,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냈다. 종묘제례는 해방이후 한때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1969년부터 전주리씨대동종약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종묘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과 예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제례는 매우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 취위(就位: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배치됨) → 영신(迎神:조상신을 맞이함) → 신관례(晨禋禮:왕이 제실까지 가서 향을 피워 신을 맞아들임) → 진찬(進饌:음식과 고기를 드림) → 초헌례(初獻禮: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절하며 축문을 읽음) → 아헌례(亞獻禮: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림) → 종헌례(終獻禮:마지막 술잔을 올림) → 음복례(飲福禮:제사에 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음) → 철변두(撤邊豆:제상에 놓인 고기나 과일을 거둠) → 송신(送神:조상신을 보냄) → 망료(望燎: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움) →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묘제례는 최고의 품격을 갖추고 유교절차에 따라 거행되는 왕실의례이며, 이를 통해 동양의 기본이념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실천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종묘라는 조형적인 건축공간에서 진행되는 종묘제례의 장엄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은 자연과 어우러진 동양적 종합예술의 정수이며, 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는 기악(樂)과 노래(歌)·춤(舞)을 말한다. 이는 조선 세종때 궁중희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세조 10년(1464) 제례에 필요한 악곡이 첨가되면서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으나 광해군 때 점차 복구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절차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 11곡이 서로 다른 악기로 연주된다. 정전 앞 계단 위(상월대)에서 노랫말이 없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은 등가(登歌)라 하고, 계단 아래 뜰(하월대)에서 노랫말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은 헌가(軒架)라고 부른다. 악기편성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태평과 정대업의 간결하고 힘찬 노래는 위대한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 왕의 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치와 무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용[佾舞]인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곁들여 진다. 문무는 역대 선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춤으로 보태평지악에 맞추어 왼손에는 피리종류인 약(규황죽으로 만든 구멍이 셋인 악기)을 오른손에는 깃털을 단 적(翟)을 들고,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으로 정대업지악에 맞추어 나무로 만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들었다.

종묘제례악은 편종, 편경, 방향(方響)과 같은 타악기가 주선율이 되고, 여기에 당 피리, 대금, 해금, 아쟁 등 현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부가된다. 이 위에 장구, 징, 태평소, 절고, 진고 등의 악기가 더욱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고 노래가 중첩되면서 종묘제례악은 그 어떤 음악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중후함과 화려함을 전해준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6호와 제 1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결약”으로 선정되었다.

2) 판소리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창),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구연(口演)하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의 합성어로 ‘소리’는 ‘음악’을 말하고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 또는 ‘상황과 장면’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판소리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영조 30년(1754)에 유진한이 지은 춘향가의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숙종(재위 1674~1720)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조선 전기 문헌에 보이는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戲)가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판소리가 본래 여러 가지 놀이와 함께 판놀음으

로 공연되던 것으로 판놀음이 있었던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광대 집단에 의해 시작된 판소리는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소리제를 형성하고 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東便制)라 하고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西便制)라 하며,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中古制)라 한다.

동편제의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로 짜여있는 반면 서편제는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한편 중고제는 동편제 소리에 가까우며 소박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판소리가 발생할 당시에는 한 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판소리 열두 마당이라 하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배비장타령,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옹고집타령, 무숙이타령, 강릉매화타령, 가짜신선타령 등 그 수가 많았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 소재와 소리가 점차 길어지면서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만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 마당으로 정착되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음악과 어울려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며 판소리 다섯 마당이 모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예능보유자로 춘향가에 김여란, 김연수, 김소희(본명 김순옥:金順玉), 심청가에 정권진, 흥보가에 박녹주, 강도근, 수궁가에 정광수(본명 정용훈:丁榕薰), 박초월, 적벽가에 박동진, 박봉술, 한승호(본명 한갑주:韓甲珠)가 인정되었으며 이후 춘향가에 오정숙, 심청가에 성창순, 조상현이 인정되었다. 또한 춘향가에 성우향(본명:관례), 흥보가에 박송희(본명:정자), 적벽가에 송순섭이 새로 인정되었다.

판소리 공연의 빠질 수 없는 고법(鼓法:북치는 장단기법)은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9호로 별도 지정되었으나, 1991년 판소리에 통합되었고 현재 김성권(본명 김성래:金成來), 정철호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피지배층의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판소리는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서 판소리를 통해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판소리는 다양한 전통 예술로부터 필요한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의 표현 가능성을 최대치로 발휘한 민족적인 표현방식으로 인류 보편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예술로 승화시켜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판소리는 우리 역사와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우리 문화의 정수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제 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으로 선정되었다.

3)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는 전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축제 중의 하나이다.

일제시대, 전쟁 등 수많은 사회변화를 겪으면서도 강릉단오제는 영동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여왔으며, 현재에도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의 전통승통로이자 재창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은 옛 동예의 땅이다. 기록에 의하면 예국에서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축제를 행하였는데 무천이 추수감사제라면 5월 단오제는 상대적으로 곡물의 성장 의례적 성격을 띠는 파종기 축제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강릉단오제의 역사는 매우 깊은 것으로 짐작되나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추강 남효온의 『추강집』에는 매년 3, 4, 5월중 택일하여 산신에 제사를 지내고 사흘 동안 음주 가무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에 보면 태조 왕건이 신검을 토벌할 때 당시 강릉 지역의 호족이었던 왕순식에게 태조가 말하기를 “꿈에 이상한 중이 갑옷을 입은 병사 3천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았는데 다음날 그대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도와주니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왕순식이 “제가 명주에서 출발할 때 대현에서 승사가 있어 제사를 지냈는데 대왕이 보신 꿈이 이것입니다”라고 하여 대관령 성황사의 오랜 역사를 짐작케 한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강릉 출신 허균에 의해 이루어졌다.

허균은 강릉단오제를 직접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제사를 받는 대상이 김유신 장군이라고 썼다. 김유신은 어려서 명주에 유학하여 무술을 익히고 삼국을 통일한 후 죽어서 대관령산신이 되었고 이 신이 영험하여 해마다 5월이면 대관령에 가서 신을 맞이하여 즐겁게 해 준다고 하였다.

신이 즐거우면 풍년이 들고 노하면 천재지변을 주어 명주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예부터 강릉단오제는 민중이 중심이 되어 행하되 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민관공동의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강릉단오제의 중요 제의(祭儀)에는 강릉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이 제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강릉단오제는 상하가 함께 했던 고대 제의의 축제적 모습이 온전히 살아있는 행사라 하겠다.

단오제의 행사는 음력 4월 5일 신주근양(神酒謹釀:신에게 드릴 술을 담그는 일)부터 음력 5월 7일 송신제(送神祭:신을 대관령으로 보내는 제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데 제사의 대상은 대관령산신(김유신장군으로 전해짐)과 국사성황신(國師城隍神:범일국사(梵日國師)라고 전해짐)이며 단오제를 지내지 않으면 이 지역에 큰 재앙이 미친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단오제는 음력 4월 15일 대관령산신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신목(神木)을 모시고 내려와 구산성황당(邱山城隍堂)을 거쳐 홍제동에 있는 국사여성황당에 모셨다가 행사 전날인 음력 5월 3일 저녁 영신제(迎神祭)를 지내고 위패를 남대천 백사장에 마련된 제단에 옮겨 모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서막이 올려진다. 단오장에서는 5일간 아침마다 제를 올리고 굿을 하며 풍농, 풍어 등을 기원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제를 올린다. 그 밖에 관노가면극, 그네, 씨름, 농악경연대회, 농요경창대회 등 수많은 민속놀이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가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등록되었다.

3.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특성

조선시대 최대의 행차로 평가하고 있는 8일간의 화성행차는 몇 가지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6,000여 명이나 동원되는 장엄한 행차가 그 중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성의 향교에서 공자를 참배하는 의식과 낙남헌에서 열린 과거시험은 문화민족으로서 문예존중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니 두 번째이다.

세 번째는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렸던 혜경궁 홍씨 회갑잔치를 통한 효문화 의식의 극대화이다. 국왕이 친히 어머니 회갑잔치를 열어줌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가족들을 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회갑잔치와 함께 양로연 행사를 개최한 것은 조선의 효문화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네 번째는 화성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득중정에서 활쏘기는 조선의 무예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의 향교참배를 통한 문화적 모습의 확대와 군사훈련을 통한 무예발전의 모습은 국왕 정조가 지향하는 문(文)과 무(武)의 발전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무예의 발전은 곧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위용을 세계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했던 정조의 과단성이 곧 화성에서 보여준 것이다.

1) 화성성묘전배(華城聖廟展拜)

1895년 윤2월 9일 아침 묘시(卯時:새벽 5시~7시)에 행렬은 창덕궁을 떠났다. 경기감사 서유방과 총리대신 채제공이 앞에서 선도하고, 말을 탄 115명의 악대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렬에 역동성을 주었고, 238명의 군인들이 각종 깃발을 휘날리면서 행렬 위엄을 과시했다.

영조의 계비이자 대왕대비인 정순왕후 김씨에게 인사를 드렸다. 정조는 자신의 비(효의왕후 김씨)를 궁에 남겨두고, 어머니와 두 누이인 청연군주, 청선군주만을 대동하고 수원으로 향하였다.

총리대신 채제공을 비롯하여 약 6천여 명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였다. 이들 배종자들은 각 관청과 각 군영에서 골고루 차출하였는데, 관청 중에

서는 이 행사를 주관한 정리소가 200명을 차출하였고, 그 다음에는 액정서(掖庭署)가 199명이었다. 5군영의 군사들이 4천 5백 명으로 행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정조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군사들이 3천여 명을 차지하였다.

화성에 도착한 다음날인 윤2월 11일 아침부터 행사는 시작되었다. 첫 행사는 화성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 참배하는 것이었다. 화성에서의 첫 행사를 향교참배로 정한 것은 학문을 사랑하는 정조의 유학진흥(儒學振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孔子)에서 주희(朱熹)에 이르는 21명의 중국 성현과 설총(薛聰)에서 박세채(朴世采)에 이르는 15명의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아침 일찍 정조는 대성전(大成殿)에 참배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聖賢)들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2) 특별과거시험

참배를 마친 정조는 행궁으로 돌아와 낙남헌(洛南軒)에서 문과와 무과 별시(別試)를 실시하였다. 진시(辰時:아침 7시~9시)에 시작된 문무과 별시는 화성부 및 그 인근 지역인 광주, 과천, 시흥 지역의 선비들과 무사들을 등용하여 지역 주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배려였다.

이날 시험 제목은 ‘근상천천세수부(謹上千千歲壽賦)’였다.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에서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부(賦)를 지으라는 것이다.

이날의 별시에서는 문과 5명과 무과 56명이 선발되었다. 오후에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사인 방방의(放榜儀)가 벌어졌다. 정조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합격자에게 홍패(紅牌:붉은 종이에 쓴 합격증), 사화(賜花), 사주(賜酒), 복두(幘頭:과거 급제한 사람이 홍패를 받을 때 쓰는 관), 관대(冠帶:관복과 허리띠) 등의 예물이 하사되었다. 갑과(甲科) 합격자에게는 특별히 개(蓋:우산처럼 생긴 깃발)를 주었다.

이날의 마지막 행사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예행연습이었다.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봉수당에서 있었는데, 헌선도(獻仙桃), 몽금척(夢金尺), 포구락(抛毬樂), 선유락(船遊樂) 등의 정재(呈才)를 연습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조와 대신들 이외에도 혜경궁 홍씨의 일가친척들이 초대되었다. 연습이 끝난 후 혜경궁은 춤을 춘 여령(女伶)들에게 각종 옷감을 상으로 내렸다.

3) 화성성조(華城城操)

정조의 화성행차에서 가장 웅장한 행사가 바로 군사훈련이었다. 화성을 건설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서울을 방비하는 군사적 요새지를 만드는 것이었던 만큼 화성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화성을 지키는 장용영외영의 군사는 무려 5천 명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또한 정조 자신의 친위 군대였던 만큼 화성에서의 군사훈련은 노론 신하들을 견제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의 군사훈련은 주간과 야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성(城)에서 하는 군사훈련을 성조(城操), 낮에 하는 군사훈련을 주조(晝操), 밤에 하는 훈련을 야조(夜操)라고 한다.

정조는 투구와 갑옷을 갖추어 입고 직접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西將臺)에 올라가 군사들의 조련을 지휘했다. 당시 영의정 홍낙성은 수원의 군사적 지리에 대해 극찬을 하였다.

“신이 이곳을 지나간 것이 여러 차례이지만, 이와 같은 보장(保障)의 땅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형편이 두루 갖추어지고, 규모가 굉원(宏遠)한 것을 보니, 비로소 하늘이 만든 높은 산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겠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며, 공격과 수비가 모두 편하며, 삼남(三南)의 요충지이자 기보(畿輔, 경기지방)를 보호하니 참으로 만세토록 의지할 곳입니다.”

포성과 나팔 소리가 교차하고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진동시키는 가운데 맹렬한 공격과 방어전이 전개되었다. 무기로는 낭기(浪機), 조총(鳥銃), 신포(信砲), 삼안총(三眼鏡) 등이 동원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군사는 모두 3천 7백여 명이였다.

이날 밤에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야간 군사 훈련이 실시되었다. 정조는 갑옷을 입고 서장대에 올라 군사를 지휘했다. 야간 훈련에는 횃불이 사용되었으며, 화성안의 일반 백성들도 문 위에 등을 하나씩 걸도록 하였다.

정조는 주·야간의 군사훈련이 끝난 뒤 수백 명의 장병들에게 궁시(弓矢)와 포목 등을 상으로 내려 주었다. 이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화성과 화성행궁의 보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효과를 동

시에 지닌 것이다.

4) 봉수당 진찬연

화성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윤2월 13일에 있었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이다. 이 행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의 행사가 화성의 선비와 무인들을 다독거리는 것이었다면, 이날은 왕실을 위한 행사라 할 수 있다.

회갑잔치는 진정(辰正) 3각(오전 8시 45분경)부터 행궁의 주 건물인 봉수당(奉壽堂)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혜경궁의 내외친척들도 초대되었다. 여자 친척인 내빈(內賓)이 13명이었고, 남자 친척인 외빈(外賓)이 69명이였다. 정조와 신하들은 차례로 혜경궁에게 술잔을 올리며 천세(千歲)를 불러 축하했고, 그때마다 음악과 정재(呈才)가 공연되었다. 또한 정조와 신하들은 시를 써서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축원했다.

서울과 화성부에서 선발된 33인의 여령(女伶:궁중 연희 행사에 참여하여 가무나 악기를 연주하던 여자 음악인)들이 이날 연행한 정재는, 헌선도(獻仙桃), 몽금척(夢金尺), 하황은(荷皇恩), 포구락(抛毬樂), 무고(舞鼓), 아박(牙拍), 향발(響鉢), 학무(鶴舞), 연화대(蓮花臺), 수연장(壽延長), 처용무(處容舞), 첨수무(尖袖舞), 검무(劍舞), 선유락(船遊樂) 등이였다.

잔치가 끝나자 정조는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는 시를 지었으며, 참석한 신하들에게도 시를 짓도록 하여 왕실의 안녕과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리는 시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의 의식은 실로 천년 만에 처음 있는 경사이다. 오는 갑자년에는 자궁께서 칠순이 되신다. 그때도 현릉원에 참배하고 잔치하기를 오늘처럼 할 것이다. 오늘 사용한 반탁(盤卓)과 존작(尊爵)의 도구들을 화성부에 보관해 두었다가 10년 후에 경사가 거듭 돌아옴을 기다리게 하라.”

이날은 회갑잔치인 만큼 음식이 평상시보다 많았다. 혜경궁에게는 70종의 음식

과 42개의 상화(床花:궁중잔치 때 바닥에 꽂는 꽃)가 올려 졌으며,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에게도 잔칫상이 돌려졌다.

잔치를 준비한 관리와 잔치에 출연한 여령들, 그리고 수행한 관리들에게 푸짐한 상을 내렸다. 또 화원(華員)으로 하여금 진찬도 병풍을 만들게 하였다.

5) 신평루 사미(賜米)와 양로연 행사

화성에서의 나흘째 행사는 전적으로 화성 일대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에 신평루(新豐樓)에서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오전에는 낙남헌(洛南軒)에서 양로잔치를 베풀었다.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을 맞은 기쁨을 화성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다.

정조는 어머니 회갑의 기쁨을 화성부 주민들과 함께 갖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어진 정치가 화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미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날 정조는 화성부에 사는 홀아버, 과부, 고아, 독자 539명과 가난한 사람들 4,813명에게 쌀과 소금을 나누어 주고, 죽을 쑤어 먹였다. 쌀을 나누어 줄 대상자는 미리 선발해 두었다. 쌀을 나누어 주는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성곽 내외의 도시 지역은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진행하고, 주변 지역은 승지들을 보내 산창(山倉)·사창(社倉)·해창(海倉)으로 보내 왕을 대신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화성행궁에서 음식물이 분배되는 동안 정조는 신평루에 올라가 이를 지켜보았고, 백성에게 주는 죽을 직접 맛보기도 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화성부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쌀과 소금은 네 지역으로 나누어 배급되었는데, 나이와 남녀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이때 나누어 준 쌀이 모두 368석에 달했다.

이어서 정조는 낙남헌에서 70세 이상의 관리와 80세 이상의 서민 노인 384명, 회갑을 맞은 노인 171명을 불러 성대한 양로잔치를 열었다. 정조는 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백화주(白禾紬), 황목주(皇木紬) 등의 비단과 청려장(靑藜杖: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을 상으로 내렸다.

화성부에서 선발된 노인으로서 70세 이상의 조관(朝官, 전직관료)은 8명, 61세 노인은 2명이었다. 그런데 80세 이상의 사서인(士庶人) 노인은 무려 209명이나 되

고, 99세 3명, 97세 1명 등 90세 이상 노인만도 17명이나 되었다.

양로잔치를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거의 끝낸 정조는 몇몇 신하들과 함께 성곽을 시찰하며, 성곽 건물 중에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을 방문하였다. 오후에는 득중정(得中亭)에서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였는데, 최고 득점을 올린 사람은 바로 정조였다. 정조는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무예에도 능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조선의 무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4반 무예를 완성하고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편찬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정조는 야간에도 활쏘기를 하였는데, 이때 땅에 묻은 화약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맺음말 : 세계무형유산 추진 방안

정조의 8일간의 화성행차는 세계무형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전승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토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고증에 의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원행유물정리의뢰의 기록에 맞춰 복식과 음식 그리고 행렬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18세기 후반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해야 할 사업은 먼저 학술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여 1년 정도의 장기적 용역을 추진하여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위한 시나리오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 용역은 단순히 고증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위한 세세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재청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은 바로 국제학술회의였다. 회의 초청대상은 문화재 전문가만이 아닌 국제 문화계의 원고로 각 지역 유네스코 위원장

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발표와 토론을 의뢰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8일간의 화성행차 역시 유럽 지역의 문화재 전문가 및 국제기념물유적협회 및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대표들을 초청한 국제학술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가 8일간의 화성행차를 경기도 및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등록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진전시회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국내외의 주요 기관에 배송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 조직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잠정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현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잠정목록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내부에서 10가지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진도셋김굿이다. 잠정목록의 순서에 따라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잠정목록에 등록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잠정목록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시대의 변화와 문화적 기호에 따라 잠정목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잠정목록은 2004년에 일대 변화를 추구하고 2014년에 다시 한 번 변화를 줄 예정이다.

잠정목록 등록 이전부터 수원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무형유산 추진위원회에서 대규모 캠페인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화성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음묘정리의궤는 세계기록유산, 화성의 8일간 행차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는 세계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수원의 문화적 위상 역시 세계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을 것이기에 수원은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화성 건축미 연구

박 천 우 (장안대학)

머리말	4) 치와 용도
1. 화성 성곽 구조물의 특징	5) 대
1) 성벽과 성가퀴	6) 돈
2) 문	7) 은구와 연못
3) 루	맺음말

머 리 말

조선 왕조 중흥을 이끈 정조는 자신의 원대한 개혁과 효를 실현하기 위한 터전으로 수원 신도시를 개발하고 화성 성곽을 축조하였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어드린다는 효의 명분으로 시작된 신도시 건설과 화성 축조는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화성 건설에는 당대의 정치, 문화, 경제, 과학, 기술의 모든 측면이 총동원되었고 당대 실학자들의 역량이 총집약되었다.

정조13년(1789)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하의 명당이라는 화산 아래로 옮기고 현릉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기 위한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화성 성곽과 화성행궁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완벽한 개혁과 효심의 실천 공간을 만들었다. 화성이 정조의 개혁정치의 꽃으로 불리며 효심의 정신적 본향으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화성과

현릉원, 용주사는 정조 효심의 극치이며 자신의 혈통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어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왕권강화와 개혁정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가 성곽을 화성이라 이름 지은 것은 “花는 華와 통하고 華는 德을 길러 孝에 이름이니 수원이 덕과 효를 펼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리라”라는 깊은 뜻을 언급하였다. 완성된 화성은 버들잎을 상징하고 또 川자를 본받아 뺨들러 터를 정한 이른바 유천지의(柳川之義)를 나타낸 모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으로 팔달산이 높이 솟아 진산이 되고 그 앞으로 일자로 한 안산이 있으며 그 사이로 한 내가 남북을 꿰뚫고 흐르고 있어 동쪽을 향하여 앞이 흰하게 트여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화성성곽은 1794년(정조18)부터 1796년(정조20) 9월(음력)까지 26개월간의 공사로 건설되었다. 첫 해인 1794년(갑인년)에 남쪽과 북쪽의 성벽을 축조하고 하천 정비, 중심부 가로 정비 작업을 하였다. 장안문과 팔달문, 화홍문과 남수문의 조성에 착수하였고 이듬해 을묘년 원행에 대비하여 행궁도 조성하였다. 행궁은 이미 정조13년에 상당수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는데 여기에 몇 동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 주변에 새로운 행랑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행궁과 함께 서쪽 성을 쌓기 시작하고 서장대와 방화수류정을 신축했다.

이듬해인 1795년(을묘년)에는 성의 동쪽 부분을 개척하고 만석거 조성을 비롯한 북쪽 성문 밖을 정비하였다. 이어 팔달문과 장안문의 웅성을 쌓고 좌우 적대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동쪽 성벽과 창룡문을 세우고 동장대를 지었다. 아울러 장안문밖에 만석거를 조성하였다. 화서문과 남공심돈 공사도 시작되어 이듬해 병진년에 마무리 되었다.

1796년(병진년)에는 공심돈, 포루, 각루, 웅성과 같은 각종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다. 서북공심돈 공사를 시작으로 서포루, 동북포루, 동북노대, 서암문, 봉돈이 조성되고 7월에 동북공심돈, 동포루, 동남각루 등 동쪽 부분의 시설들이 조성되고 이어 서포루, 서북각루, 서웅성, 서남포사 등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성곽 외곽의 성신사, 용도, 화양루 등이 정비되었다. 9월 10일(음력)경에 성벽 위 성가퀴를 쌓는 여장 조성 작업을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낙성연을 베풀었다.

화성의 성곽 구조물은 같은 기능과 명칭을 가진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으며 모두 달라서 건축미학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정조가 성곽 구조물에 너무 기교를 부렸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다. 1997년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화성의 건축미학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성 구조물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화성 건축미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¹⁾

1. 화성 성곽 구조물의 특징

1) 성벽과 성가퀴

화성 성곽의 총 길이는 5.7km(27,600척, 4,600보)이고, 성안의 총 면적은 39만여 평이다. 성벽의 높이는 4-6m로서 평균 5m내외이고, 높이 약 1.2m, 너비 4m의 성가퀴를 쌓았다.

성의 높이는 2장(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산 위에서는 그 5분의 1을 감하고 모두 돌로 쌓았다. 돌은 길이로 세워서 배열하여 쌓아 그 뿌리가 깊게 하였다. 다음에는 자갈을 뿌리 둘레에 쌓고 몽둥이로 바수어 굳게 다져서 돌 사이의 틈을 채웠다. 다음에는 또다시 자갈을 다져서 두께가 반 장 정도로 쌓아 올렸다. 다음에는 또 흙으로 겹쳐 쌓는데 이것이 내탁이라는 것이다. 성 두께는 아래로 대체로 5장쯤 되고 위는 줄어들어 거의 3장 정도 된다. 성의 제도는 삼가 임금께서 정하신 주략에 따랐다. 밑에서 중간 부분까지를 안으로 옥여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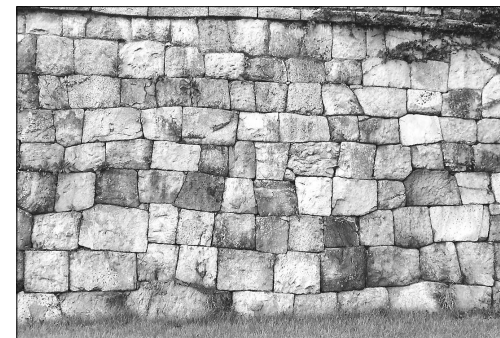
1) 화성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수원성』, 발언, 1996.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최홍규, 「조선후기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제양상」, 『국사관논총』 제30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유봉학, 「정조대 정국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 서울대 규장각, 1996.
 유봉학 · 김동욱 · 조성을, 『정조시대 화성신도시의 건설』, 백산서당, 2001.
 차용걸, 「화성의 축성사적 위치」, 『화성성역의궤』, 수원시, 1977.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건설』, 혜안, 2008.

이어 그 모양이 마치 안으로 축소시킨 것처럼 쌓고 허리에서부터 위로는 밖으로 약간 뺀 듯 하게 쌓았다. 그렇게 된 결과 성의 몸체는 저절로 홀의 모양을 이루었다.²⁾

화성의 성벽 쌓기는 매우 독특하다. 기존의 성곽들은 대부분 돌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쌓는 전통적인 6합 쌓기 방식을 썼다. 그러나 화성은 이 방식 대신 크고 작은 자연석을 완벽하게 짜맞춤하여 쌓았는데 조금의 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성벽 쌓기를 한 점은 놀랄만한 점이다. 자연석 짜맞춤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화성의 성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의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홀 규(圭)’자 형태로 쌓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적병이 쉽게 성에 기어오를 수 없어서 더욱 방어에 유리해졌고 이는 기존의 성곽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이다.

성가퀴에는 총안을 3개씩 만들었는데 좌우에 원총안을 네모나게 뚫었다. 중앙을 천장처럼 만들고 근총안 하나를 뚫었다. 여기에 미석을 물렸는데 밖으로 나온 부분이 약 1척 가량 되어 아래로 성 밑을 굽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위에 네모난 벽돌을 입히고 진흙과 회를 섞어 발랐다. 또한 성가퀴와 성가퀴의 간격을 좁게 하고 반마름모꼴로 만들어 병사들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방어와 공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자연석 짜맞춤 기법으로 만들어진 화성축성 당시의 성벽(위)과 현재의 성벽(아래). 1970년대 복원된 현재의 화성 성벽은 자연석 짜맞춤 기법으로 쌓지 못하고 6합 쌓기 방식으로 쌓아졌다.

2) 문

성곽에는 장안문,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의 네 문루가 있다. 장안문과 팔달문이 서로 규모와 구조가 비슷하고, 화서문과 창룡문이 비슷하다. 암문은 다섯이 있는데 남암문, 동암문, 북암문, 서암문, 서남암문이다. 수문은 화홍문과 남수문 둘이 있다.

(1) 4대문과 웅성

장안문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원시의 관문이며 그 웅장한 모습은 수원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규모와 구조는 팔달문과 거의 같으며 서울의 숭례문보다 더 크고

2) 화성성역의궤 권 수,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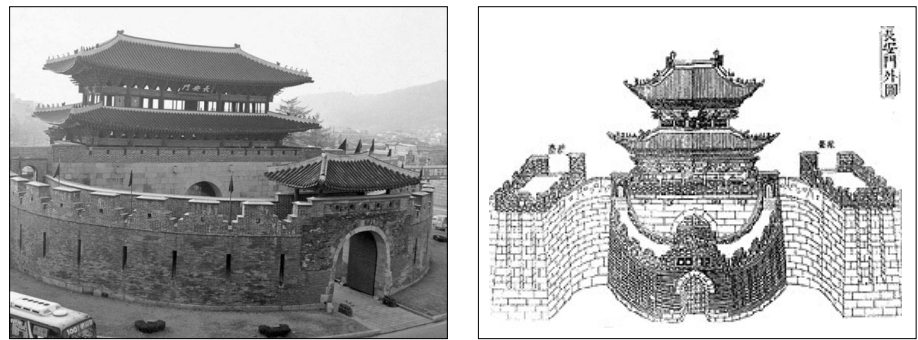
이 글의 주 참고문헌은 2005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간행한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이다. 1796년 10월 16일 화성 성역의 준공식을 가진 후 관례에 따라 그 과정을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화성성역의궤이다. 모두 10권 9책으로 되어 있으며 1796년 11월 9일 완성되었는데 화성의 공사보고서로 공사일지, 책임자, 설계도, 인건비, 물건비 등이 상세하게 망라된 기록이다. 정조가 화성유수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성을 쌓는 데 든 비용이 거의 80만에 가까운데 소중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었다. 이 책을 간행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의 공사에 관한 본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웅장하게 쌓았다.

장안문은 성의 북문으로 화성행궁의 왼쪽 780보³⁾ 되는 곳에 있다. 편액은 전 참관 조운형이 썼다. 장안문은 홍예문 위에 2층 누각이 설치된 전형적인 성문구조로 문루의 높이는 13.5m이다. 1층 바닥에는 널빤지를 깔았다. 양 옆으로 난간을 구부려 만든 곡란층계를 설치하여 위층으로 통하게 했다. 위층에도 모두 널빤지를 깔고 사면에 판문을 달았다.

장안문 정면 안팎으로 석 누조 4개를 설치하여 성문이나 문루에 고인 빗물이 흘러 빠지도록 했다. 장안문 앞에는 옹성을 벽돌로 쌓아 정문이 서로 일치하도록 문을 내었다. 옹성의 홍예문 윗부분은 돌로 쌓았는데 벽돌로 된 옹성 성벽 가운데 돌로 된 홍예의 모습이 아름답다. 옹성의 홍예문 위는 벽돌로凸형 성가퀴를 쌓았고 오성지를 두었다. 원 성과 이어지는 옹성의 끝부분에는 돌로 계단을 쌓고 작은 홍예문을 냈다.

장안문 좌우에는 북동적대와 북서적대를 두었다. 적대는 성벽 부분은 돌로 쌓아 현안을 세 개씩 뚫었고, 성가퀴는 벽돌로 쌓았다.



<그림 2> 장안문

팔달문(보물 제402호)은 성의 남문으로 행궁의 오른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500보되는 거리에 있다.⁴⁾ 팔달문의 편액은 전 참관 조운형이 썼다. 팔달문의 문루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다. 내부 중앙에 높은 기둥을 일렬로 배치하였고 상하층의 대

3) 1자(尺)는 0.303m, 1촌(寸)은 30.3cm, 1보(步)는 6척으로 환산하였다.
4) 화성성역의궤, 권 수 도설, 팔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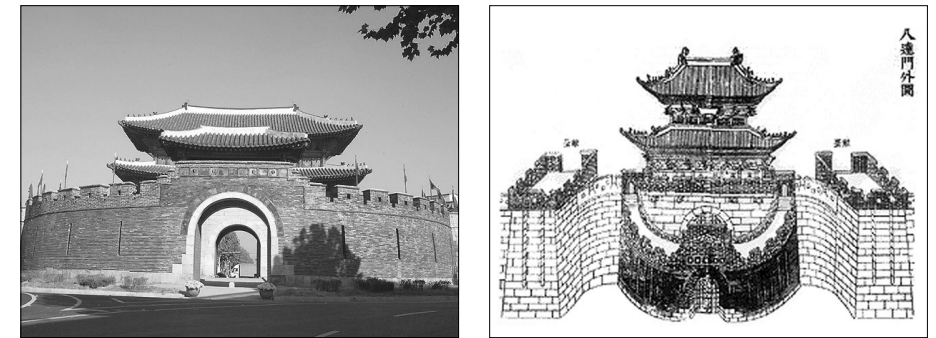
들보는 전부 이 높은 기둥에 연결되어 있다. 상층의 벽은 하층의 대들보 위에 세워져 있는 이러한 중층문루의 구성방법은 승례문이나 홍인지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성문의 높이는 약 20m정도로 우진각 지붕의 형식을 취해 웅장하고 중후한 멋을 내고 있다.

홍예문 위에는 안팎으로 누조를 4개 설치하였다.

팔달문 앞 옹성의 성벽과 홍예문은 벽돌로 쌓았고 홍예문 위에도 역시 벽돌로 성가퀴를 만들고 오성지를 두었다. 원 성과 이어지는 부분에 돌계단을 놓고 작은 홍예문을 냈다.

팔달문의 좌우에는 남동적대와 남서적대가 있다. 돌로 된 성벽에 현안을 두 개씩 뚫고 성가퀴는 벽돌로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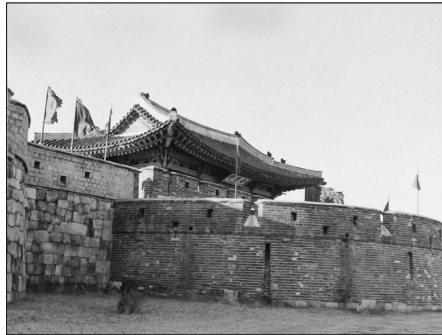
남쪽 육축 홍예 동편 화강석 면에 화성성역에 참여하였던 책임자와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림 3> 팔달문

창룡문은 성의 동문으로 서남으로 행궁과 1040보 떨어져 있다. 편액은 판부사 유언호가 썼다. 6칸의 단층누각을 세웠으며 판문은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에는 널빤지를 깔았다. 누각 바깥쪽에는 벽돌로 5첩의凸형 성가퀴를 설치하고 좌우 성가퀴 가운데에 작은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다. 안쪽에는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창룡문의 홍예문은 각기 규모가 다른 내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홍예문의 두께가 장안문보다 크다. 홍예문과 성벽은 모두 돌로 쌓았고 정문 위에 안팎으로 2개의 누조를 설치하였다.⁵⁾

창룡문의 웅성은 장안문이나 팔달문과 달리 한쪽이 열려 있는 구조이며 벽돌로 쌓아 현안을 세 개 뚫었다. 웅성의 성가퀴도 벽돌로 쌓았으며 문의 오른쪽으로 돌계단을 내 왼 성과 이어지게 했다.



<그림 4> 창룡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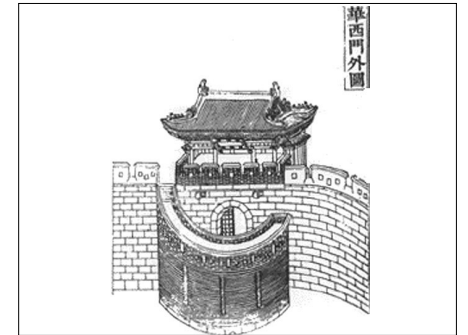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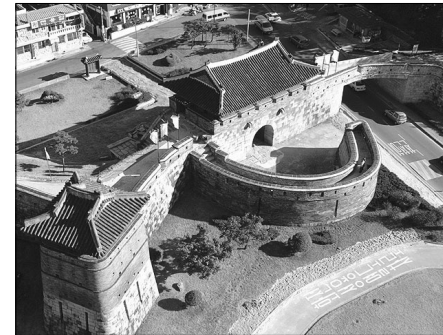
화서문(보물 제403호)은 성의 서문으로 동남으로 행궁과 460보 떨어져 있다. 홍예문 위에 6칸의 단층 누각을 세우고 기둥 사이는 모두 개방되어 있다. 바닥에는 중앙칸만 마루를 깔아 아래에서 보면 홍예문의 천장구실을 한다.⁵⁾

화서문의 홍예와 문루의 제도는 창룡문과 같으나 안쪽 계단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 즉 창룡문은 안쪽 좌우의 돌계단을 곧바로 놓았으나 화서문은 꺾어지게 해서 층을 만든 점이 다르다.

화서문의 웅성도 창룡문과 마찬가지로 한쪽을 트이고 벽돌로 쌓아 현안 세 개를 뚫었다. 화서문의 웅성 성가퀴는 안팎이 모두 평평한 성가퀴이다. 화서문 오른쪽으로 돌계단을 놓아 왼 성과 이어지게 했다.

5) 앞의 책, 권 수도설, 창룡문.

6) 앞의 책, 권 수도설, 화서문.



<그림 5> 화서문

화성의 4개의 문루는 모두 그 규모와 구조, 외관을 다르게 만들어 방어는 물론 아름다움을 살렸다. 4개의 성문 모두 돌로 쌓은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 위에 문루를 세웠는데 장안문과 팔달문은 중층이고 판문을 돌렸으며, 화서문과 창룡문은 단층이고 기둥 사이는 개방되어 있다.

성문의 앞쪽에는 반원형의 웅성을 쌓았다. 웅성은 용기를 반으로 나눈 모양으로 모두 벽돌로 쌓았다. 장안문과 팔달문은 웅성과 정문이 서로 일치하도록 홍예문을 내었는데 비해 화서문과 창룡문은 웅성의 한쪽이 열려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장안문과 팔달문의 웅성 윗부분에는 오성지라는 다섯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는 적이 성문에 불을 지를 때 물을 부어 내려 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장안문의 웅성에는 현안 16개를 뚫었으며 팔달문의 웅성에는 현안⁷⁾ 12개를 설치하였다. 장안문 웅성의 홍예문은 돌로 쌓았지만 팔달문 웅성의 홍예문은 벽돌로 쌓았다.

화서문은 안과 바깥 모두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지만 창룡문의 웅성은 바깥쪽에凸형 성가퀴 4점을 설치한 점이 다르다. 또한 화서문 웅성 성가퀴에는 바깥면에 방안 총혈 19구멍과 활쏘는 구멍 6개를 뚫었으나 창룡문에는 매 첩마다 원총안과 근총안을 3구멍씩 내고 북쪽 끝 가로 첩에는 2구멍을 내어 총 14개의 구멍을 뚫었다.

화서문 안쪽 계단은 곡란층계를 설치하였지만 창룡문 안쪽의 계단은 직란층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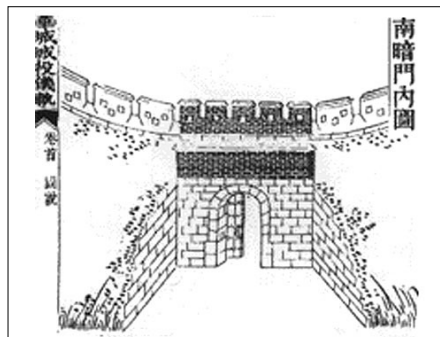
7) 현안은 성벽 벽면에 길게 뚫은 구멍이다.

설치하여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 이처럼 같은 문루라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축성하여 건축미를 살렸다.

(2) 암문

암문은 성의 사잇문으로 사잇문을 후미진 곳에 두어 적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 가축, 수레, 양식은 모두 이 문으로 통하여 성안으로 들어오게 했다.⁸⁾ 모두 다섯 개의 암문이 있다.

남암문은 팔달문 동쪽 79보 3척되는 곳에 두고 남쪽을 향하고 있다. 다른 암문의 홍예가 모두 벽돌로 만든 것에 비해 남암문은 성벽에 돌로 홍예를 설치하여 정문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비상시에는 흙으로 문을 막으면 성과 같이 되어 통로를 폐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⁹⁾ 바깥면은 성 위에 낮은 담을 쌓고 누는 세우지 않았으며 성 위의 길과 통하게 하였다. 홍예문 위는 벽돌로 5첩의 성가퀴를 쌓아 원 성의 돌로 된 성가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남암문의 안쪽 홍예문은 돌로 쌓고 홍예문 바로 위에 벽돌로 평평한 성가퀴를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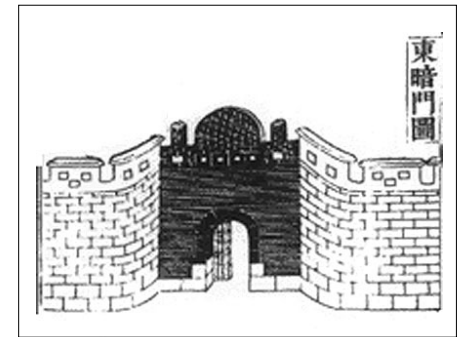


<그림 6> 남암문

동암문은 동장대 서쪽 166보 되는 곳에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안과 밖의 홍예를 벽돌로 만들어 말 1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¹⁰⁾ 밖의 문 위는 벽돌로 쌓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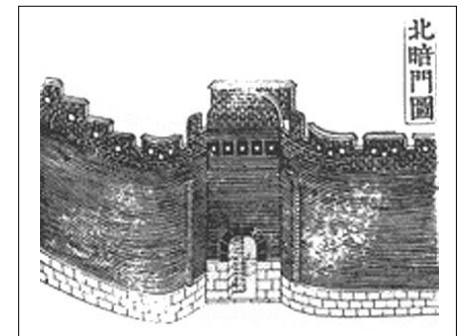
8) 화성성역의궤, 권 수 도설, 암문.
9) 앞의 책, 권 수 도설, 남암문.
10)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암문.

누는 역시 세우지 않았다. 오성지와 하나의 큰 동근 성가퀴를 설치하였고 안에는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그림 7> 동암문

북암문은 동북각루의 동쪽 40보되는 곳에 있는데 아래 세 단은 돌로 쌓고 그 윗부분은 벽돌로 쌓은 성 사이에 같은 형식으로 쌓아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문 위는 동암문과 마찬가지로 동근 성가퀴를 설치했다. 홍예 사이에 지세를 고려하여 돌 계단을 설치하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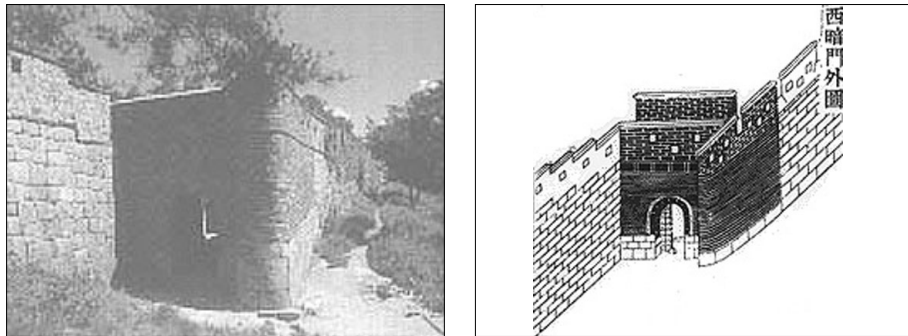


<그림 8> 북암문

서암문은 서장대의 남쪽 44보 되는 곳 즉 팔달산 남쪽 기슭 사이에 있다. 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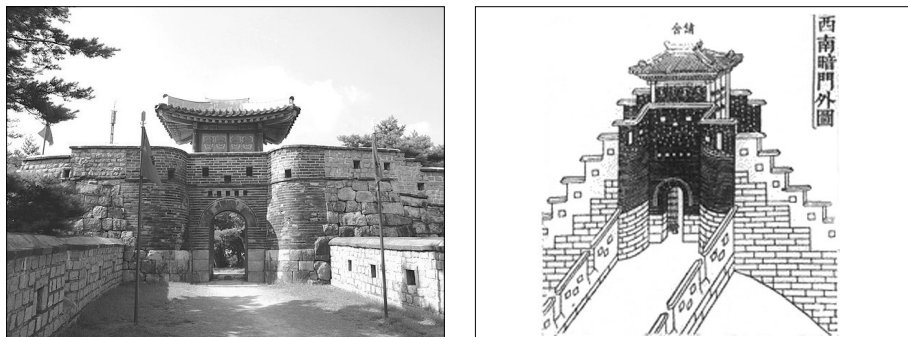
11) 앞의 책, 권 수 도설, 북암문.

꺾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 밖에서 보면 문이 보이지 않는다. 역시 벽돌로 홍예를 만들었고 안팎으로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문이 산허리에 있고 길은 성 위로 났기 때문에 문 안은 저절로 네모난 구덩이처럼 되었다. 돌층계를 북쪽에 설치하여 아래위로 드리난 길고 숨겨진 길을 통하게 하였다.¹²⁾



〈그림 9〉 서암문

서남암문은 서암문의 남쪽 367보되는 곳에 있는데 170m길이의 용도(甬道)가 설치로 시작되는 곳이고 화양루의 통로이다. 안팎 모두 벽돌로 쌓았고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으며 그 안에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포사이다. 서남포사는 암문 위에 높은 곳에 있어서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균줄을 두어서 경보를 알리기에 알맞다. 사방 1칸에 온돌을 놓고 사면에 판문을 설치하였다.¹³⁾



〈그림 10〉 서남암문

이처럼 다섯 개의 암문도 모두 모양이 다르게 만들었다. 다섯 개의 암문 중에서 북암문은 벽돌로 쌓은 성벽 사이에 있으며, 나머지는 돌로 쌓은 성벽 사이에 있다.

홍예문을 쌓는 방식도 다섯 개의 암문이 모두 다르다. 남암문은 홍예를 전부 돌로 쌓았다. 그러나 동암문은 밑의 두 단, 북암문은 네 단, 서암문은 세 단, 서남암문은 네 단을 돌로 쌓고 그 윗부분은 모두 벽돌로 쌓았다.

동암문과 북암문은 홍예 위에 오성지와 둥근 성가퀴를 설치하였고 남암문은凸형 성가퀴, 서암문과 서남암문은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서남암문은 화양루로 통하는 긴 용도가 시작되는 곳이며 서남암문만 문 위에 포사를 지었는데 문의 크기는 겨우 말 한 필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문 위는 보통 성곽처럼 되어 있어서 암문 중에서 가장 독특하다.

(3) 수문

북수문은 화홍문이며 방화수류정의 서쪽 44보 되는 곳에 있다. 편액은 유한지가 썼다. 광고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성 전체를 가로지르고 흘러 여름철마다 범람하곤 했다. 그래서 성을 쌓을 때 물길을 넓혀 7칸의 홍예로 된 돌다리를 하천 위에 걸쳐서 설치하였다. 7개의 안팎 홍예 좌우에 돌기둥 4개를 세웠다. 홍예가 이어지는 부분에 잠자리무사를 붙이고 중앙에는 장군형 무사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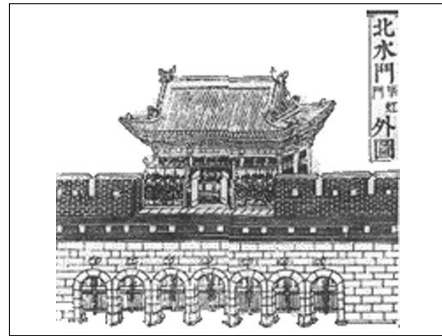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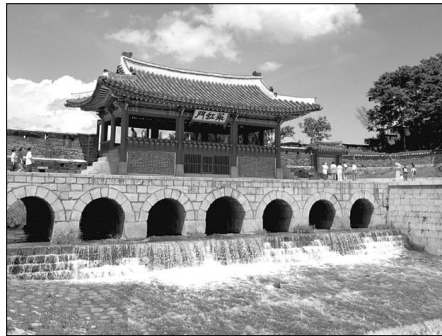
거기에 다리에 놓을 돌을 깔고 다리 위 바깥쪽에 장대석을 설치하였다. 바깥 쪽 장대 위에는 누조 7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첩을 설치했으며 타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아래에는 방안 대포구멍 8개를 뚫고 위에는 소포구멍 14개를 뚫었다. 안쪽 장대에는 누혈 8개를 뚫었다.

동서 양끝 면에는 8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무기를 새겼다. 다리 위 북쪽 편에 누각 6칸을 지었다. 모두 널빤지를 깔고 첩의 위로 높이 솟아나오게 하여 사면에 분합을 달고 동, 서, 남의 삼면에는 연잎을 새긴 난간을 붙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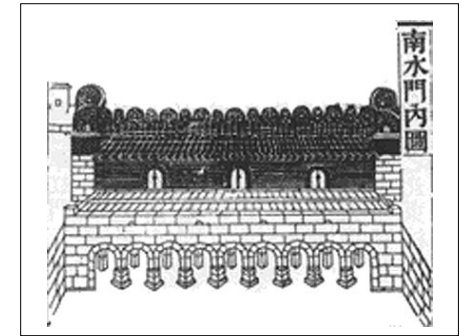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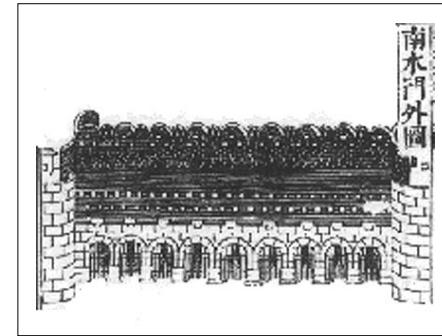
12) 앞의 책, 권수 도설, 서암문.

13) 앞의 책, 권수 도설, 서남암문.

14) 앞의 책, 권수 도설, 북수문.



<그림 11> 북수문



<그림 12> 남수문

남수문은 팔달문 북동쪽 170m지점 구천(龜川)에 있다. 하천이 화홍문에서 곧바로 750보를 흘러 구천에 이르러 수구가 되었다. 이곳에 수문을 만들어 화홍문과 마주 세워 물의 흐름을 인도하였다. 홍예는 너비가 각각 6척 3촌, 높이가 9척이다. 9개의 홍예는 좌우에 각각 사이 돌기둥 8개를 세워 돌다리를 놓았다.

장대는 높이가 1척인데 안에 누혈 5개를 설치하고 밖에는 기와 벽돌로 층계를 붙여서 장포 즉 긴 포사를 만들었다. 벽돌로 쌓아 꼭대기를 평평하게 하였다. 사방에 벽을 치고 그 가운데를 비웠는데 포의 안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밖으로 3층으로 포혈 57개를 뚫고 안쪽으로는 홍예로 된 작은 문 셋을 늘어 세웠다.

문밖의 다리 너비는 6척이고 포의 꼭대기는 벽돌을 깔아 길을 만들었다. 그 바깥쪽에 크고 둥근 벽돌 성가퀴 9첩을 설치하여 9개의 홍예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총 안 세 구멍을 뚫고 사이사이에 모난 작은 성가퀴가 8개 있다. 동서 양쪽 끝에는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해서 원 성과 이어지게 하고 또 안쪽으로 꺾어서 홍예로 된 작은 문을 설치하여 정상의 길과 통하게 하였다.¹⁵⁾

남수문은 원래 동남각루에서 내려오는 성벽과 이어져 있었으나 1900년 을축년 대 장마 때 유실되었다. 향후 화성 제 모습 바로 찾기의 일환으로 반드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북수문과 남수문은 수원천의 물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동시에 미적인 기능과 공격 방어 기능까지 갖추었다.

북수문의 홍예는 7칸이고 남수문의 홍예는 9칸인데 모두 석창살과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북수문 위의 누각 화홍문은 바로 옆에 있는 방화수류정과 연계되어 화성 성곽 구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수원팔경 중의 하나인 화홍관창이다. 또 남수문은 누각이 없지만 유사시에 긴 포사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포혈을 설치하는 등 수문 하나 하나까지 모두 각기 다른 모습과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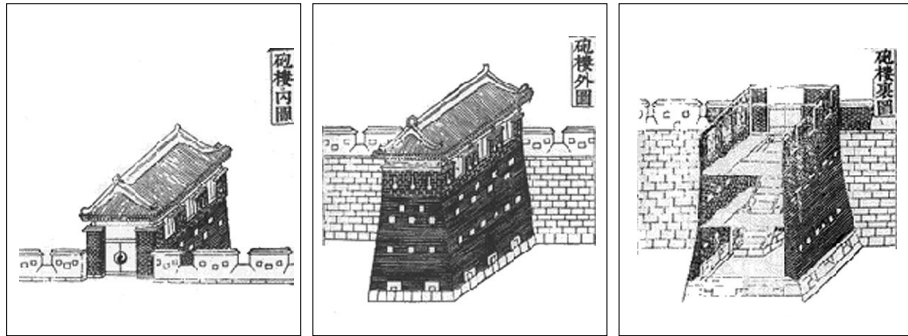
3) 루

화성 성곽에는 포루(砲樓/대포를 쏘는 시설물), 포루(舖樓/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곳), 각루(角樓/성의 모서리진 곳에 있어서 적의 움직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곳)가 설치되어 있다.

(1) 포루(砲樓)

포루(砲樓)는 남포루, 동포루, 서포루, 북동포루, 북서포루 5곳에 설치되어 있다.

15) 앞의 책, 권수 도설, 남수문.



〈그림 13〉 포루도

포루는 성곽에서 치성과 같이 돌출된 부분에 누각을 짓고 화포를 설치해 위아래에서 쏠 수 있게 만든 구조물이다. 3층으로 하여 층간에 계단을 설치하였고 가운데 부분을 비운 점이 공심돈의 구조와 비슷하다. 문지방 안의 마루 끝으로부터 사방 4척을 비워서 별도로 덮개판을 설치하여 밀고 당겨 여닫게 하였다. 여기에 나무사다리를 대어 아래쪽 공간으로 통하게 하였다.

하부 아랫단은 화강석으로 쌓고 그 위는 모두 벽돌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맨 위에 목조 건물을 세웠다. 성벽의 아랫부분까지 화포를 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외관상 단층 누각만 세운 것처럼 보인다.

바깥쪽 지대의 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포 혈석을 2개 놓고, 좌우 면에도 3개의 혈석을 놓았다. 벽돌로 쌓은 부분에는 삼면에 총혈 15개, 총안 15개를 뚫었다. 외면의 총안에는 또 전안 넷을 뚫었다. 좌우면에는 위쪽 가까이 벽돌을 뚫고 작은 판문 셋을 설치하였다. 안면에는 성탁에 의지하여 전부를 돌로 쌓고 그 위에 판문을 설치하였다.¹⁶⁾

북동포루(北東砲樓)는 화홍문 서쪽 124보 3척 되는 거리에 있으며 장안문과 화홍문의 중간 지점에 있다. 돌출된 치성 길이는 약 9.3m이다. 벽돌로 5량 집을 지었는데 정면 1칸, 측면 3칸의 3층 건물이며 성 바깥은 우진각 지붕, 안쪽은 맞배지붕이다.

16) 앞의 책, 권수 도설, 포루.

북서포루(北西砲樓)는 화성의 서북쪽에 있으며 북서적대의 서쪽 156보 거리에 있다. 북동포루와 형태와 크기가 동일하다.

서포루(西砲樓)는 서북각루의 남쪽 197보 거리(서장대의 북쪽 약 200m)에 있으며 대체로 다른 포루와 비슷하나 3량 집을 지었고 내부 계단을 벽돌로 쌓은 점이 다르다.

동포루는 봉돈의 북쪽 229보 거리에 있으며 5량 집으로 지었다.

남포루는 서남암문의 동쪽 101보 거리에 있으며 팔달산 중턱에 있다.¹⁷⁾



〈그림 14〉 북동포루



〈그림 15〉 북서포루



〈그림 16〉 서포루



〈그림 17〉 동포루

다섯 개의 포루도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북동포루와 서포루는 포루의 모서리

17) 앞의 책, 권수 도설, 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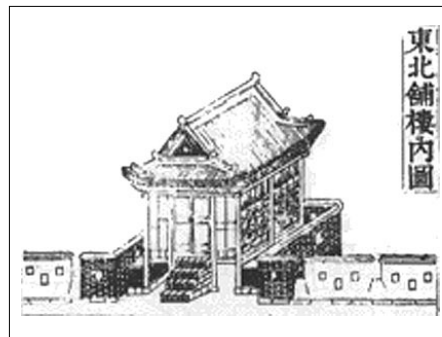
부분이 완만하지만 북서포루와 동포루는 각이 뚜렷하여 구분하기 쉽다.

지붕도 성의 안쪽에서 보았을 때 북동포루와 북서포루는 안쪽은 맞배지붕, 바깥쪽은 우진각 지붕이지만 서포루와 동포루는 안과 밖 모두 우진각지붕이다. 현재 남포루는 화성성역의궤에 자세한 도면이 없고 복원되지 않아서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

(2) 포루(舖樓)

포루(舖樓)는 서포루, 동북포루, 동일포루, 동이포루, 북포루 5곳이다. 포루는 치성에 있는 군사들을 가려 보호하기 위하여 치성 위에 설치한 누각이다. 누각은 2층으로 아래층에는 총혈, 포혈을 내고 위층에도 총혈을 냈다. 석체는 석축으로 쌓고 성가퀴는 벽돌로 쌓았으며 성 안쪽으로 계단을 설치하였다.

동북포루(東北舖樓)는 각건대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지세가 갑자기 높아져서 방화수류정이 위치한 용두를 눌러 굽어보고 있다. 성곽 밖으로 5.6m 돌출되어 있으며 현안 하나를 뚫고 5량으로 집을 짓고 판자를 깔아 누를 만들었다. 아래 위에 방안 19개, 누혈 11개를 뚫었고 누의 위 사면에는 판문을 설치하고 외면과 좌우에는 사안(斜眼/사혈, 충안)을 내어 놓았다. 내면에는 벽돌 층계를 설치하여 오르내리게 하였다.¹⁸⁾



〈그림 18〉 동북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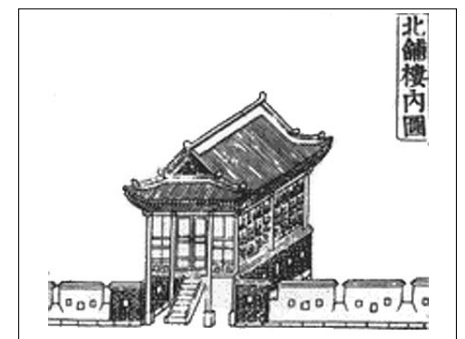
18)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북포루.

서포루(西舖樓)는 서암문 남쪽 126보 거리(서장대에서 남쪽 202m거리)에 있으며 동북포루와 비슷하나 치성이 성 밖으로 6.91m 나와 있어서 동북포루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 내면에 나무사다리를 이용한 점도 다르다.¹⁹⁾



〈그림 19〉 서포루

북포루(北舖樓)는 북서포루 서쪽 129보 5척의 거리(화서문 동북쪽 150m지점)에 있다. 차성이 성밖으로 5.76m 돌출되었으며 내면에 나무 사다리를 설치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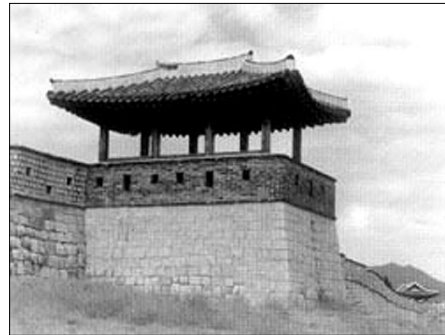
〈그림 20〉 북포루

동일포루(東一舖樓)는 창룡문 남쪽 180보 2척(214m) 거리에 있다. 치성은 성밖으로 7.13m나와 있고 현안 하나를 내고 위에 3칸의 긴 포를 지었다. 동쪽 2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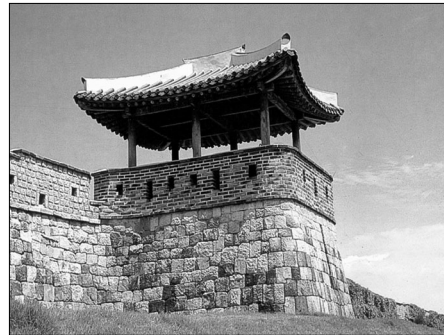
19) 앞의 책, 권 수 도설, 서포루.

20) 앞의 책, 권 수 도설, 북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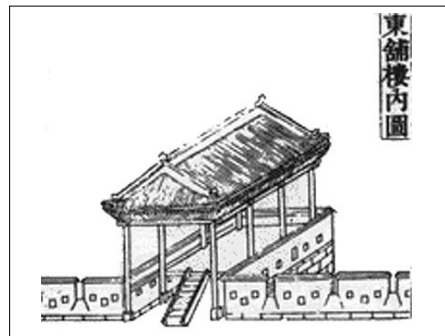
판자를 갈아 누를 짓고 문과 벽은 설치하지 않은 점이 다른 포루와 다른 점이다. 면 1칸은 완만한 나무 사다리를 설치하고 3면에 바로 붙여 성가퀴를 돌렸는데 포루 위로 솟게 하였다. 누 밑에는 각각 원충안과 근충안을 내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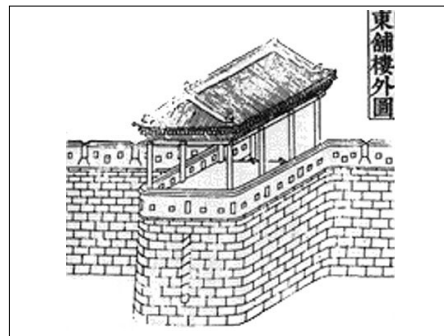
<그림 21> 동일포루



<그림 22> 동이포루



<그림 23> 동포루 내외도



동이포루(東二舖樓)는 봉돈 남쪽 105보(125m)거리에 있으며 치성이 6.06m 나와 있다. 현안 1개를 내고 뒤에 2칸의 긴 포를 지었다. 1칸에는 판자를 깔았고 1칸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였다.²²⁾

5개의 포루도 그 모양이 모두 다르다. 동북포루는 아래 5단은 돌로 쌓고 나머지 윗부분은 벽돌로 쌓았다. 북포루는 모두 돌로 쌓고 성가퀴 부분은 벽돌로 쌓아 원

21) 앞의 책, 권수 도설, 동일포루.

22) 앞의 책, 권수 도설, 동이포루.

성의 성가퀴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포루는 성벽이나 성가퀴 모두 돌로 쌓았는데 동일포루의 성벽 모서리는 직각이고 동이포루의 성벽모서리는 완만하다. 동일포루가 가장 성곽 밖으로 많이 돌출되었다.

다른 포루는 문과 벽을 설치하였지만 동포루는 문과 벽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다르다. 동북포루의 계단만 벽돌이고 나머지는 모두 나무계단을 설치하였다. 서포루는 성벽은 돌로 쌓았고 성가퀴는 벽돌로 쌓았으며 성벽의 꺾이는 부분이 완만하다. 이처럼 같은 포루라도 각기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 건축미를 살렸다.

또한 포를 쓰는 포루(砲樓)는 바깥에서 보았을 때 누의 지붕과 성벽의 성가퀴가 바짝 붙어 있어 공격의 기능을 강화했고, 군사들을 보호하는 포루(舖樓)는 누의 벽면이 많이 보여 외관상으로 이 모습을 보고도 두 포루를 구분할 수 있다.

(3) 포사(舖舍)

건물이 치 위에 있으면 포루가 되고 성안에 있으면 포사가 된다. 성의 밖에서 길가에 잠복한 자가 경보를 하면 성의 각 해당 방면에서 포를 쏘아서 보고를 해야 하고 포사에 있는 군사 또한 기(旗)나 포로 보고해야 한다.²³⁾ 화성에는 서남포사, 중포사, 내포사가 있었으나 서남포사만 남아 있고 중포사와 내포사는 복원되지 않았다.

서남포사는 서남암문 안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다. 암문 위에 있어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경보를 알리기에 유리하다. 온돌 1칸을 놓고 사면에 판문을 설치하였다.

중포사는 각건대 아래 320보 거리에 있었다. 매향동 첫째 등성이 중 우뚝하게 높은 곳에 2칸의 2층집을 지었는데 아래에는 온돌이 1칸이고 남쪽 1칸은 비게 하여 나무사다리를 놓아 위층과 통하게 하였다. 위의 2칸은 모두 판자를 깔고 판문으로 둘러쳤다.

내포사는 행궁의 뒷담 안 왼쪽 기슭 미로한정의 북쪽 50보 쯤 거리에 있다. 다만 온돌 1칸만 놓았는데 앞쪽을 반 칸 뒤로 물리어 벽돌을 깔았다.²⁴⁾

같은 포사이지만 서남포사, 중포사, 내포사의 외관은 완전히 다르다. 서남포사는

23) 앞의 책, 권수 도설, 포사.

24) 앞의 책, 권수 도설, 내포사.

서남암문의 위에 높이 우뚝 솟아 있어 경보를 알리기에 적당하다. 중포사는 2층 집인데 1층은 벽돌로 지었으며 2층은 모두 판문을 들렀다. 그러나 내포사는 온돌을 1칸 놓고 그 중 반 칸은 뒤로 물리어 벽돌을 깔아 공간을 틈은 점이 다르다.

(4) 각루(角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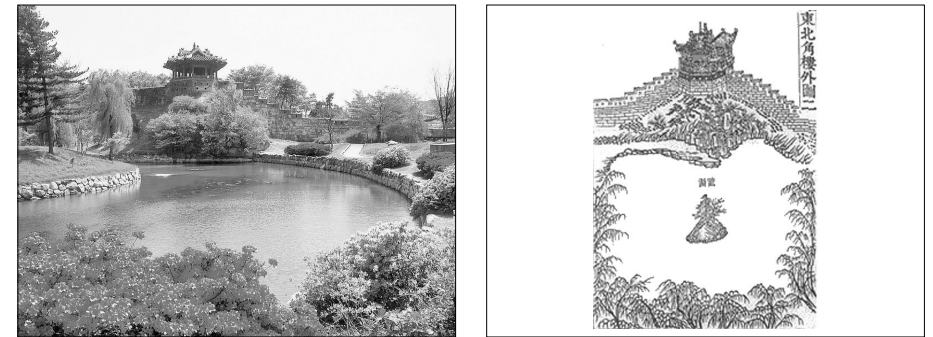
각루는 정찰, 군량 운반 통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원거리 전망이 좋은 성곽의 모퉁이 요소에 자리하고 있다. 서남각루(화양루), 동북각루(방화수류정), 서북각루, 동남각루 등 4개의 각루가 있다.

동북각루(방화수류정)는 동북 모퉁이의 요해처로 용연 위 용머리에 있다. 절벽을 따라 성을 쌓고 바위에 누를 세우고 높이 쌓아 올린 기단부 위에 총구멍을 내었으며 암문까지 설치하였다. 동서로 3칸인데 가운데는 온돌을 놓았고 북쪽으로는 한 칸을 붙이고 남쪽은 반 칸을 물리었으며 서쪽의 한 칸은 또 길게 두 칸을 늘렸다. 지붕 용마루의 네모진 서까래가 들쭉날쭉하다.²⁵⁾

동북각루는 건축미가 화려하고 우아하여 화성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는 곳이다. 방화수류정에서 바라보는 용연에 비친 달빛과 어우러진 버들가지는 용지대월이라 하여 수원팔경 가운데 하나다. 방화수류정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시공하였고 화홍문의 문루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하였다.

방화수류정은 목조건물에 벽돌과 나무를 적절히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건축미를 보여준다. 특히 서쪽 벽면의 아래쪽은 열십자 모양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방화수류정의 지붕도 역시 십자형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양의 도로가 T자형인데 비해 화성의 내부 도로는 십자형 도로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십자형 문양은 당시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던 亞자형, 십장생 그림과는 파격적인 문양이다. 아마도 십자형문양은 실학사상가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주교에 대하여 지극히 우호적이었고 천주교와 함께 전래된 서양의 자연과학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을 상징하는 서쪽 벽면에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새겨 넣었을 것이다. 다만 유교 외는 사문난적으로 물리

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²⁶⁾



〈그림 24〉 방화수류정과 용연

방화수류정 아래에 반달 모양의 용연이 있다. 둘레가 210보, 깊이 6척이고 가운데 작은 섬이 있다. 방화수류정 아래 바위는 옛날부터 용두라 하였다. 용두에서부터 창룡문으로 이어지는 긴 성벽이 용의 몸이고 창룡문이 용 꼬리에 해당한다. 못의 서쪽에 돌로 이무기 머리를 만들어 설치하였는데 물이 많이 차면 이 이두로 물을 화홍문 밖으로 뿜어 내게 되어 있다.

정조는 용릉의 지세가 화심형인데도 불구하고 반룡농주형이라고 고집하고 곳곳에 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용릉 서쪽에 천원지방²⁷⁾의 원칙을 깨고 여의주의 모양을 본따 원형의 연못을 설치하였으며 용연도 원형의 연못으로 만들었다. 용릉의 문인석에 봉황을 새겨 넣고 용릉의 능찰도 용주사로 개명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서남각루는 화양루라고 하는데 팔달산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용도의 남쪽으로 멀리 떨어지고 높고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우뚝 서 있다. 누의 규모는 6칸인데 남

26) 박천우, 수원의 역사와 문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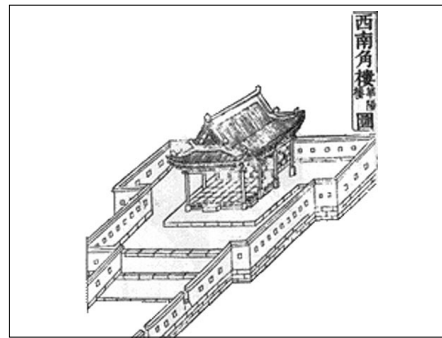
27)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 세상, 2002.

천원지방은 우주 만물의 존재와 운행의 원리를 함축적으로 두루내는 말이다. 조선중기의 성리학자 정지운이 그린 천명구도와 이황이 그린 천명신도에서 천원지방의 원리를 묘사하고 있다.

25)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북각루.

쪽 2칸은 판자를 깔고 난간을 둘러치고, 3면에 판문과 북쪽에는 분합을 내고 분합의 밖으로는 4칸에 벽돌을 깔았다.

서남각루는 남쪽 기슭으로 끌려 나와 사방을 굽어 볼 수 있는 지형이다. 만약 이곳을 지키지 못하고 적군이 선점한다면 성의 허실을 모두 적에게 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본 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러므로 산 위의 3면에 돌로 성기귀를 쌓았고 북쪽으로 서남암문의 바깥쪽과 이어지게 하였다. 중간 지점에 동서로 치성을 하나씩 설치하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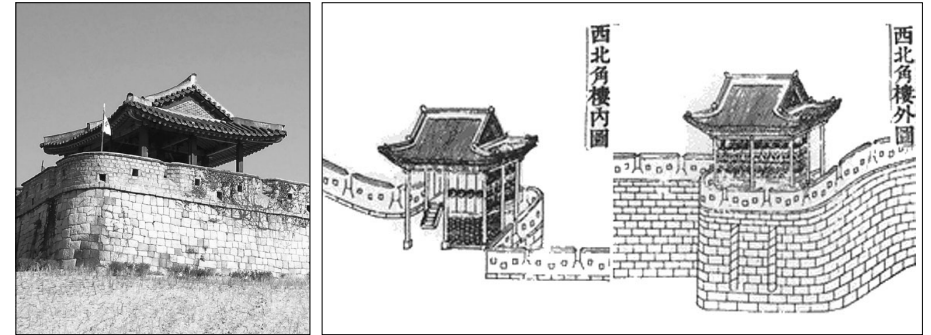


〈그림 25〉 서남각루(화양루)

서북각루는 화서문 서남쪽 146보 거리에 있으며 산 위 휘어 굽은 곳에 있다. 5량 4칸으로 동북 3칸은 모두 판자를 깔았으며 4면을 평난간으로 둘러쌌다. 위에는 판문을 설치하였고 외면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전안을 뚫어 놓았다. 내면에는 태극을 그리고 서남 1칸은 비워서 층계를 설치하여 북쪽으로 누 상에 이어지게 하였다. 동남 1칸은 청판 아래를 벽돌로 담을 둘러치고 온돌을 설치하여 수직하는 군사가 있게 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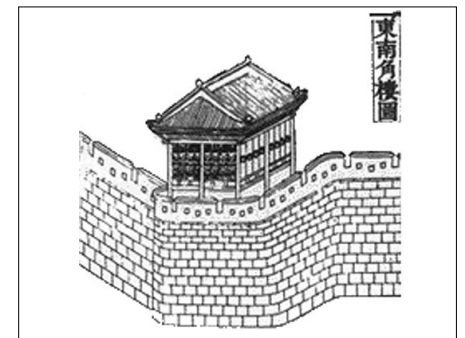
28) 앞의 책, 권 수 도설, 서남각루.

29) 앞의 책, 권 수 도설, 서북각루.



〈그림 26〉 서북각루

동남각루는 화성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성이 산세 때문에 이곳에 이르러 가파르게 끊어져 누가 성 위로 나와 멀리 남쪽 평야를 바라볼 수 있다. 규모는 5량 4칸으로 서북각루와 크기와 규모가 같다. 다만 4칸 모두 판자를 깔고 동쪽 처마 아래에 층계를 설치하였다. 서남 한 칸은 청판 아래에 온돌을 설치하여 수직하는 군사가 있도록 하였다.³⁰⁾



〈그림 27〉 동남각루

각루도 각기 모두 그 모양이 다르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것은 동북각루이고, 서남각루는 긴 용도를 가진 점이 특색이며 방어상으로 매우 중

30)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남각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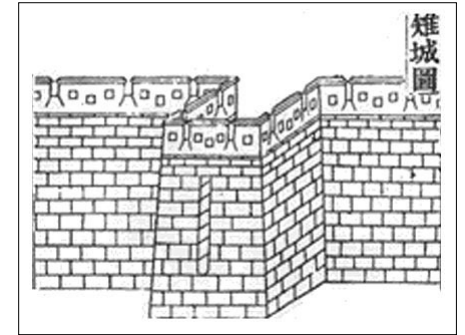
요한 위치에 있다. 서북각루와 동남각루는 누의 규모나 크기는 비슷하지만 서북각루는 바깥에서 모았을 때 두 개의 긴 누혈이 설치되어 있고 동남각루는 누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서북각루는 서남쪽 1간에 벽체가 설치되지 않고 층계를 설치하였고 동남각루는 모두 벽체가 설치되어 있다.

4) 치와 용도

(1)치

화성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치 구조물이다. ‘치’는 썩 치(雉)에서 나왔는데 썩은 제 몸을 숨기고 밖을 엿보기를 잘하는 까닭에 이 뜻을 따서 붙였다.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紀效新書)』에는 50개의 성가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매 단위마다 하나의 치를 놓고 그것을 성벽에서 2-3장 밖으로 튀어 나가게 설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치와 치 사이에는 50개의 성가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좌우로 돌아보며 활을 쏘기에 편리해서 적이 성 밑에 달라붙을 수 없게 된다.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비롯하여 성곽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본 유성룡은 치성이 없다면 이는 성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병서를 인용하여 언급학 읍성에 치성에 둘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징비록(徵毖錄)』에서 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일에 먼 계책을 생각하는 자가 있거든 사람이 신통찮다 해서 그 말까지 무시해 버리지 말고 이 치성 제도대로 성을 축조한다면 비어하는데 유익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화성을 축성할 때 곳곳에 치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림 28〉 치성

치는 성곽의 요소요소에 성벽으로부터 돌출시켜 전방과 좌우방향에서 접근하는 적과 성벽에 붙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凸모양으로 만들었다. 치의 높이는 성과 같이 하고 돌출된 3면에 성가퀴를 돌렸다. 긴 쪽의 너비가 대체로 3장 쯤 되며 보통 원총안과 근총안을 각 면에 내고 성벽 정면에 현안 1개를 내었다. 그 둘레의 길고 짧음은 지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순수한 치성은 위에 집을 얹지 않고 성가퀴만 있는 것인데 화성 전체에 모두 8개소이다. 그러나 치성 위에 집을 지은 것을 포(舖), 대포를 장치한 곳을 포(砲)라고 한다. 각각 5곳이다. 가운데를 비우고 벽을 친 곳을 돈이라고 하는데 돈이 2곳이다. 위에 노수를 매복시키는 곳을 노대라고 한다. 성벽이 휘어 돌아가는 모퉁이의 돌출부에 세운 누각이 각루이고 성문의 좌우에서 성문을 수호하기 위한 것을 적대라고 한다.

북동치는 북동적대의 동쪽에 있는데 적대와 서로 이어져 있다. 3면이 성가퀴이고 5개의 첩으로 나누어 지었으며 각각 방안 구멍 3개를 뚫었다.

서일치는 화서문 남쪽 216보 거리에 있는 데 타구의 위를 벽돌로 덮었다. 서이치는 서포루(西舖樓) 남쪽 104보 거리에 있다.

서삼치는 서포루(西舖樓) 남쪽 140보 거리에 있는데 성가퀴 양쪽 끝이 원성 안으로 3척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구부러 접어서 그 가운데를 띄어 놓았다.

남치는 남포루(南舖樓) 동쪽 90보되는 거리에 있으며 서삼치와 성가퀴가 같다.

동삼치는 동이포루(舖樓)의 남쪽 123보되는 거리에 있다.

동이치는 동포루(東砲樓)의 남쪽 110보되는 거리에 있다.

동일치는 동1포루(舖樓)의 남쪽 125보되는 거리에 있다.³¹⁾

이처럼 8개의 치성도 그 모양이 모두 제각기 다르다. 동일치는 전체적으로 직각이고, 동이치는 완만하며, 동삼치는 입구는 완만하고 안쪽은 직각이다.

(2) 용도

용도는 원래 군량 운반을 위한 통로로 적에게는 감추어진 길인데 서남각루에 이르는 곳에 용도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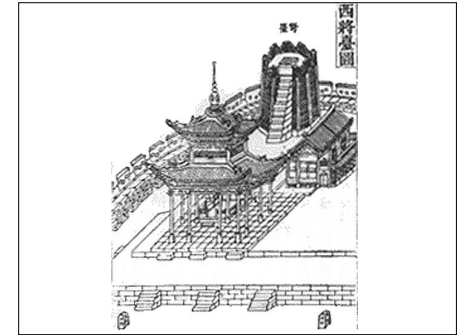
5) 대

(1) 장대(將臺)

장대는 지휘관이 머무르는 군사지휘본부로 동장대와 서장대 두 곳이 있다. 서장대는 팔달산의 산마루에 있어서 팔방으로 모두 통한다. 이곳에서는 성 전역을 굽어 살필 수 있고 사방 100여 리가 한 눈에 보이는 위치이다.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위에 층각을 세웠다. 앞쪽의 대석은 4층인데 전체 높이는 5척이다. 댓돌은 3개이며 층계는 4개이다. 아래 층각의 규모는 9칸인데 밑에는 판자를 깔고 연잎 평난간으로 둘러쌌으며 뒤쪽에는 분합을 드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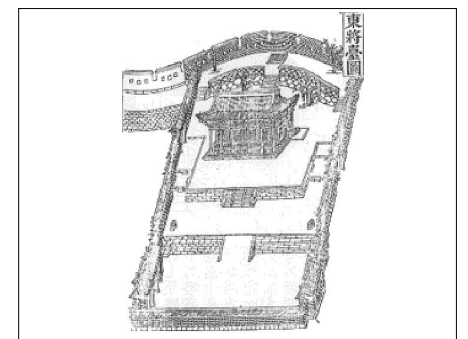
편액은 화성장대로 정조의 글씨이다. 위층은 한 칸으로 사면에 교창을 내고 판자를 깔아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아래층의 반자가 되었다. 서북쪽 모퉁이에 층계를 만들어 위층으로 통하게 하였다.³²⁾

서장대 뒤쪽에는 팔면으로 된 노대를 쌓았고 북쪽에 군무를 보던 후당 3칸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림 29〉 화성장대(서장대)

동장대는 성의 동북사이에 있으며 시야가 트여 있고 남북으로 퍼처럼 동성을 둘러쌌다. 군사들의 훈련장을 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연병장의 지휘본부이다. 대는 3층으로 쌓았다. 높은 곳에 온돌 1칸을 설치하고 좌우 1칸은 낮게 하여 판자를 깔고 각각 2층으로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또 그 좌우 1칸을 낮게 하여 판을 깔고 창과 분합을 둘러쌌다. 대의 앞쪽은 잡석을 쌓고 이어서 짧은 담을 둘러쳤다. 대의 뒤쪽은 기와를 이용하여 영룡장을 쌓았다. 대의 오른쪽 작은 문 바깥에 다섯 칸짜리 긴 행랑을 지어 장졸이 입직하게 하였다. 건물 밖에는 조련장을 만들어 군사들이 훈련할 수 있게 하였다.³³⁾



〈그림 30〉 연무대(동장대)

31) 앞의 책, 권 수 도설, 치.

32) 앞의 책, 권 수 도설, 서장대.

33)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장대.

(2) 노대(弩臺)

무비지(武備志)³⁴⁾에 의하면 노대는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야 하며 대 위에 집을 짓되 모양이 전봉과 같이 하고 안에 노수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노대와 동북노대는 집을 짓지 않았다. 노대는 적의 내습을 항상 감시해서 대와 성 전체에 오방색(청, 황, 흑, 백, 적)의 깃발로 적의 출현 방향을 알리고 적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쇠뇌(석궁)를 쏠 수 있게 만든 곳이다.

서노대는 서장대의 뒤에 있으며 대를 8면으로 하고 깎아지른 듯이 우뚝 서 있게 지었다. 높이는 3.84m이다. 지대 위에 기와 벽돌로 성벽을 쌓고 돌을 깎아 모서리를 만들었다. 위에는 장대를 얹고凸모양의 성가퀴를 7면에 설치하였다. 성가퀴의 높이는 1.41m이며 총안을 냈다. 정 동향의 한쪽 면을 띄어 아홉 층계의 돌계단을 설치하였다. 대 위 바닥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고 한 가운데 또다시 방대를 쌓았다. 서노대에서는 적이 출현한 방향에 따라 오방색의 깃발을 올렸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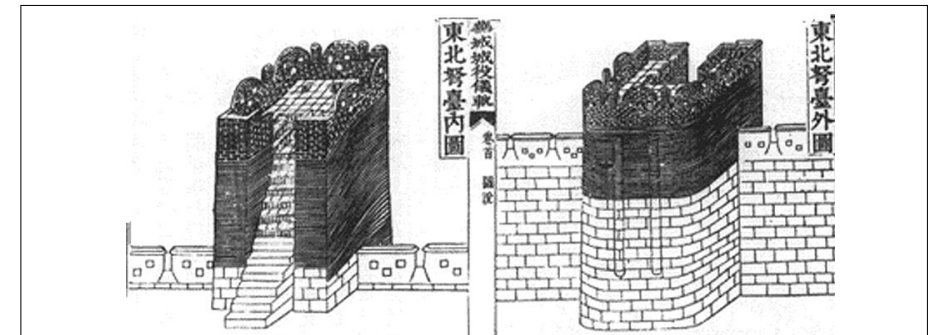
〈표 1〉 오방색으로 방향표시

청룡기	창룡문(동)	동방청
백호기	화서문(서)	서방백
주작기	팔달문(남)	남방적
현무기	장안문(북)	북방현
황룡기	신흥루(중앙)	중방황



〈그림 31〉 서노대

동북노대는 창룡문 북쪽 96보(114m)거리에 있다. 동북노대는 팔달산의 서장대, 서노대와 일직선으로 마주 보이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바깥에서 보면 치 위에 대를 만들었는데 아래에서 2/3지점까지는 돌로 쌓고 위 1/3은 벽돌을 쌓았다. 안에서 보면 거의 모두 벽돌로 쌓았다. 벽돌을 쌓는 방식은 사각형이지만 모서리를 깎아 별의 허리처럼 만들어서 모를 죽였다.



〈그림 32〉 동북노대

위에는 둥근 성가퀴를 만들었다. 3면에 한 타씩이고 바깥쪽 모퉁이에는 둥근 타구를 굽어 접히게 만들었다. 모두 방안 구멍 3개를 뚫었으며 타구마다 좌우에凸모양의 성가퀴를 끼고 있다. 안쪽 두 모퉁이는 평여장으로 굽게 접었는데 가운데 벽

34) 무비지는 명의 모원의가 지은 책으로 총 240권 80책이다. 1621년 경 간행되었다. 외침을 걱정하여 군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목적으로 지었다.

35) 앞의 책, 권 수 도설, 서노대.

돌계단을 놓아 아래 돌계단과 이어지게 하였다. 대 위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았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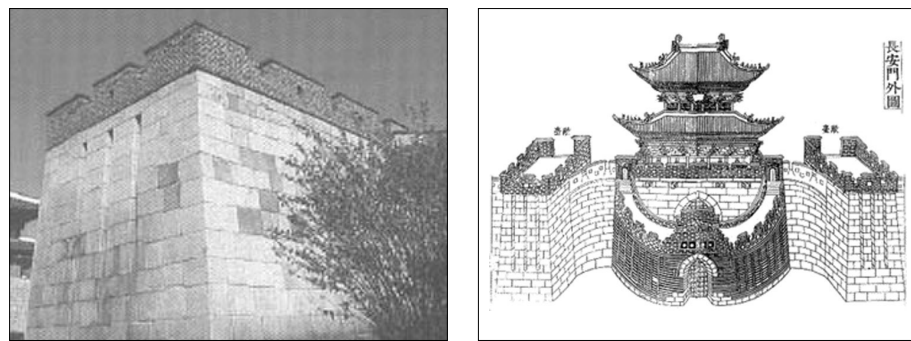
이처럼 두 노대의 역할은 같지만 생긴 모양새는 확연히 다르다. 공격과 방어를 위한 구조물이면서도 건축미를 살린 점이 화성의 우수한 점이다.

(3) 적대(敵臺)

적대란 성문의 좌우에 80여 m의 간격을 두고 성곽보다 높은 대를 마련하여 창이나 활, 총포들을 비치해두고 적군의 동태와 접근을 감시하는 곳으로 장안문과 팔달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 장안문 좌우에 북동적대와 북서적대가 있고, 팔달문 좌우의 남동적대와 남서적대는 사라져 복원되지 않았다.

북서적대는 장안문 북서쪽에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높이가 6.7m이다. 성가퀴와 가지런히 쌓여 반은 성 밖으로 나가 있고 반은 안으로 들어와 있다. 전면에 현안 3개를 내었다. 바깥쪽에서 보면 아래 부분이 더 넓고 위로는 줄어들었다. 바깥쪽 3면에는凸모양의 성가퀴를 돌렸으며 성첩 11개를 쌓은 다음 총안을 뚫었다. 안쪽은 좌우 편평한 성가퀴에 각각 1척씩인데 가운데는 속이 비게 하고 돌계단을 설치하여 대 위와 통하게 하였다.³⁷⁾

북동적대는 장안문에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너 있으며 북서적대와 높いや 모양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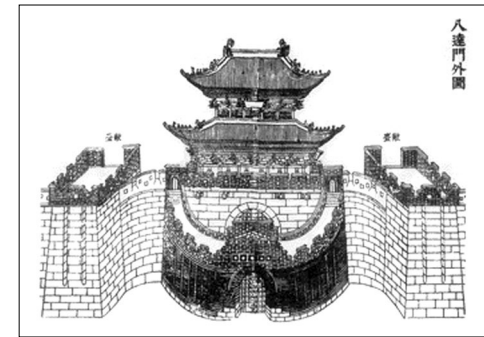


〈그림 33〉 장안문의 북동적대 북서적대

36)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북노대.

37) 앞의 책, 권 수 도설, 장안문.

팔달문 좌우에 있던 남동적대와 남서적대는 현안을 2개 뚫은 점이 다르다. 나머지는 장안문의 적대와 같으나 현재 이 일대가 시가지화되어 사라지고 없다.



〈그림 34〉 팔달문 좌우의 남동적대 남서적대

장안문과 팔달문 좌우 적대의 차이점은 장안문의 적대에는 현안이 3개 뚫려 있고, 팔달문의 적대에는 현안이 2개 뚫린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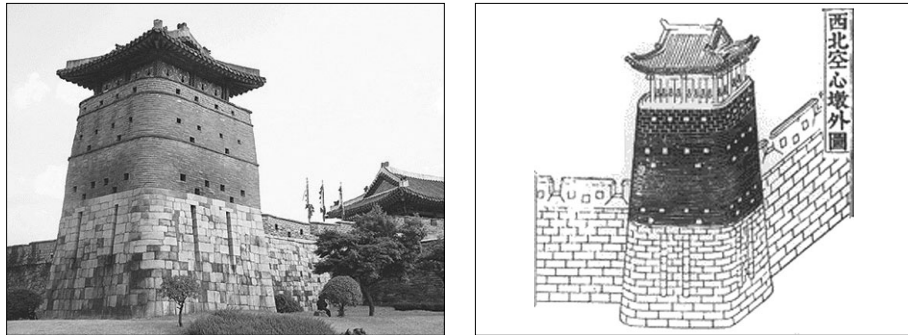
6) 돈(墩)

(1) 공심돈

성서(城書)에는 나와 있는 공심돈은 다음과 같다. ‘벽돌로 삼면을 쌓고 그 가운데를 비워둔다. 그 가운데를 2층으로 구분하여 널빤지로 누를 만들고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위아래에 구멍을 많이 뚫어서 바깥을 엿보는데 편리하게 한다. 불랑기 백자총들을 발사하여도 적으로서는 화살이나 총탄이 어느 곳에서부터 날아오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 고 하였다. 화성의 공심돈은 이를 본 때 치에 돈을 설치하였다.

서북공심돈은 화서문 동북쪽 약 1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치의 높이는 15척이며 서북 2면에 각각 현안 2구멍을 내었고 그 위에 벽돌로 쌓아서 그 속을 비게 하였다. 위에 가로 세로 2칸의 집을 지었다. 상청판과 하청판의 두 판을 설치하여 누일 경우에는 2층으로 하고 포일 경우에는 3층으로 하여 층마다 벽돌로 된 면에 불랑기를 쓰아달 포혈 20개를 냈다. 상층의 벽돌로 된 면 위쪽은 판자로 돌렸으며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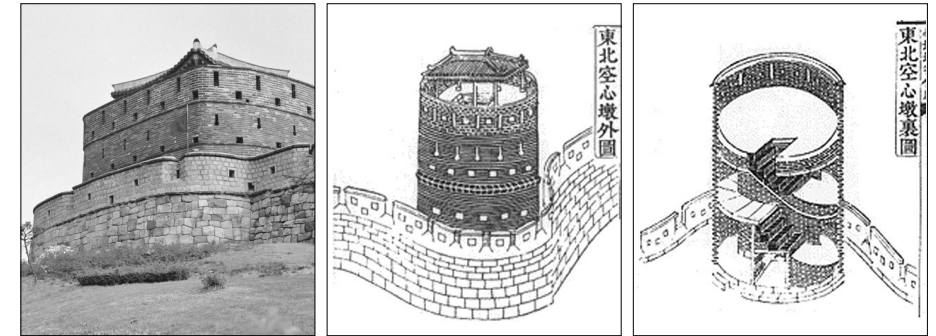
마다 각각 전안을 뚫었다. 중층과 상층에는 각각 청판을 여는 사방 3척의 덮개판 하나를 만들어 밀고 당겨서 여닫게 하여 나무사다리로 된 오르내리는 길과 통하게 하였다. 아래층 안쪽에는 벽돌로 된 작은 홍예문을 내었다.³⁸⁾



〈그림 35〉 서북공심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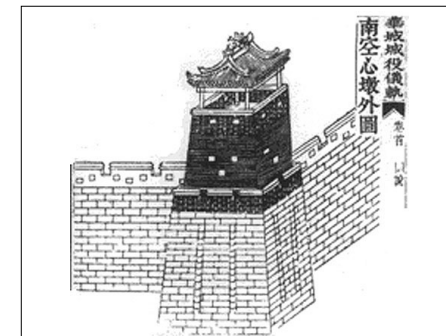
동북공심돈은 동북노대의 서쪽 60보(72m)되는 거리에 있다. 성곽의 위 성가퀴 안에 벽돌로 쌓아서 둥그렇게 돈을 만들었는데 겹으로 돌렸다. 높이가 17척 5촌 바깥쪽 원둘레 122척, 벽돌로 된 부분의 두께가 4척, 안쪽 원 둘레 71척, 내원과 외원 사이 가운데 4척 5촌의 공간을 비워두고 2층 덮개판으로 돌렸다. 아래 층 높이 7척 3촌, 가운데 층 높이 6척 5촌인데 모두 군사들의 몸을 숨길 수 있게 했다. 바깥쪽으로 충안을 뚫어서 밝은 빛을 끌어들이는 구실을 겸하게 했다. 위구멍은 26개, 아래 구멍은 14개이다.

위아래 덮개판 위는 진흙과 회를 섞어 쌓았으며 아래층 공심에서 구불구불한 벽돌사다리를 거쳐 위로 올라가면 위층에 이르러 집을 세웠다. 기둥 6개를 세우고 평평한 성가퀴를 돌렸다. 위아래에 포혈 23개, 누혈 6개를 뚫었다. 아래층 안쪽에는 벽돌로 작은 홍예문을 설치하였다. 문 동쪽으로 공심을 막아서 온돌 한 칸을 놓고 방안을 창으로 삼아 파수꾼이 기거하게 했다.³⁹⁾



〈그림 36〉 동북공심돈

남공심돈은 남암문 동치 위에 있었는데 서북공심돈과 같으나 규모는 작다. 치의 동남 두 면에 각각 현안 둘을 내었고 위에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면마다 2개의 충안을 뚫었으며 장 내 3면에 각각 3척의 공간을 두어 군사들이 기예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가운데 돈을 벽돌로 쌓고 그 가운데는 비웠다. 벽돌 위에 한 칸 짜리 집을 지었는데 판문은 설치하지 않았다. 안쪽 아래에 작은 홍예문을 내었다.⁴⁰⁾ 지금은 사라져 없으며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



〈그림 37〉 남공심돈

공심돈은 화성 성곽 구조물 중에서 외관상으로 시선을 끄는 건축물이다. 서북공

38) 앞의 책, 권 수 도설, 서북공심돈.

39) 앞의 책, 권 수 도설, 동북공심돈.

40) 앞의 책, 권 수 도설, 남공심돈.

심돈과 남공심돈은 치 위에 방형으로 축조되었고, 동북공심돈은 성가퀴 안쪽으로 원형으로 축조된 점이 확연하게 다르다. 서북공심돈은 나무계단을 설치하였고, 동북공심돈은 벽돌계단을 소라 모양으로 휘돌아가면서 설치하여 일명 소라각이라고도 부른다.

서북공심돈은 원 성의 성벽 높이까지는 돌로 쌓고 그 위는 벽돌로 쌓았는데 모서리 부분은 완만하다. 남공심돈은 성벽은 돌로 쌓고 성가퀴는 벽돌로 쌓았으며 모서리는 직각이다. 서북공심돈이 성벽과 바로 연결되어 쌓아진 데 비해 남공심돈은 성벽 위부터 한단 안으로 줄여서 쌓아 올렸다.

서북공심돈은 맨 위에 가로 세로 2칸의 집을 지어 판문을 두르고 문마다 전안을 냈다. 남공심돈은 기둥 4개, 동북공심돈은 기둥 6개를 세워 집을 지었으며 둘 다 판문을 두르지 않아 뚫려 있다. 동북공심돈에는 온돌 한 칸을 놓아 파수꾼의 기거처를 만들었으나 서북공심돈과 남공심돈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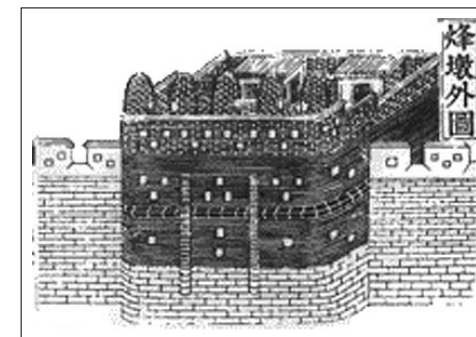
(2) 봉돈(烽墩)

봉돈은 동이포루(舖樓)와 동이치 사이에 있으며 행궁을 마주 보고 있다. 봉돈은 파수를 설치하여 정찰과 정보 전달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저녁마다 남쪽의 첫째 햇불구멍에서 햇불 하나를 들면 동쪽으로 용인의 석성산 육봉에서 봉화로 응하고 서쪽으로는 본부의 홍천대에 있는 해봉에서 응한다. 나머지 4 구멍은 긴급한 일이 없으면 햇불을 들지 못한다. 다만 홍천대의 바다 봉화는 너무 멀어 곧바로 전하기 어려워 화성부 서쪽 30리 서봉산 위에 새로이 셋봉화를 두어 여기에서 오는 봉화를 전달하도록 했다.

화성의 봉돈은 규모와 외관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축조되었다. 봉돈은 벽돌로 쌓아올려 성의 몸체 위에 벽돌로 다시 높게 쌓았으며 성 밖으로 18척이나 돌출되어 마치 치처럼 생겼으면서도 그보다 크다. 바깥쪽 돌로 쌓은 것이 5층, 벽돌로 쌓은 것이 62층으로 전체 높이가 25척이다.

안쪽은 커다란 계단처럼 굴곡이 지게 하여 3층으로 만들었다. 맨 위에 화두를 5개 설치하였다. 화두의 높이는 11척으로 성가퀴 위로 6척이나 올라갔다. 햇불을 지피는 아궁이는 허리 즈음 높이에 있으며 꼭대기까지 뚫려 있다. 꼭대기 부분 지름이 1척이다. 5개의 화두 사이에 성가퀴를 붙였고 양쪽 끝은 구부러 안으로 향하게 하였

는데 3면에 포혈 18개를 설치하였다. 아래 두 층의 벽돌 층계는 휘어구부러져 3면 벽성을 만들고 총안 18개와 누혈 1개를 냈다. 좌우의 구부러진 돌층계를 거쳐 위로 올라가면 햇불을 가지고 다니는 길과 통하게 되는데 층계가 각 10층이다. 양쪽 가장자리 층계 끝에는 벽돌로 지은 각각 1칸 짜리 집이 있고 용마루 없이 기와로 덮었다. 남쪽에 있는 것은 온돌을 놓아 군졸이 거처하고 북쪽은 판자를 깔아 기물을 넣어둔다. 안쪽은 벽돌로 담을 쌓고 가운데 작은 홍예문을 내었다.⁴¹⁾



〈그림 38〉 봉돈

7) 은구와 연못

남은구는 남서적대의 서쪽 40보 1척 되는 곳에 있다. 원 성을 쌓을 자리에 벽돌

41) 앞의 책, 권수 도설, 봉돈.

을 깔고 위에 짧은 돌기둥을 3줄로 세우고 4개의 도랑을 만들었다. 전체 너비는 4보이고 그 안에 또 은주를 엇비슷이 교차시켜 설치하여 겨우 가는 물줄기만 통하도록 하여 성안의 물을 빼내도록 했다. 상남지와 하남지는 그 안에 있다. 도랑 위에는 돌을 얹어 성을 쌓고 안쪽은 토막으로 채웠다.

북은구는 북서포루의 서쪽 90보 지점에 있는데 기둥이 둘에 도랑이 셋이다.

남지는 팔달문 안에 있는데 남창의 남쪽에 있는 상지는 못의 너비가 사방 40보 깊이가 6척이고 가운데 작은 섬이 있으며 홍련과 백련을 심었다. 하지는 너비 40보, 길이 60보, 깊이 7척이고 가운데 섬 둘이 있는데 두 못의 사이에 정자터가 있다.

북지는 북은구 안에 있으며 성 밖 도랑의 물을 끌어대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사방 30보, 길이 5척이다.

동지는 매향동 어귀에 있는데 남북 길이 58보, 동서 너비 50보, 깊이 7척이다. 가운데 작은 섬이 있는 것이 상지다. 하지는 구천의 북방에 있는데 사방 37보, 길이 4척이다.⁴²⁾

맺음말

화성은 우리나라 성곽 사상 가장 완벽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성곽예술의 꽃으로 불리며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가 성곽을 화성이라 이름지은 것은 “花는 華와 통하고 華는 德을 길러 孝에 이름이니 수원이 덕과 효를 펼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리라”라는 깊은 뜻을 언급하였다. 완성된 화성은 버들잎을 상징하고 또 川자를 본받아 뺨돌러 터를 정한 이른바 유천지의(柳川之義)를 나타낸 모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으로 팔달산이 높이 솟아 진산이 되고 그 앞으로 일자로 한 안산이 있으며 그 사이로 한 내가 남북을 꿰뚫고 흐르고 있어 동쪽을 향하여 앞이 훤히 트여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성곽의 일차적 기능은 공격과 방어에 있지만 화성은 구조물 하나하나가 모두 공

격과 방어에 유리하게 만들었으면서도 빼어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화성이 완성된 후 정조는 성곽시설물의 우수함을 칭찬하며 “다만 문루와 성루, 공심돈 따위의 만들새가 너무 기교를 부렸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바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미적인 우수성이 뛰어나다.

화성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성곽과 달리 곳곳에 많은 치(雉)를 설치하여 방어에 완벽하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치성 위에 대포를 쏠 수 있는 포루(砲樓)와 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포루(舖樓)를 갖추었다. 또 주요 지점에는 루(樓)·문(門)·대(臺)·돈(墩)을 설치하였으며 사대문 앞에 벽돌로 만든 옹성을 두어 문루를 보호하였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미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

포루(砲樓)의 예만 보더라도 성벽의 모서리를 각이 지게 한 것도 있고 곡선으로 처리한 것도 있다. 또 지붕도 성 안쪽에서 보았을 때 맞배지붕인 것도 있고 우진각지붕인 것도 있다. 8개의 치성도 그 모양이 모두 제각기 다르다. 동일치는 전체적으로 직각이고, 동이치는 완만하며, 동삼치는 입구는 완만하고 안쪽은 직각이다.

특히 동북각루인 방화수류정은 화성 구조물 중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각루 아래 용연과 더불어 한 폭의 풍경화를 이뤄냄으로써 전쟁을 대비한 성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성은 축성의 견고한 점이나 독자적인 설계를 채택한 점, 그리고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재료 사용 등 건축사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 건축예술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화성의 많은 구조물들을 같은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모양이 다른 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화성을 보는 눈높이를 다양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2) 앞의 책, 권수 도설, 은구.

일제하 재수원일본인의 지방지 편찬

— 酒井政之助의 『水原』을 중심으로 —

박 환 (수원대학교)

머리말 : 『수원』의 집필동기와 식민지 근대화	사진첩
1. 『수원』의 내용	2. 1920년대 초 수원지역 주요 한국인과 일본인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물지
1) 수원의 식민지근대화	맺음말 : 『수원』의 자료적 가치
2) 식민지근대화를 강조한 수원지역	

머리말 : 『수원』의 집필동기와 식민지근대화

『수원』은 식민지시대 수원지역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이다. 수원은 오늘날 수원, 화성, 오산 등지를 포함한 행정구역이다. 즉, 이 책은 오늘날의 이러한 지역들을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 지역을 설명하거나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번에 본고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본서는 일제의 수원 지배, 나아가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측 민간인의 주장을 보여주는 일사례로서 주목된다.¹⁾ 그러나 기존에 이 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된 바 없어 이번의

1) 식민지근대화에 대한 연구성과 정리로는 박환, 「20세기 한국근현대사 쟁점」, 『20세기 한국 근현대사 연구와 쟁점』, 국학자료원, 2001이 참조된다.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제측은 각 지역의 지배를 정당화를 위하여 지방지의 간행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각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 또한 학계에서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일제시대 조선의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쓰여진 지방지 및 각 지역 생활실태조사보고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서의 저자는 사카이 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란 개인이다. 즉 이 책은 정부에서 지은 책이 아니라 개인이 지은 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²⁾ 필자는 1885년 8월 일본 니가다현 直江津町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1908년 6월 중앙대학을 졸업하였다. 1910년 9월에 조선으로 건너와 소송대리업, 조선신문 수원지국장, 수원학교 조합회의원³⁾, 수원실업협회 법률고문,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 신도현인회장, 수원독서회 주사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⁴⁾

필자는 1914년 9월 『發展せる水原』(이하 『발전하는 수원』으로 표기)을, 1915년 9월에는 『華城之影』을 발행하여, 수원을 다녀온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께 수원의 진면목을 소개하고자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진면목은 일제의 지배를 통하여 수원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존에 간행한 책들을 바탕으로 1923년 8월에 『水原』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그동안 변화한 수원의 모습을 첨가하여 발행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의 집필 동기는 그가 작성한 서문과 서언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는 『수원』의 서문에서,

반도 산업개발의 秘鍵을 쥐고 있는 우리의 수원, 風光明媚天興의 詩境을 갖고 있는 우리 수원. 수원은 경성으로부터 남으로 겨우 20리, 경부선의 하나의 작은 역이다. 이 작은 역이 놀랍게도 1년에 50만 명의 승객이 내왕하고 있다. 조선의 수원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에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1914년 9월 『發展せる水原』(이하 발전하는 수원으로함)을, 1915년 9

2)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책으로는 『生活狀態調査 其一 水原郡』(善生永助, 1929.9.17)이 있다. 이 책은 본문 256면, 사진 56면 등 총 312면 분량으로 수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변측 자료이다.

3) 수원학교조합에 대하여는 한동민의 논문에 상세하다(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사회와 일본인학교」,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서평일교수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편, 한신대학교 출판부, 173~181쪽, 2008.)

4) 『수원』, 116쪽.

월에는 『華城乃影』을 발행하여, 수원을 다녀온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께 수원의 진면목을 소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의 과거의 것들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재능이 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新裝의 수원의 산업개발의 偉績과 하늘과 땅이 합작한 아름다운 경치를 『수원』이라는 저의 졸작에 의지해서 다시 강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문장의 교묘함과 글의 공교로움은 다름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나는 단지 충실함으로 수원의 실상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부록 <수원과 사람> 1편은 저자의 마음과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수원현재의 중심인물 가운데 차별 없이, 나의 管見에 따라서 기록했다. (중략)

끝으로 얼마 전에 <발전하는 수원>을 발간할 때, 당시의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농학박사 本田幸介 각하는 마음의 정으로 서문을 써 주셨다. 이에 신판을 맞이하여 그곳을 다시 재수록해서 識者의 수원관의 일단을 듣고, 다시 당시의 후의에 감사하고자 한다.

1923년 8월 저자 지음

라고 하고 있다.

사카이의 역사인식은 그가 작성한 『수원』의 서언에서 보다 분명히 보이고 있다. 즉, 그는,

정조대왕의 죽음과 함께 수원은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수원이 다시 개척되기 시작한 것은 경부선이 부설되고부터이다. 다시 통감정치가 이루어지면서, 타오르는 광명이 전도에 비치고, 다음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뒤 더욱 빛나 수원이 움직임을 가능해져 기초가 수립됨과 동시에 장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팔달령에 올라서서 본다면, 결코 이것이 망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바라보면 10리의 기름진 평야, 가을이 되면 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가을, 누가 이 아름다운 보고에 놀라지 않겠는가. 수원의 장래는 유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시 정거장 부근의 신시가지의 변장은 말할 것도 없고, 탄탄한 도로를 끼고 있는 새로 조성된 집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아마도 몇 년 되지 않아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다. 구시가에 이르러서는 구획이 정연하여 조그마한 도시

로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체재를 완비하였다. 상업의 발전도 타지방에 견주어도 드물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옛 색채와 자연의 정취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참 수원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리와 역사의 대체를 알고, 산수에 나아가면, 다소의 鑑識眼을 갖게 될 것이다. 상당한 준비로서 수원의 진면목을 이해 포착하는 것이 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점에 대해서 수원지역을 아직 답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소개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여 통감부, 조선총독부 등 일제의 지배를 통하여 쇠락의 길을 걷던 수원이 얼마나 발전하고 근대화되었는가를 수원을 답사하지 않은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책은 수원지역을 일본의 차원에서 홍보하는 『수원지역 안내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책은 그가 기존에 1910년대에 저술했던 책들을 종합하고 이에 더하여 그동안 10년 동안의 변화한 수원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특히 이 책을 1923년에 저술한 의도는 1919년 3.1운동 이후의 민심의 동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원지역은 국내외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것이다.⁵⁾ 그러므로 수원지역의 발전상을 수원주민 및 기타 수원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수원지역에 대한 소개는 당시 수원차원이 아닌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사카이의 『수원』 집필은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조선정보위원회의 지역별 비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추정된다.

3·1운동 이후 채택한 일제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정책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방식에서 나타난 큰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고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는 1920년 9월 1일 1.치안유지, 2.교육의 보급개선, 3.산업의 개발, 4.교통위생의 정비, 5.지방제도의 개혁 등 이른바 '5대정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조선민중에게 선전해야만 하였고, 3·1운동의 발생으로 인해 조선총독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일본 내의 여론과 서구의 제국주의국가 및 조선 민중에게도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해 조선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국내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 행한 정책과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조선인에게도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식민지 지배가 조선과 일본 양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양민족이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전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토총독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책으로서 “비밀선전기관을 설립하여 유식자를 이용하여 문서나 구두로 선전활동을 실시하여 조선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朝鮮事情을 内外 및 外國에, 日本事情을 朝鮮에 소개하고 施政의 真相과 施政方針의 周知普及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선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이와 동시에 서무부에 정보계를 설치하여 조선정보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즉 잡지 『朝鮮』, 『朝鮮事情』, 『朝鮮總督府要覽』, 『朝鮮總督府施政年報』 등의 인쇄물의 발행을 통해 내외 사정 또는 조선 사정을 소개하고 이 책자들의 규모를 확대하여 시정방침을 주지, 시정의 진상에 관한 소개, 조선사정의 대내외 소개, 일본 사정의 조선에 대한 소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조선정보위원회는 1920년 11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⁶⁾

1. 『수원』의 내용

1) 수원의 식민지근대화

(1) 식민지근대화에 바탕한 수원지역 향토지

5) 수원지역의 3.1운동에 대하여는 박환의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선인, 2007)가 참조된다.

6) 조성운, 「1920년대 초반 조선정보위원회의 선전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142~147쪽, 2007.

본서에서는 먼저 40여장의 1920년대 수원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싣고 있다. 먼저 창룡문, 팔달문, 화령전, 화홍문, 연무대, 방화수류정, 서호 등 당시의 수원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사진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조시대때 수원의 옛 영화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조이후의 수원의 몰락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수원사람이라면 누구나 제2의 정조가 등장하여 수원이 제2의 번영기를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먼저 정조시대의 화성관련 사진들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필자는 일본이야말로 제2의 정조라는 인식을 수원인들과 독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아울러 여러 관공서, 신사, 학교 등의 사진은 당시의 여러 기관들의 근대화된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⁷⁾ 이는 본 저서의 집필 동기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 당시의 찬란하였던 화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 쇠락한 수원을 일본이 다시금 근대화 시키고 있음을 뽐내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본 저서에서는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한 사진들은 거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서는 수원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세, 인구호수, 교통, 통신, 행정, 학교조합, 교육, 위생, 종교, 민형소송사건, 농업, 농산물, 조선토지제도, 양잠업, 임업, 축산, 수산, 상업, 금융, 권업모범장, 잠업시험소, 이왕직수원목장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필자는 농업,⁸⁾ 농산물, 권업모범장 등 농업에 특별히 비중을 두어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원의 역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조선이전, 조선시대, 전설, 슬픈 이야기, 즉위, 화산의 어룽, 지지대, 새로운 읍, 천도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다.

수원지역의 명승지에 대하여도 보여주고 있다. 수원신사, 공자묘, 팔달문, 城內, 화성장대, 동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화녕전, 화서문, 장안문, 창룡문, 봉로대,

7) 수원지역의 근대건축물에 대하여는 성주현의 글이 참조된다(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2005)

8) 농업부분에 대하여는 『수원학연구』 2의 다음의 논문들이 도움을 준다(김인호, 「근대 수원경제의 특징과 진로」, 이동근, 「1920년대 수원지역을 통해 본 식민지농업진흥책」)

북쪽 연못, 지지대, 서호, 화산의 룡, 용주사, 수원팔경 등이 그것이다.

본서에서는 부록에서 「수원과 사람」이란 항목을 두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재조 일본인 가운데 유지들과 조선인유지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시 수원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⁹⁾ 수원경찰서장, 수원도시금융조합사무이사,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상석판사, 권업모범장 기사, 공립보통학교 교장, 수원실업협회 평의원, 수원군 재무과장, 토목건축 청부업, 권업모범장장 등 주요 인물들의 출신지역, 학력, 경력 등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인으로는 윤태중, 양성관, 한상봉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또한 「수원상공업자 저명안내」를 싣고 있어 수원지역 상공업의 종류와 위치, 상호명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총 60명의 판매업의 종류, 위치, 상호명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업의 종류를 보면, 면류제조판매, 잡화, 모자, 會席御料理, 우유, 양복, 재목상, 각국 시계, 화장품, 종묘, 과수, 여관, 쌀 잡곡, 건축 청부, 토목건축청부, 도자기, 운송, 총포 화약, 活牛, 각국자전차, 인쇄, 서적 잡지 문방구, 과자, 사진 등 다양하다. 위치는 성내 本町, 역전통, 남대문앞 등에 다수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분별 저명 업소 등의 위치와 이름도 안내하고 있어 수원지역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특히 본 책은 수많은 광고를 싣고 있다. 이들 광고에는 위치, 주인의 출신지, 영업 종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선 수원역전 山口縣人, 토목건축청부업, 賴岡實一, 전화 210번,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수원고등농림학교 잠업시험소 어지정용달 제품위탁판매, 宮之原 靖, 경부선 수원역북, 전화 8번 등이다.

〈지리상으로 본 수원〉은 전체 분량상 제일 많다. 1914, 1915년에 지은 책에 비하여 192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변화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세, 기후, 인구, 호수, 교통통신, 행정, 학교조합, 교육, 위생, 종교, 재판, 농업, 농산물, 조선토지제도, 토지가격, 잠업, 임업, 축산, 수산, 상업, 금융, 모범장, 잠업시험장, 이왕직목장, 생산사업 등 총 20여개

9) 성주현의 앞의 논문(189~191쪽)이 참조된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조선 강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교통통신, 행정교육 위생금융 모범장, 잠업시험장 등이 주목된다.

〈역사상으로 본 수원〉은 往古, 李朝, 전설, 哀史, 즉위, 화산의 御陵, 지지대, 新邑, 遷都의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특히 전설, 애사, 천도의 계획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승지로 본 수원〉에서는 수원신사, 공자묘, 팔달문, 城內, 화성장대, 동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화녕전, 화서문, 장안문, 창룡문 봉로대, 北池, 지지대, 서호, 화산릉, 용주사, 수원8경, 팔달의 淸風, 서호의 낙조, 光教의 積雪, 北池의 賞蓮, 南堤의 張柳, 龍池의 待月, 詩文一束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특히 본서는 1920년대 수원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인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수원향토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이 책에서는 수원의 사회, 경제부분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이후 얼마나 수원이 잘 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생산의 중심인 농업에 대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본서는 수원을 지배했던 일본인 집단을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서에서 필자는 통계표를 이용하여 교통,¹⁰⁾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수원지역의 발전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특별히 주목된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통계의 논리를 통하여 수원지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얼마나 변화 발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이번 『수원』의 경우, 수원의 사례를 통하여 일제가 한국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식민지시대 수원지역의 통계표는 일반적으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朝鮮國勢조사보고〉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地勢〉부분에서, 수원에 위치한 권업모범장에서 관측한 최근 12년간의 평

균기후를 월별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기후를 다시 10가지로 세분하여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교통〉에서는 1917-22년까지 수원역 승객, 수하물, 화물을 연도별로 또한 수원역 출입 주요화물을 연표로 작성하고 있다. 주요 화물의 경우 쌀, 콩, 잡곡, 과일, 목재, 석탄 등 10개로 나누고 있다.

셋째, 〈통신〉에서는 통상우편과 소포우편과 振替 저금을 그리고 우편 爲替와 우편저금을 1908년과 1922년의 두 경우를 살펴보고 그 변화상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신, 전화의 발착 역시 살펴보고 있다.

넷째, 〈행정〉에서는¹¹⁾ 수원군에 소속된 면명, 리의 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수원군에는 수원면, 일형면, 반월면, 의왕면, 태장면, 양감면, 장안면, 우정면, 팔탄면, 봉담면, 매송면, 동탄면, 안용면, 성호면, 정남면, 향남면, 비봉면, 음덕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학교조합〉에서는 1923년도 학교조합세출입통계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교육〉에서는 1923년도 현재의 학교수와 교원수, 학생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시 소학교, 보통학교, 간이실업학교, 종교학교로 나누고 있고, 이를 다시 사립, 공립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세운 서당을 기록하여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위생〉에서는 병명, 일본인, 조선인으로 나누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인의 경우 소화기병, 피부병, 호흡기병, 눈병 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종교〉를 다루고 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통계 등을 이용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아홉째, 〈민형소송사건〉에서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취급사건을 1911년, 1914년, 1918년, 1922년 등 4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는 필자가 지방 民度の 문화정도와 사상의 여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열째, 필자는 〈농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농업에 할당된 분량이 많음에

11) 수원지역의 행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최재성, 「일제의 조선 지방지배정책과 수원」, 『수원학연구』 2)

10) 철도교통의 경우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김찬수, 「일제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 『수원학연구』 2)

서도 짐작해 볼수 있다. 먼저 필자는 각 면별 경작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면적을 표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원군에 소속된 여러 면의 경작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들의 조사와 분석이 결국 조선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의 미곡 등 수출 그리고 조선인의 착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논은 1모작과 2모작으로 나누고 있으나 일형면과 안용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1모작이다. 아울러 자작 소작별 면적 또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모작 논은 경지는 반월면과 안용면이 제일 넓게 나타나고 있다. 밭은 반월면, 태장면이 제일 많다. 다음으로는 1922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자수를 면별로 통계처리하고 있다. 이를 다시 專業과 兼業, 그리고 지주(갑), 지주(을), 자작겸 소작, 소작 등으로 나누고 있다.

〈농산물〉은 麥, 대두, 과수, 채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922년의 〈米作 付段別及收穫高表〉에 이어 麥作, 豆類를 면별로 파악하고, 이어서 논밭의 수지계산표(1922년 12월 조사)를 지주, 자작농, 소작농으로 나누어 세입, 지출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22년도 〈面採取查栽培成績교환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朝鮮田制〉에 대하여 소개하고, 주요 산업인 〈잠업〉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1910년, 1922년 그리고 1920년, 1921년, 1922년의 경우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열한번째, 〈임업〉은 成林地, 未案地, 雜樹地 등으로 나누어 임야면적과 林況구분 면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별 구분면적도 보여주고 있다. 〈축협〉의 경우도 소에 비중을 두면서, 돼지, 닭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 〈수산〉 〈상업〉, 〈금융〉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금융의 경우, 1923년 7월 현재 조사에 따라, 대표적인 수원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기타를 표로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권업모범장〉에 대하여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품종시험, 旱水害처리법 시험, 大麥이모작시험성적, 秋播大麥, 소맥, 대두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잠업시험소〉에서는 조선잠업통계 누년비교표(1917-1921), 잠종배부수년표를 제시하고, 〈여자잠업강습소〉에서는 졸업생 취업일람표(1923. 1월 조사표), 〈이왕직수원목장〉에서는 이왕직수원목장성적표(1916-1923), 기타 생산사업, 제지, 양잠, 과수재배, 葉 연초재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2) 식민지근대화를 강조한 수원지역 사진첩

『수원』에 수록된 사진은 총 44점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원역 구내의 일부
- 2) 수원시가의 역전앞 거리
- 3) 東山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 4) 東山製穀所
- 5) 巴商會양복점(역전통)
- 6) 주식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역전통)
- 7)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 8) 수원신사
- 9) 種苗商 香山상점
- 10) 수원전기주식회사와 발전소
- 11) 活牛貿易商 忽那商會(모범소)
- 12) 수원시가내 남대문 앞 거리
- 13) 미곡상 靑木상점 정미소
- 14) 팔달문(남대문)
- 15) 수원시가 성내의 일부
- 16) 수원공회당과 수원면사무소
- 17) 주식회사 한성은행 수원지점
- 18) 수원우편국
- 19) 행궁의 자취(水原慈惠醫院)
- 20) 수원군청과 수원토목 管區
- 21)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 22) 華寧殿의 老松
- 23) 화녕전(風化堂)
- 24) 수원공립보통학교
- 25) 화홍문 전경
- 26) 방화수류정과 용연

- 27) 연무대
- 28) 장안문(북문)
- 29) 화서문
- 30) 北池(만석거)
- 31) 지지대(正宗王 駐輦의 자취)
- 32) 서호와 축만제
- 33) 향미정
- 34)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 35) 관립여자 잠업강습소
- 36) 國武合名회사 조선본부
- 37) 수원고등농림학교
- 38) 잠업시험소
- 39) 大皇橋
- 40) 李王職 목장
- 41) 장헌세자의 어릉과 화산 용주사
- 42) 수원금융조합

총 42장의 사진은 일제의 조선 지배 이래 발전하는 수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정조와 관련된 것들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자로는 수원역 구내의 일부, 수원시가의 역전앞 거리, 東山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東山製穀所, 巴商會양복점(역전통), 주식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역전통),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수원신사, 種苗商 香山상점, 수원전기주식회사와 발전소, 活牛貿易商 忽那商會(모범소), 수원시가내 남대문 앞 거리, 미곡상 靑木상점 정미소, 수원시가 성내의 일부, 수원공회당과 수원면사무소, 주식회사 한성은행 수원지점, 수원우편국, 행궁의 자취(水原慈惠醫院), 수원군청과 수원토목 管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수원공립보통학교,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¹²⁾, 관립여자 잠업강습소, 國武合名회사 조선본부,

12) 최근 권업모범장에 대하여 『수원학연구』 창간호(2005)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박수현,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 김도형,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구성원과 식민지농업 지배」, 김주용,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운영실태」 등이 그것이다.

수원고등농림학교, 잠업시험소, 大皇橋, 李王職 목장, 수원금융조합 등 금융, 학교, 병원, 면사무소, 법원 등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을 들 수 있다.¹³⁾ 이처럼 수원의 근대적인 문물을 다수 소개하고 있는 것은 3.1운동 이후 팽배해 있는 일본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일본의 지배 10년 동안 조선이 어떻게 근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일본인의 조선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조선인 식자계층에게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의 지배를 통하여 수원지역이 얼마나 근대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다수의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후자로는 팔달문(남대문), 華寧殿의 老松, 화녕전(風化堂), 화흥문 전경, 방화수 류정과 용연, 연무대, 장안문(북문), 화서문, 北池 (만석거), 지지대(正宗王 駐輦의 자취), 서호와 축만제, 향미정, 장헌세자의 어릉¹⁴⁾과 화산 용주사 등 정조대왕과 관련된 역사유적이다. 주정정지조가 정조와 관련된 역사유적을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이 바로 제2의 정조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2. 1920년대 초 수원지역 주요 한국인과 일본인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물지

『수원』에서는 1920년대 초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한인들로 윤태중, 양성관, 한상봉 등을 들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尹泰重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

13) 수원지역 근대건축물의 설치와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김재국, 「수원 근대건축의 발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8. 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2005.

14) 현릉원에 대하여는 『수원학연구』 창간호, 2005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병로, 「조선후기 현릉원 원형과 역할」, 박천우, 「현릉원과 용주사」, 장필기,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등이 그것이다.

1885년 10월 경성부 북부 삼청동에서 출생, 1912년 7월 동경제국대학 농과를 졸업하고 동년 7월 농림학교 교수가 되어 급일에 이르고 있다.¹⁵⁾

2) 梁聖寬

1867년 8월 4일 수원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4월 수원명륜학교 졸업후 동년 8월 수원상업회의소 부회두에 당선 이래 1910년 상업강습소 설립, 기타 수원 공사의 모든 사업에 진력함. 현재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전기회사 取締役, 수원금융조합장의 요직에 있음. 일본적십자사 有效사원에 推擧되었다.¹⁶⁾

3) 韓相鳳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 1876년 3월 23일 수원에서 출생하였다. 1900년 1월 한국무관학교 졸업 후 육군 참위에 임명되었다. 다음에 정위로 지급하였다가 무관학교 교관, 군법회의 판사가 되었다. 휴직 후 1906년 9월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씨는 수원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수원금융경제계의 중진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의 신망을 받고 있다.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최근 수원면 상담역과 경기도 도평의원, 수원실업협회 부회두 등에 선출되었다.¹⁷⁾

아울러 수원지역의 일본인 주요 인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들을 보면, 수원군 군수(鶴崎敏行), 수원경찰서장(石橋利助),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尹泰重, 市島吉太郎, 中島友輔, 植木秀幹, 草場榮喜, 鈴木外代一), 수원도시금융조합 상무이사(현)(今村卯太郎), 경기지방법원 수원지청 상석판사(石村義太郎), 권업모범장장(大工原銀太郎),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교장(田中三郎), 동산농사주식회사 취체역

(中屋堯駿), 주식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장(中村孝嗣), 경기도 자혜병원 원장(平井道治), 경부선 수원역장(酒井直行), 수원면 면장(近藤虎之助)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아울러 1920년대 수원지역 일본인 상공업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60여개에 이르는 회사명, 주요 사업 또는 취급품, 소재지, 점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¹⁸⁾

수원에 최초로 정착한 일본인은 선교사 乘松雅休였다. 그는 1900년 9월에 성안 북수동(현 장안동)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수원에 정착함으로써 수원에 영주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그 후 1883, 1884년 이주가 점차 늘어났으며, 특히 1884년에는 농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887년 수원에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일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러자 일본인들의 취학을 위하여 수원군 학교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¹⁹⁾

그 후 러일전쟁의 승리,²⁰⁾ 1905년 경부선의 개통이후 수원지역으로의 일본인의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다.²¹⁾ 아울러 1906년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가 정조때 축조된 축만제 옆에 설치되자 일본인 이주자들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통감부 설치이래 수원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경찰서와 우편국, 수원역 및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등에 일본인 관공리들이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의 일본인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1909년에는 1천여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²²⁾ 1909년말 수원군에는 360호에, 1,247명이 거주하였고, 1915년에는 1866명, 1925년에는 3041명으로 늘어났다. 1944년에는 3993명이었다. 수원면의 경우 1915년에 719명, 1925년에는 1,265명, 1944년에는 3,091명 등이었다.²³⁾

1910년대 초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출신지는 佐賀縣과 福岡縣이 가장 많았으며, 廣島縣, 山口縣, 崎阜縣, 大分縣, 熊本縣, 長崎縣, 鹿兒島縣, 岡山縣 등을 들

18) 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203~204쪽, 2005.

19) 한동민, 위의 논문, 152~157쪽.

20) 한국거주 일본인은 1902년에는 22,471명이었으나, 전쟁의 승리와 함께 1906년에는 83,315명으로 늘어났다(이규수, 『식민지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할미디어, 26쪽, 2007.)

21) 일제시대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은 다음 논문이 주목된다. 김찬수, 「일제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 『수원학연구』 2, 2005.

22) 한동민, 위의 논문, 152~157쪽.

23) 『수원시사』, 상권, 128~129쪽.

15) 『수원』, 103쪽.

16) 『수원』, 105쪽. 양성관의 개인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이창식, 「양성관과 수원공립가정 여학교」,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95~296쪽, 2003.

17) 『수원』, 106쪽.

수 있다.²⁴⁾

구한말 및 1910년대 초 이들 일본인들의 조선이주와 정착의 안내 역할을 한 책자가 재조일본인들인 기쿠치(菊池謙讓)와 샤쿠오(釋尾春莸) 등이 발행한 『朝鮮』이다. 이 책자는 1908년 3월 1일 창간되어 1911년 12월 중단되었다.²⁵⁾

맺음말 : 『수원』의 자료적 가치

본서는 일제하 재수원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수원관련 책자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지영』과 『발전하는 수원』을 바탕으로 1910년대 및 1920년대 전반기를 추가한 책이기 때문이다. 『수원』의 바탕이 된 두 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發展せる水原』

『발전하는 수원』은 사카이가 1914년 9월에 일문으로 작성한 책으로 총 74면이다. 이 책의 서문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場長 농학박사 혼다 코오스케(本田幸介)가 지었다. 그는 동경대 농대 축산학교수로서 일찍이 1903년 일본 농상무성 조사단의 일원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의 농업을 조사하였고, 1905년에는 함경 평안 황해 3도에 대해 다시 한번 농산 조사를 담당하면서 한국 농업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초대 권업모범장의 장장이 되었다. 그는 1907년부터 1919년까지 15년간 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국농정의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결정할 최고의 위치에 있었으며, 1910년대 일제의 농정은 대부분 그에 의해 수립 추진되었다.²⁶⁾

『수원』의 서문에서 그는 수원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농학자의 견지에서 華山의 식림과 西湖를 통한 관개사업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4) 酒井政之助, 『發展せる 水原』, 8~9쪽, 1914.

25) 최혜주, 「잡지 <<조선>>(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5, 113~114쪽, 2008.

26) 김도형,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구성원과 식민지농업지배」, 282쪽.

수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황막한 반도를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花山의 濃翠은 植林의 전범을 보여주고, 西湖의 경우는 灌溉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볼 때 수원은 실로 웅대한 風光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산수의 아름다움은 자랑할 만하다. 4계절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이미 定評이 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물질적 진보는 현저해서, 그것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격세지감이 있다.

酒井政之助君이 이에 보는 바가 있어 『발전하는 수원』을 저술하고, 세상에 수원을 소개하고자 하고 있다. 저자가 이 저술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花天月地를 말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수원에 바라는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14년 3월 초 여름 수원에서 농학박사 本田幸介

또한 필자는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다.

사람은 떠나도 산천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조가 화성을 세운지 120여년, 팔달산의 소나무는 아직도 끊임없이 비통함을 소삭이고 있다. 華川은 흘러 오래 동안 슬픔에 목이맨다. 그런데 조국의 陵威가 오늘날에 이르러 비로소 수원의 形勝과 옥토를 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혹은 진실을 잘못 언급하고, 혹은 진수를 빠뜨릴 우려도 있고 해서, 천박 비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다망한 가운데 여가를 내어서, 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문장의 묘는 천하에 저절로 그 사람을 드러낸다. 나는 오직 수원의 진상을 세상에 전하는데 만족한다.

1914년 3월 상순

저자 씀

이어서 필자는 서언에서도,

쉽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영화의 꿈, 쇠퇴의 한 모두 이것이 시간의 장난일 뿐이다. 송도의 옛날, 화성의 지금. 함께 시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이 아닌가.

옛날 정조대왕에 의해서 개척된 천도의 의논이 일어났을 때, 8도의 눈은 수

원으로 모두 모아졌다. 그러나 그 전성기는 뜬 구름의 순간의 영화에 불과했다. 왕의 붕어와 함께 모처럼의 계획도 허무하게 묻혀버려 이레로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나 1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치의 길은 점차 쇠퇴하고 문운도 사그라져 장려한 건축물은 과거의 영화는 흘러간 꿈이 되고, 그 아름다움은 결국 비바람에 퇴색하여 옛 감정을 건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덧없는 역사를 대변하는 수원도 다시금 개척되어야 할 기운은 경부선의 부설에 따라 열리고, 통감정치가 시작됨에 미쳐서 찬란한 광영은 정도에 빛나고 이어서 병합이 이루어져 결국 수원의 확고부동한 기초가 수립되고 동시에 장래에 한층 발전할 소지를 확보한 것이다.

만약 팔달산 정상에 서 보면 그것이 결국 망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눈에 멀리 십리의 기름진 땅이 있고,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 가을. 누가 절대의 보고에 놀라서 눈이 둥구레지지 않겠는가. 鑰匙를 가지고 있는 수원의 장래는 유망하다. 또한 정차장 부근의 신시가지의 번창은 말할 것도 없고, 탄탄한 도로를 끼고 가옥이 신축되는 것도 날로 많아지고,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신구시가지는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구시가지는 구획이 정연하고 소도시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완비하여 상거래가 활발한 것도 또한 다른 지방에 비하여 보기 드문 점이다. 더구나 산의 경관과 오래된 색채와 자연의 정취가 조화되어 있지 않은가. 아무튼 조금이라도 진정한 수원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리 역사를 조금 알고 산수에 대하여 다소의 감식안을 지니고 그에 상당하는 준비를 하여 수원의 진면목을 이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는 이점에 있어서 아직 수원땅을 밟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라고 하여 정조 붕어 이후 쇠퇴한 수원이 경부선의 개통과 통감정치의 실시, 한일합방이후 확고부동한 기초가 수립되고 발전할 소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책 제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발전하는 수원』은 첫머리에 화보를 19장 싣고 있다. 공자묘로부터 바라본 수원역 방면(1), 팔달문(남문, 2), 수원성내 시가의 일부(3) 화성장대(서장대, 4), 행궁의 자취(경기도 자혜병원, 5), 화녕전의 老松(6), 화녕전(풍화당, 7), 수원부 공원 1(화홍문과 七間水의 夕景, 8), 수원부 공원 2(용연으로부터 본 방화수류정 9), 수원부 공원 3(연무대와 창룡문 10), 장안문(남문, 11), 화서문으로부터 본 이민부락(12), 북지(북문밖 만석거, 13), 지지대(정종대왕 駐輦의 고적, 14), 팔달문 밖 조선인부

락의 일부(15),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전경(16), 서호(축만제) 17), 향미정의 룡(18), 화산의 능(장현세자의 능묘, 19)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 지리상으로 살펴본 수원, 2편은 역사상으로 살펴본 수원, 3편은 勝地로서 수원이다. 특히 제1편에서는 수원의 지세, 인구호수, 교통, 행정, 학교조합, 교육, 위생, 종교, 농업, 권업모범장, 임업, 상업, 금융, 수산, 기타 생산사업(제지, 양잠, 과수재배, 염연초제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통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²⁷⁾

2) 『華城之影』

『화성지영』은 일본인 사카이가 1915년 9월 酒井出版部(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95)에서 발간한 화보중심의 책자이다. 일본어로 쓰여졌으며 총 52쪽으로 되어 있다. 본 책자에서는 수원군뿐만 아니라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 등 경기 남부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저명 실업가들도 수록하고 있다.

始政5년 紀念朝鮮物産共進會 水原協贊會는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5년전 명치 43년은 일한병합이 실현된 해이다. 이는 일본과 청나라, 일본과 러시아 2대 전쟁의 결과이고, 즉 동양평화의 기초를 확립하고 총독정치를 연 시기이다. 금년은 5주년에 해당되는 해이다, 그것을 기념해서 수도 경성에서 시정5년 기념조선물산공진회를 개설하였다. 이 장거는 조선의 실업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지대하다.

우리 수원의 유지들은 이 좋은 기념사업에 협찬해서, 본회를 조직한 바이다, 기념공진회 관람의 일본과 조선인 여러 인사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당지 관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회는 그것에 대한 예의로써 地方狀勢 일반을 편찬해서 여러 인사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

본회 회원인 酒井政之助씨는 화성의 影이라는 책자를 편찬할 계획이 있고, 씨에 부탁해서 그것을 만들어 관광하는 여러분에게 배포하게 되었다.

1915년 9월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조선협찬회

27) 『수원시사』 상권, 318~319쪽.

즉, 본 책자는 일본이 조선지배 5주년을 기념하여 이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광책자로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책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을 하늘이 청명하고 오곡이 무르익은 때, 시정5년기념공진회는 경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쁜 행사에 즈음하여 본서를 간행하게 된 것은 화성 부근의 실재를 소개함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용의 빈약과 우둔한 붓놀림은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저자는 일찍이 『발전하는 수원』을 기초했고, 오늘날 또 이 책이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고 상세히 진정한 모습을 서술하여, 양자간에 큰 차이는 있지만 독자들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1915년 9월 상순 저자 씀

먼저 본서는 수원부근약도를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서 수원군편에서는 1)수원군 군세 略說 2)지지대(장종왕 駐輦의 고적), 3)北池(북문밖 만석거) 4)장안문(북문) 5)화서문에서 바라본 이민부락 6)수원부 공원 1(화홍문과 七間水의 夕景), 7)수원부 공원-2(용연으로부터 본 방화수류정) 8)수원부공원 3(연무대, 봉화대), 9)수원행궁의 흔적 8)수원군청의 모습 9)화녕전(풍화당) 10)화녕전의 노송 11)수원성 시가의 일부 12)팔달문 13)南堤의 長柳 14)공립 심상고등소학교와 보통학교 15)공자묘에서 바라본 수원역 방면 전망 16)서호(축만제) 17)권업 모범장의 모습 18)농림학교 原種제조소, 여자잠업강습소의 전경 19)화산의 능과 용주사의 불상 등을 화보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원군 군세 약설〉에서는 지세, 인구호수, 교통, 통신, 행정, 학교조합, 위생, 농업, 상업, 금융, 수산 등으로 나누어 총 4면에 걸쳐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다음 지지대부터는 사진을 곁들여 각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하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910년대 전반기 수원의 문화유적과 일제의 수원진출과 식민지근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²⁸⁾

28) 『수원시사』 부록 자료 해제, 318쪽 참조.

3) 『水原』

『수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대, 1920년대 초반기의 수원지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민간자료집으로서 평가된다. 향토지로서, 그리고 인물지, 사진첩으로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집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원』은 『화성지영』과 『발전하는 수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시기의 변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책으로 평가된다. 『수원』의 화보의 경우 『화성지영』의 사진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의 「지리상으로 살펴본 수원」의 경우, 『발전하는 수원』의 「지리상으로 본 수원」을 바탕으로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기 것을 추가한 형태인 것이다. 즉, 『수원』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 1910년대 및 20년대 부분을 첨가시킨 신선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본의 수원지배, 나아가 조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한 책이란 점이다. 이점은 러일전쟁 전후부터 1910년경까지 일본인에 의해 기술되고 발간된 조선여행관련 기록물과도 비슷하다. 이 시기의 저작물들은 주로 조선을 일본의 ‘정복지’로 간주하고 조선을 개척하고 일본이민을 장려하기 의도에서 여행기를 저술하였던 것이다.²⁹⁾ 『수원』이 일제의 수원지배를 글로써 정당화 한 것은 3.1운동이 국내외의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하여, 일본지식층이 무단통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유연한 문화통치로의 전환을 촉구한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³⁰⁾

일제의 수원에 대한 조사는 1920년대 후반 민간인이 아닌 조선총독부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조선총독부는 일찍이 『인천시사』를 집필한 역량있는 저술가인 조선총독부 촉탁 선쇼에이스케(善生永助)에게 명하여 『생활실태조사 기일 수원군』(1929)을 간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간행물로 다양한 통계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식민지시대 수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총설에 이어 경제사정, 부락, 생활양식, 문화사상, 생계상태, 농가의 수지와 수원군 지도 외에 다수의

29) 윤소영, 「러일전쟁 전후 일본인의 조선여행기록물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51~65쪽, 2007.

30) 윤소영,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인식과 ‘제국의 꿈」, 『한국근현대사연구』 45, 28쪽, 2008.

사진들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수원지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민간측 자료가 아닌 관측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³¹⁾

31) 이창식, 「일본인 저술가가 남긴 일제하 수원사료」,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302~305쪽, 2003.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華城

이 동 근 (수원박물관 전문위원)

-
- | | |
|-----------------------|-----------------------|
| 머리말 | 2. 식민지적 도시 변화와 화성의 수난 |
| 1. 식민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파괴 | 맺음말 |
-

머 리 말

수원지역은 지리적으로 삼남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도 서울과 가까운 행정 도시로서 기능해왔다. 더욱이 수원지역이 본격적인 도시적 기능을 갖 추게 된 것은 1789년 구읍치의 이전을 시작으로 한 華城城役의 완료에 있었다. 정 조 임금의 화성성역을 추진하면서 도시적 생산기반 시설로 水利를 위한 堤堰과 屯 田을 조성하여 경영하게 했다. 또한 상업기반시설로 성 밖과 안에 시전을 설치하여 상업의 발전도 도모하며 새로운 시대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화성성역의 결과는 당대의 많은 학자들의 고민과 개혁정신이 표현된 것 이었다. 더구나 개혁군주로 평가 받는 정조 임금의 애민정신과 개혁정신 등 근대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 사후 근대에 대한 열망은 세도정치라 는 혼란기로 인해 이상적 꿈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정신은 후대의 학자들에 게 이어지며 외세의 침략 속에 근대적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華城이라는 개혁의 산물은 시대적 흐름 속에 방치되고 파괴되면

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구한말 시대의 격동 속에 방치되기 시작했던 화성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적인 파괴와 방치에 더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식민지적 도시변화는 전통적인 도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독자적인 도시의 경관과 경제 활동이 잔존한 바탕위에 식민지 지배기구가 들어서고, 일본인의 이민으로 일본인 거리와 학교가 생겨났다.¹⁾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도시 속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중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뚜렷하게 존재했다. 수원지역은 식민지적 도시변화²⁾ 속에서 행궁이 파괴되고, 화성성벽과 시설물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고, 이질적인 근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도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자본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 속에 변화된 발전이 아니었다. 도시 변화의 중심에는 식민지 경영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식민지 운영의 주체들에 의해서 지방행정기구가 들어서고 경제기구들이 생겨났다. 결국 식민지적 도시변화의 혜택은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아닌 식민지 경영자와 조력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도시 속에는 계급의 차별은 물론이요, 민족적 차별이 현격하게 존재하였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적 변화를 고찰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근대 수원의 도시발달이라는 주제로 철도교통,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경제적 변화, 지방지배정책 등 수원이라는 지역의 식민지 도시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폈다.³⁾ 한편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이후 수원의 주산인 팔달산을 중심으로 팔달산의 상징을 일본화하는 모습 등을 살펴 본 연구도 이루어졌다.⁴⁾ 이들 연구들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도시적 변화의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시적 변화를 전통문화, 전통 도시의 유산인 화성과 화성행궁의 파괴와 방치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제의 식민지적 도시변화가 전통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며 식민지를 고착화시키고자 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1. 식민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파괴

일제는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식민지조선을 철저히 장악해 나갔다. 그러면서 조선을 일제의 발전을 위한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그 물질 기반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일제는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面을 말단 행정단위로 설정하면서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했다. 행정구역 통폐합의 목적은 일제가 통감부시기부터 추진해왔던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선에 있던 전통적인 자치조직의 무력화에 있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1913년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1914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府·郡의 통폐합 조치를 단번에 시행하였고, 부역에 속한 농촌 부를 모두 군역으로 이관시켰다. 군의 경우는 317개였던 것을 220개로 통폐합했다. 면의 통폐합은 면의 구역명칭 변경이 道장관의 권한에 속해 있어서 도별로 실시했다. 면의 통폐합은 1914년 4월 1일을 기해 일괄 시행되어 종래의 4,336개의 면이 2,522개로 통폐합 되었다. 그리고 동리의 통폐합은 군·면과 같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어 점차적으로 도별로 진행시켜 1918년 土地調査事業과 함께 종료되었다.⁵⁾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의 南陽郡과 水原郡이 통폐합되어 水原郡으로 편제 되었다. 이로써 수원군청은 관할 범위가 남양군까지 확대되었다.⁶⁾ 이후 일제는 다시 한번 행정구역을 정비하는데, 1917년 面制를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이

5) 김익한,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1 : 1905~1919』, 백산서당, 190쪽, 1999.

6) 당시 통폐합된 수원군은 21개면으로 水原面, 日荊面, 台章面, 安龍面, 梅松面, 峰潭面, 鄉南面, 楊甘面, 陰德面, 麻道面, 松山面, 西新面, 飛鳳面, 八灘面, 長安面, 雨汀面, 儀旺面, 半月面, 正南面, 城湖面, 東灘面 (『朝鮮總督府官報』 1914. 3. 31)

1) 하시야 히로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5)에서 일본의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정을 세가지로 들었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것. 둘째, 재래사회의 전통적 도시 위에 겹쳐지면서 식민지 도시가 형성된 경우. 셋째, 기존 대도시의 근교에 새로운 신시가지지를 건설한 경우이다. 한국의 식민지 도시의 형성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경성이 해당되며, 수원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식민지적 도시변화' 라고 명명하는데는 도시의 변화가 자연스런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근대적 변화가 아니라 보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도시변화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시의 변화이며 식민지 재편과정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민을 위한 도시 개발의 변화가 아닌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의도적 도시재편과정을 말한다.

3) 「특집 : 근대 수원의 도시 발달」, 『水原學研究』 제2호, 수원학연구소, 2005 ; 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水原學研究』 제2호, 수원학연구소, 2005.

4) 한동민, 「일제강점기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水原學研究』 제3호, 수원학연구소, 2006.

때는 府丞으로 일본인 면장을 임명할 면을 지정하여 수원면도 일본인 면장을 임명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수원군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가 수원면의 城內에 설치되었다. 이들 관공서 건축물은 주로 정조 임금때 대역사였던 화성의 부속건물인 華城行宮에 들어섰다.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관공서로는 수원군청, 수원면(수원읍)사무소, 수원경찰서, 수원우편국,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등을 들 수 있다.

식민행정 기관으로서 수원군청이 화성행궁 건물 중 洛南軒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벽을 치고 현관을 만들어 일본식 건물처럼 개조하였다. 당시의 사진에는 건물 앞에 관리의 상징이던 자전거들이 여러 대 놓여있는 모습이 남아있다. 낙남헌은 정조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펼쳤던 과거시험, 양로연 등의 각종 행사가 치러졌던 곳이다. 그 곳에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실무기구를 둔 것이었다. 일제는 낙남헌을 1930년대까지 수원군청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청사를 짓고 옮겼다. 새 청사는 1937년 10월 10일 기공하여 1938년 7월 20일 준공하였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새로운 청사에서 지역민 3백여명과 당시 군수 許燮, 경기도지사, 개성부윤 宋文夏 등이 참석한 가운데 落成式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새로운 청사는 총공사비가 3만 9천 6백 3십원이 들었고, 부지 1천6백99평에 청사는 煉瓦造 일부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建坪은 173평이었고 회의실 및 부속건물이 별도로 지어졌는데 107평 정도였다.⁸⁾ 새로운 청사가 들어 선 곳도 역시 화성의 부속건물 中營이 있던 자리였다. 중영은 화성유수부의 軍務를 담당하던 中軍이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중군은 정3품의 무관으로 처음에는 禿山城의 守城將을 겸하였다가 1798년 外軍總制를 개정하면서 토포사와 친군위 별장을 겸하였으나, 독산성에 別將을 둔 뒤로 수성장의 겸직을 減下하였다. 1801년 화령전의 衛將을 겸하였고, 1802년에는 친군위 별장을 減下하고 다시 토포사를 겸하였다. 1806년 다시 독성 별장을 파하고 중군은 전례대로 독산성 파총을 겸하였다.⁹⁾

7) 『每日申報』, 1917년 10월 3일자.
 8) 『朝鮮日報』, 1938년 10월 12일자.
 9) 畿甸文化財研究院, 『水原 華城內 未復元施設 地表調査 및 考證研究 報告書』, 畿甸文化財研究院·水原市, 28쪽, 2005.



〈그림 1〉 낙남헌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원군청

또한 실질적으로 말단 식민행정을 추진해 갔던 水原面事務所는 1923년 6월 19일 새롭게 신축하여 낙성하였다. 수원면사무소는 팔달문 안쪽에 신축되었다. 면사무소 낙성식에는 신문기자와 지역 유지들을 불러모아놓고 성대하게 축하회를 개최하였다.¹⁰⁾ 면행정력 강화를 위해 水原郡面長會도 결성되었다. 면장들은 水原公立普通學校 강당 등을 빌려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面行政, 勸業獎勵, 財務 등에 관한 것들의 중요한 협의를 하면서 식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¹¹⁾ 1928년에는 일본인 梅原이 수원면장으로 임명된 후 면내 유지와 면협의회원 20여명으로 조직된 水原面行政調査會가 水原公會堂 내에서 발족하였다. 수원면행정조사회에서는 당시 중요한 문제였던 市區改正, 市場合同 등을 협의하며 면행정에 있어서 관민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수월한 식민행정을 추진하려고 했다.¹²⁾ 이러한 면협의회회의 목적은 조선인 유지층들을 포섭하여 면행정에 가담시켜, 면장 중심의 간접적 통치를 통해 식민행정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화성행궁에는 수원군청 뿐만 아니라 慈惠醫院을 비롯하여 土木管區, 경찰서 등이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이용되거나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져 이

10) 『朝鮮日報』, 1923년 6월 30일자.
 11) 『東亞日報』, 1924년 9월 21일자.
 12) 『東亞日報』, 1928년 12월 29일자.

용되었다. 일제는 전통적인 상징을 무너뜨리며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근대를 가장한 이질적인 건물들을 교차시켰다.

일제는 조선의 왕을 상징하던 화성행궁을 무너뜨리며 식민지 행정기관과 병원을 설치함으로써 식민지의 施惠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다. 일제는 1910년 華寧殿에 자혜의원을 설치했다. 화령전은 정조임금의 사당이었으나 1908년 9월 20일 정조임금의 위패와 어진이 덕수궁으로 옮겨지면서 비어있었다. 이후 자혜의원은 행궁의 중심 건물이었던 봉수당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식민지 시혜를 자랑하며 2층의 벽돌 건물이 봉수당을 허물고 지어졌다. 일제는 1910년 화성행궁 봉수당에 수원자혜의원을 설치한 이래 화성행궁의 많은 건물들 가운데 낙남헌만을 남기고 1923년 높다란 벽돌건물의 근대식 병원을 증축하여 경기도립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헐린 조선식 건물과 높다랗고 세련된 근대식 건물의 비교를 통해 일제에 주눅 들게 만들며 식민지 혜택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위생과 청결을 강조함으로써 발달하고 깨끗한 일본과 일본인, 불결하고 개선되어야 할 후진적 조선과 조선인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¹³⁾ 실질적으로 화성행궁은 근대라는 미명의 병원증축으로 거의 모든 부속건물들이 파괴되었다.



〈그림 2〉 봉수당을 허물고 세워진 경기도립수원의원

13) 한동민, 앞 논문, 218쪽, 2006.

화성행궁을 파괴하면서 들어선 또 다른 식민기관은 경찰서였다. 수원경찰서는 화성행궁의 北軍營에 세워졌다. 군영은 장용외영의 기마병이었던 親軍衛가 좌, 우열로 각각 100명씩 入直宿衛하던 곳이었다. 군영은 신평루 좌우에 1789년(정조 13)에 세워졌다. 수원경찰서는 1910년의 전국 경찰 직원 배치표(1910년 8월 26일 제정)를 참고해 보면 경기경무부 소속으로서 경부에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이 두어졌고, 일본인 1명이 통역생으로 있었다.¹⁴⁾ 또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곧바로 수원경찰서는 통합된 수원군 전체를 관할하며 확장되었다.¹⁵⁾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조선지배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19년 8월 무단통치의 수단이었던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었다. 당시 경찰기구의 구성을 보면, 총독부 산하의 경찰통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그 아래에 경무·고등경찰·보안·위생과를 두었다. 그리고 각도에는 도지사 밑에 오늘날의 도경에 해당하는 제3과(후일 경찰부로 바뀜)를 두고 그 아래에 경무·고등경찰·보안·위생과를 두었다. 각 과의 구성원은 책임자인 경시, 그리고 경부 순사부장, 순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수원경찰서는 도경의 제3과 소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1921년부터는 경기도 경찰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1920년 경기도는 경찰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였는데 이때의 수원경찰서 산하로 17개 주재소를 두고, 수원경찰서 직할 관할구역으로는 수원면과 일형면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매산주재소, 천천주재소, 오산주재소, 병점주재소가 각 2개면씩을 관할하고 다른 면에는 각각 1개 주재소를 두고 관할하였다.¹⁶⁾

이밖에 수원에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水原守備隊가 1917년 해체되었다가, 1919년 거센 3·1운동의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설치되었다. 수원수비대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갖가지 횡포를 부렸고 1923년 3월말에 가서야 다시 해체되었다.¹⁷⁾

그리고 수원에 헌병대도 설치되었는데, 1910년 京城憲兵隊司令部는 국내의 전

14) 『警務月報』, 1910년 8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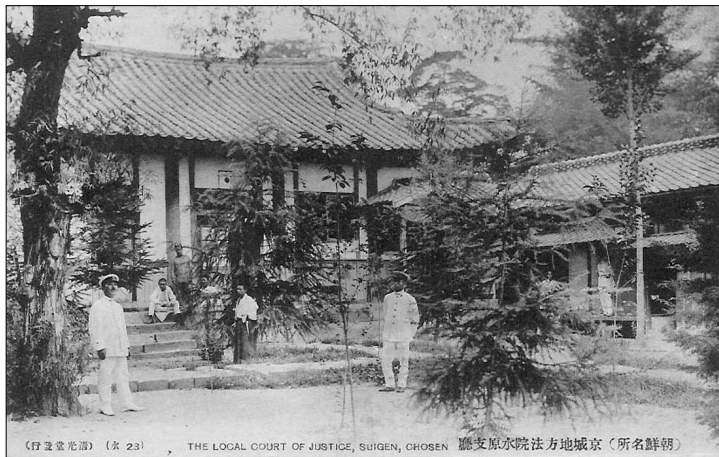
15)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8월 27일.

16)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7월 2일.

17) 『朝鮮日報』, 1923년 3월 24일자.

헌병대를 관할하는 것으로 편제되었다. 이때 수원에 水原憲兵隊가 설치되어 경기도를 구역으로 하였다.¹⁸⁾ 이후 1910년대 후반부터 수원헌병대는 용인헌병분대 소속으로 바뀌면서 수원출장소가 되었다.¹⁹⁾

화성행궁의 부속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용한 관공서로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이 있었다.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은 화성행궁의 부속 건물인 貳衙를 증·개축하여 사용하였다. 이아는 원래 監營이 설치된 지역의 軍務를 맡아보는 관아로 府衙, 또는 貳牙라고도 하였다. 조선의 8도 관찰사는 대개 5품의 都事를 두어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아는 주로 도사가 주재하는 관청이었다. 조선후기 들어 확고해진 4도 유수부는 도사 대신 經歷이나 判官을 두고, 그 설치 여부에 따라 貳衙, 三衙를 설치하였다. 수원유수부의 경우는 판관만을 두었는데 유수영의 從事官과 教授를 겸직하였다.²⁰⁾ 수원지청은 구재판소 시절에는 대체로 이아 건물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수원재판소 시절에 임시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했다.²¹⁾ 그 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바뀐 뒤 1920년 4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이 청식을 성대하게 치렀다.²²⁾



〈그림 3〉 이아를 사용하고 있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8) 『每日申報』, 1910년 10월 12일자.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903쪽, 1971.
 20) 畿甸文化財研究院, 앞 보고서, 27쪽, 2005.

수원에서는 통감부시기 수원재판소가 두어져 1909년 1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했다.²³⁾ 통감부시기 두어졌던 수원재판소는 일제의 조선병합 이후 곧바로 단행한 재판소의 개편과 관할구역 변경으로 1910년 10월 1일 개편되어 京城地方裁判所 소속이 되었으며, 수원재판소의 관할구역은 水原, 果川, 始興, 安山, 南陽, 廣州, 龍仁, 陽智, 振威, 陽城, 安城, 竹山 등이었다.²⁴⁾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과 맞추어 조선총독부는 지방법원 지청의 명칭, 위치 및 사무취급구역을 개정하였다. 이때 수원재판소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관할구역은 수원, 광주, 용인, 진위, 안성으로 정해졌다.²⁵⁾ 다소의 관할구역 등의 변경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수원, 용인, 안성, 진위, 광주의 5군과 인접한 여주지청의 예심사건 등을 관할하였다.²⁶⁾

일제는 이렇듯 각종의 식민지배기관과 근대식 건물을 통해 지배자의 우월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전통적인 왕을 상징하였던 화성행궁과 그 부속건물들을 개축하거나 허물어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식민통제의 이면을 숨긴 채, 식민지의 시혜적 측면과 우월성만을 강조하였다.

2. 식민지적 도시 변화와 화성의 수난

경기도의 수부였던 수원은 전통적인 성곽도시로써 화성이 축조된 이후 신읍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성안을 구획하는 도로는 전통적인 도시구획 방법에 따라 십자형 도로가 개설되었다. 십자형 도로는 수원읍의 핵심적 교통로로, 하나는 북문인 장안문에서 남문인 팔달문을 가로질러 천안으로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문인 화서문 부근에서 동문인 창룡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것이었다. 읍치는 십자로가 교차하는 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시가 형

21) 『每日申報』, 1911년 7월 19일자.
 22) 『東亞日報』, 1920년 4월 17일자.
 23) 酒井政之助, 『水原』, 22쪽, 1923.
 24)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25)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3월 26일.
 26) 酒井政之助, 앞의 책, 22쪽, 1923.

성과 상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로변에 상가를 조성하여 경성과 팔도의 부호를 유치하여 장시를 개설토록 했다. 이 때문에 '팔부자 거리'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들은 주로 종로 사거리와 장안문을 잇는 대로변에 상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팔달문 성내외로 시장이 형성되며 상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행정과 농업연구,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수부로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수원의 가장 큰 도시변화를 몰고 온 것은 경부선 철도의 부설과 축만제 옆의 권업모범장의 설립이었다. 경부선 철도의 부설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의 확대와 신작로의 건설 및 일본인 거리를 만들어 냈다. 또한 권업모범장의 설립으로 화성의 유산인 축만제 주변의 둔전 등이 일본인 대지주회사들에 불하되었고, 많은 일본인 농업 이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수원역 근처에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일본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10년대 이후 수원군에는 8백여호의 3천여명의 일본이 거주하였다. 1920년대말 2천9백여명이던 것이 1930년 이후에는 3천여명을 넘어서며 1930년대까지 3천4백여명의 일본인이 수원군에 거주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주지와 화성내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살았다.

〈표〉 수원지역 호구변동과 일본이주민의 증감²⁷⁾

年度	朝鮮人				日本人				
	戶數	男	女	計	戶數	男	女	計	
1909	水原郡	15,352	39,375	35,286	74,661				
	南陽郡	9,889	25,954	22,927	48,881				
1910	水原郡	15,483	39,449	35,575	75,024	364	705	532	1,237
	南陽郡	10,001	26,010	23,203	49,213	14	19	8	27
1911	水原郡	15,316	40,035	36,943	76,978	399	786	656	1,442
	南陽郡	10,479	27,943	25,212	53,155	27	36	18	54

27)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1909년에서 1930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1912년부터 1916년까지의 자료는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를 참고로 작성했다. 1914년 이후는 수원군과 남양군이 행정구역상 수원군으로 통합되어 합쳐진 것을 나타낸다.

1912	水原郡	15,583	42,748	41,059	83,807	494	1,029	837	1,866
	南陽郡	10,408	27,589	26,028	53,617	25	29	15	44
1913	水原郡	15,796	44,094	41,736	85,830	653	1,339	1,114	2,453
	南陽郡	10,793	29,157	27,539	56,696	27	34	23	57
1914		23,294	66,104	58,207	124,311	759	1,559	1,262	2,821
1915		23,854	66,112	62,638	128,750	734	1,390	1,151	2,541
1916		24,419	67,089	64,838	131,927	775	1,480	1,209	2,689
1917		24,509	67,289	65,247	132,536	874	1,552	1,286	2,838
1918		25,381	69,712	66,382	136,094	757	1,594	1,224	2,818
1919		25,299	69,933	66,859	136,792	758	1,605	1,324	2,929
1920		25,668	70,617	67,194	137,811	785	1,695	1,413	3,108
1921		25,842	71,277	67,875	139,152	839	1,753	1,462	3,215
1922		25,918	71,110	67,564	138,674	904	1,755	1,548	3,203
1923		26,091	70,697	66,853	137,550	858	1,672	1,543	3,215
1924		25,662	71,292	67,764	139,056	822	1,645	1,482	3,127
1925		26,240	73,712	70,381	144,093	792	1,600	1,441	3,041
1926		26,338	73,824	70,900	144,724	787	1,634	1,447	3,081
1927		26,103	74,069	70,409	144,478	807	1,696	1,606	3,302
1928		26,131	73,419	70,432	143,851	815	1,658	1,529	3,187
1929		26,117	73,083	69,594	142,677	820	1,676	1,552	3,228
1930		27,191	76,319	72,767	149,086	819	1,799	1,609	3,408

일제가 본격적으로 식민통치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조선의 많은 이권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넘어갔다. 더구나 새로운 서양문물의 유입 속에서 철도건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철도는 한말 일본이나 서양문물을 시찰한 개화론자들에 의해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이후 신식과학 기계문명이 점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철도는 조선과 일본의 공동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892년 7월 일본은 서울과 부산간, 서울과 인천간의 철도실사 및 측량을 군대의 비호를 받으면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1894년 7월에 서울과 인천, 서울과 부산간의 철도부설을 계획하였다. 일제의 철도부설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군용 철도로 대륙침략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마산포선 등이 복잡한 이면사를 간직한 채 일제의 의지대로 부설되었다.

그 중 경부선은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이었다. 이 노선으로 수원도 근대화라는 미

명아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경부선은 1901년 9월 21일 서울 영등포에서, 같은 해 9월 21일 부산 초량에서 일본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기공되어 4년 후인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고,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경부선이 수원을 통과하기까지는 노선 선정과정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일본은 경부철도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5회의 대규모 현장 답사를 실시했는데, 1, 2차 답사 때 경부선 노선은 서울-용인-죽산-청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고, 3차 노선 답사 때는 노량진-영등포-수원-공주-논산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1,2차 답사 노선은 서울-부산을 최단거리로 연결시키려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고, 3차 노선 답사는 상공업이 발달한 경제 선진지역을 관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결국 4, 5차 답사를 거치면서 군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금의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었다. 수원구간은 경부철도의 안양 명학동에서 진위구간의 제2공구로 선로 거리는 22마일이고 1902년 7월에 착공하여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명학동에서 수원 구간은 1903년 10월경 공사용 건축열차가 운행되었다.²⁸⁾

그런데 수원지역에서도 지금의 서수원쪽 노선으로 철도가 통과하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애초에 일본의 건설회사는 사그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지지대 고개의 서쪽산에 터널을 뚫고 대유평을 거쳐 화서문 밖, 팔달산 기슭을 뚫고 상류천, 대황교 동편으로 나가는 노선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지지대 노선이 정조의 역사성이 깃든 지지대비와 화령전이 있는 팔달산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1902년 4월 28일 이러한 이유를 들어 유기환 철도원 총재가 지지대 터널 공사 반대외사를 전달하고, 수원지역 민들이 팔달문 밖에 모여 철도는 지지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반대 시위를 하였다.²⁹⁾

이렇듯 공사구간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지역민들의 반대 속에 일제는 처음 지지대 노선을 포기하였고, 오늘날 이어져 있는 경부선 수원 지역 통과 노선을 확정하였다. 경부선 철도 부설에 따른 수원지역민의 의지는 정조대이후 수원지역의 문화적 정통성을 지켜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지대와 화령전의 훼손을 막은 것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28)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64~165쪽, 1999.

29) 김찬수, 「일제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 『水原學研究』 2호, 水原學研究所, 16~18쪽, 2005.

이후 1928년 수원역사가 전통기와 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1928년 9월 1일 역사가 개통되었다. 새로 지어진 수원역사는 공사기간 1년여 동안 7만원을 들여 준공하였다. 개통 다음날 2일에는 관민유지 등 2백여 명이 새로운 역사 대합실에 모여 성대한 축하연이 벌어졌다.³⁰⁾ 당시 일제는 '순전히 조선식으로 만든 아름다운 수원역사'라며 식민지배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1931년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과 1937년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개통되었다. 수여선은 쌀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인선은 경기만의 염전에서 소금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되었다.



〈그림 4〉 1928년 새로 신축한 수원역사의 모습

지방도시의 경우 철도는 도시외곽을 통과하였지만 철도 역사가 생기면서 역 주변은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수원지역도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어 운행되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인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13년경 수원역 주변에는 2,675호, 11,39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본인이 381호, 1,303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내에 사는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수원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의 형성한 것이었다.³¹⁾

30) 『東亞日報』, 1928년 9월 2일자.

31) 성주현, 앞 논문, 196쪽, 2005.

일본인이 급증하자 일본인 거류지에는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 조성되었다. 일본인들은 1905년 일본인회를 설립한 바 있었는데, 이는 학교조합으로 개편되었고 1906년 9월에는 水原居留民立小學校를 설치하였고, 1906년 10월 8일 7명의 학생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이후 1907년 폭발적인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수원역과 가까운 팔달산 남쪽에 1908년 1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수원지역 일본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원거류민립소학교는 1910년 5월 31일 水原學校組合立 水原尋常高等小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12년 4월 1일 水原公立尋常高等小學校로 개칭되었다. 일본인 소학교 위쪽의 팔달산 중턱에는 1917년 水原神社가 설치됨으로써 일본인소학교와 수원신사는 일본인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구심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였다. 특히 팔달산 서쪽으로 일본인소학교, 수원역, 권업모범장 등을 일본인들의 공간으로 확정하였다.³²⁾

수원지역은 조선후기 정조 임금때 화성성역과 함께 농업진흥책으로서 水利를 위한 堤堰이 조성되었다.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농업생산 시설로 萬石渠, 祝萬堤 등의 관개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근에 드넓은 국영농장 屯田이 설치되어 선직적 협동영농의 농업진흥책이 실시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농업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농업정책 기구인 勸業模範場을 1906년에 설치하였다. 권업모범장은 西湖 옆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정조대 국영농장 둔전이 경영되어 왔던 곳이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곡물 종자를 강제로 바꾸며,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농업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권업모범장의 주요사업을 보면, 산업의 발달개량에 필요한 조사와 시험,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 및 감정, 그리고 種子·種苗·蠶種·種禽·種畜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와 강의 등이었다. 권업모범장의 설치의 결과적으로 米穀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높여 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권업모범장의 농업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일본인 지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32) 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학교」,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학교출판부, 182쪽, 2008.

33)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水原지역을 중심으로-」, 『史林』 24호, 首善史學會, 180~182쪽, 2005.

어졌다. 일제 농업정책의 충실한 수행자였던 일본인 지주들은 1906년부터 권업모범장 주변에 농장을 설치하여 대규모 소작경영을 시작했다.³⁴⁾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일본인 대지주들은 國武合名會社와 東山農事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들이었다. 이들은 수원지역의 각 면에 대규모 농장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쌀농사에 돌입했다. 일본인 대지주들이 수원에 본부를 두고 대규모 농장을 설치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경성·인천 등과 가깝고 철도의 이용이 편리한 것과 권업모범장이 있어 농사경영에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농장규모는 1938년에 조사된 『京畿道地主名簿』를 통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동척농장은 1,190정보에 2,117명의 소작농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농사주식회사의 동산농장은 1,125정보에 1,512명, 국무합명회사의 국무농장은 370정보에 518명의 소작농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일본인 대지주들은 조선인 지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그리고 많은 소작농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농장에 고용되어 있는 소작농들은 정해진 토지 속에 매우 긴박해 있었다. 결국 이들 일본인 지주들은 정조대의 전통적인 농업적 기반을 수탈하여 수원지역 소작농들을 지배해 갔다. 그 과정에서 소작권 이동, 소작료 인상 등의 강압적 지배가 이루어졌고, 수원지역 민들은 소작쟁의를 발생시켜 끊임없이 저항하였다.³⁵⁾

수원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의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상권의 침탈도 심각했다. 수원지역의 일본인 지주들은 부업으로 상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이득을 높여갔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수원지역의 중요한 상권이 일본인에게 잠식되었다. 더구나 수원면에서 수원읍내를 중심으로 심각하였는데, 수원면내의 시장에서 중요한 상점들의 운영은 거의 일본인들이 점유해 갔다.³⁶⁾ 1920년대에 이르러 수원 상업계는 점포수가 5백여개로 증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수원 상계는 상인을 중심으로 실업협회를 조직하고 회두 1명, 부회두 2명, 상의원 5명, 평의원 20명과 상담법률 및 고문 등을 둘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일치협력 활동으로 조선 우수한 상업중심

34) 酒井政之助, 『發展せる 水原』, 34~35쪽, 1914.

35) 이동근, 앞 논문, 188~189쪽, 2005.

36) 酒井政之助, 『水原』, 123~126쪽, 1923 ; 부록의 '水原商工業者著名案内'에는 수원면을 중심으로 한 60여개의 상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의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주요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지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수원의 상업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³⁷⁾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의 변화와 지배구조는 도시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상업 시설 중 근대건축과 관련해서는 수원지역에 권업모범장으로부터 직접 배부되던 종묘와 종자를 보급 판매했던 富國園이 있었다.³⁸⁾ 부국원은 주식회사로서 일본인 伊原五郎兵衛 외 7명(자본금 150,000원)이 신청하여 설립 허가되었다.³⁹⁾ 그리고 1916년 4월 3일 창립하여 수원면 산루리에 사무실을 두었다. 주로 종묘와 종자의 판매를 하며, 농기구와 비료의 판매 및 농산물매매 등의 영업을 하는 일본인 주식회사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20년대에는 순이익이 매년 1만원이 넘는 회사로 발전했다.⁴⁰⁾ 1930~40년대에는 자본금이 30만원, 불입금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여전히 대규모 회사를 유지했다.⁴¹⁾

부국원과 더불어 1930년대에 와서는 조선인 유지들이 종묘와 종자보급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萬種園이다. 만종원은 1932년 1월 10일 설립되었고 사무실은 수원읍 매산리에 두었다. 자본금 2만원에 불입금 5천원으로 시작했고, 대표는 洪思先이 맡았다. 그리고 洪壽得, 朴慶緒, 李丙旭, 洪壽福 등이 중역으로 참가했다. 만종원은 종자와 묘목의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농구의 제조 및 판매와 그에 따르는 부대사업 등의 일체의 농업관련 영업을 추진했다.⁴²⁾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에는 불입금이 2만원에 달했으며, 대표는 당시 수원지역 3대 지주 중의 한 사람인 洪思勳이 맡았으며, 洪達善, 洪壽福이 대주주로 있었다.⁴³⁾ 이후 1939년에는 자본금이 7만원, 불입금이 7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발전해갔다.⁴⁴⁾

수원의 도시변화를 크게 가져온 것 중의 하나는 금융기관 등의 설치였다.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근대식 건축물을 짓고, 경제적 불평등 관계를 조장하면서 화성 성내

외의 외형적 모습을 바꾸어 버렸다.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한성은행 지점, 주식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 수원금융조합, 화성금융조합 등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朝鮮殖産銀行令'을 1918년 6월 7일 공포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1918년 10월 1일 조선식산은행이 자본금 천만원으로 설립되어 農工銀行을 합병하였다.⁴⁶⁾ 조선식산은행 본점은 경성부 남대문동 2정목 40의 1에 설치되었고, 각 지방에 인천, 수원 등에 지점을 설치하였다.⁴⁷⁾ 이때 수원지점은 1919년 4월 1일 수원역 앞에 설치되었다.⁴⁸⁾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했던 산업금융기관이었다. 중일전쟁 이후는 채권 발행이나 강제저축을 통해 조선 내 자금을 흡수했고, 유가증권 인수나 대출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전쟁비용을 조달하거나 군수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⁴⁹⁾

그리고 漢城銀行은 1903년 2월 7일 설립되었다. 본점은 경성부 남대문동 1정목에 설치되었고, 각 지방에 수원, 평양, 대전, 개성, 경성남대문, 부산, 동경, 경성동대문 등에 지점을 두었다.⁵⁰⁾ 한성은행 수원지점은 수원 성내에 위치했는데 1934년 5월 급사 1명을 채용코자 했는데, 인기가 높아 25명이 응모하기도 했다.⁵¹⁾

또한 일제는 정책적으로 금융조합을 설치하였다. 금융조합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상품생산 조직 아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소생산자(또는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합쳐진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금융조합은 대한제국 재정고문이었던 目賀田種太郎의 구상에 따라 식민기관의 하나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중심에 두고, 관계협동조합으로서 시기에 따라 강화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을 거쳤다.⁵²⁾ 이러한 과정 속에 수원지역에서도 금융조합이 설립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華城金融組合과 水原金融組

37) 성주현, 앞 논문, 195쪽, 2005.
 38) 酒井政之助, 앞의 책, 108쪽, 1923.
 39)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4월 19일.
 4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 214쪽 ; 당시 회계자료인 대차대조표 상에 당기순이익이 1926년 12,720엔, 1928년은 10,375엔으로 나와 있다.
 4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년판), 참조.
 4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참조.
 43)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7년판), 참조.
 44)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9년판), 참조.

45)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6월 7일.
 46)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10월 9일 ; 『每日申報』, 1918년 10월 2일자.
 47)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참조.
 48)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4월 5일.
 49)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433쪽, 2004.
 50)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참조.
 51) 『東亞日報』, 1934년 5월 20일자.
 52) 최재성, 「1920년대 민족분열정책기 금융조합의 인적구성」, 『史林』 23, 144쪽, 2005.

습이다.

화성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금융조합으로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화성금융조합은 1907년 10월 8일 설립하였고 수원을 山樓里에 사무실이 있었다. 처음에는 수원지방금융조합이라고 명칭하고 수원, 용인, 진위 3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1919년에 화성금융조합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이때 사업구역도 남양, 용인, 오산, 수원, 신갈 등으로 확장하였고, 1930년대에는 수원읍 외 6개면을 사업구역으로 하였다. 화성금융조합은 1933년 반월지소를 설치하는 등 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주로 조합원들의 영농법 개선, 산업자금의 융통 등에 주력하였으며, 郡面 당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면서 금융업무 외에 殖産契의 지도에 가장 큰 힘을 기울였다. 사업구역내에 養牛殖産契를 설치하였는데 1930년대 식산계가 6개, 양우식산계가 181개나 되었다. 그리고 농촌진흥회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업을 장려하였고, 養畜, 繩叭 등을 통한 이익의 증대에 주력하였다. 또한 부인의 가사 외의 노동을 권장하고, 공동판매, 공동구입을 장려하는 등의 사업을 벌였다. 화성금융조합의 역대 간부로는 조합장에 崔東弼, 金禧景, 金禎植, 金南韶, 韓翼教, 宋秉滉, 李弼商 등이 역임했으며, 이 중 이필상은 1914년 이후부터 평의원에 선출되어, 감사 등의 중역을 맡았고, 1936년 7월 조합장에 올랐다. 이필상은 1876년 12월 10일 수원군 일왕면 하광교리 태생으로, 1919년부터 일왕면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사로는 矢後啓三, 牧田清吉, 平山敏夫, 尙茂一, 山口喜一, 今村勇吉, 尾崎俊甫, 林宗佐, 稅所珪介, 川村與三郎, 高橋昌治, 坂野廣太郎, 高島隆助, 西菊馬, 朝倉一彌 등의 일본인 유지들이 주로 운영에 참여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⁵³⁾ 이들은 수원지역 경제계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었다.

수원금융조합은 1919년 2월 13일 설립하여 수원을 산루리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1918년 6월 都市金融組合에 관한 制令이 반포되자 수원지역의 원로로 대접받던 일본인 株野中末吉과 수원지역 유지 20여명이 발기하여 창립준비를 진행하여 경기도내 최초의 도시조합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수원읍 외 주위의 9개리를 그 사업구역으로 했다. 역대 조합장은 梁聖寬, 車裕舜, 洪思勛, 李光鉉 등이었다. 이사

는 今村卯太郎, 奥田種彦, 牧田收藏, 赤木直枝 등이 관여하였다. 수원금융조합은 1922년경에는 조합원이 327명이었고, 1927년경에는 365명이었다. 수원금융조합에 관계한 조합장들은 당시 수원지역의 3대지주로 불렸던 인물들과 대지주들이었다. 이 중 李光鉉은 1913년 京城普成高等學校를 졸업하고, 일찍이 수원면협의원을 지내 지방행정에 밝았으며, 주식회사 第一社 전무이사 및 京畿産業株式會社 이사를 역임하고, 鐵道局運輸委員會의 촉탁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19년 4월 수원금융조합 평의원에 선임된 이후, 1935년 4월 추대되어 조합장이 되었다. 이사로는 주로 일본인 유지층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중 赤木直枝는 1917년 3월 拓殖大學을 나오고 조선으로 들어 온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加平, 素砂, 抱川, 長湖院 등지의 각 조합 이사로서 금융조합에 처음부터 관여해 왔던 인물이었다. 1931년 1월 수원금융조합으로 옮겨 활동하게 되었고, 1937년 8월 朱安組合으로 옮겨왔다. 그는 일본의 長崎懸 嚴原 사람으로 1895년 1월 출생이다.⁵⁴⁾ 실제 수원금융조합의 경우에는 많은 조선인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근대를 상징하는 우편업무로 水原郵便局이 설치되는데 1905년 6월 12일 朝鮮郵便司 및 電報司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京城郵便局 水原出張所로 설치되었다. 이후 통신에 관한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1906년 7월 1일 출장소는 수원우편국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1914년 7월 4일 새롭게 우편국 청사를 신축했고, 1923년에는 다시 전화교환실 및 기타건물의 확장공사를 시행했다.⁵⁵⁾

수원면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식민지 근대건축물은 자혜의원, 권업모범장과 부속 기관들의 건물, 부국원, 만종원 등의 상업건물, 금융기관이었던 한성은행 수원지점, 식산은행 수원지점, 그리고 수원금융조합, 화성금융조합, 또한 우편업무를 담당했던 수원우편국 등이었다. 이런 건물들은 외형적으로 화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수원읍의 도시적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

1943년의 수원을 지도를 보면 도시적 변화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원역에서 향교 앞으로 일직선의 도로가 만들어져, 일본인 거리인 신작로를 형성하였다. 수원역 앞에는 조선운송회사 수원지점, 화성자동차회사, 경동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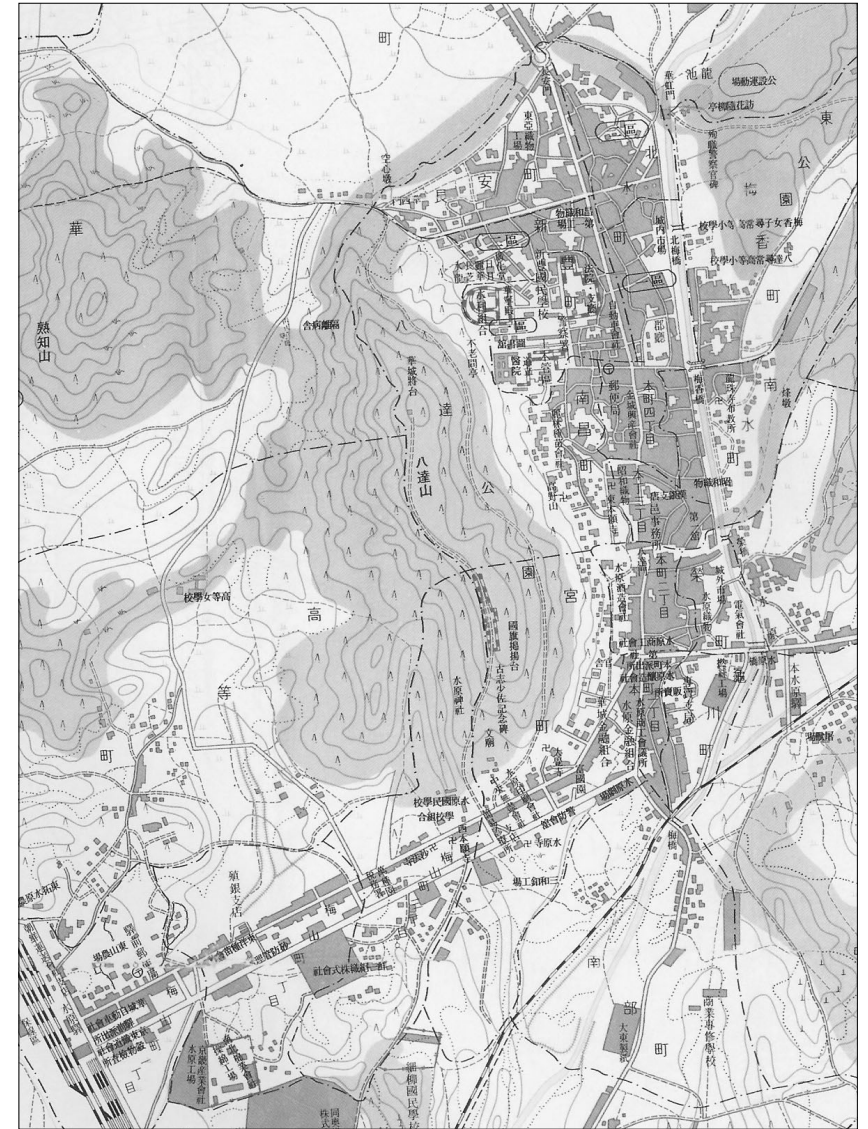
54) 藤澤清次郎, 앞의 책, 634~635쪽, 1937.

55) 酒井政之助, 앞의 책, 7~8쪽, 1923.

53) 藤澤清次郎, 『朝鮮金融組合과 人物』, 大陸民友社, 153~154쪽, 1937.

사, 동산농장, 역전 우편국이 있었으며, 梅山町의 새로 생긴 신작로를 따라 식산은행 수원지점, 동양종묘회사, 만종원, 세무서, 부국원, 수원극장, 화성금융조합, 수원금융조합, 수원상공회의소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성내에는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경기도립의원, 토목관구, 경찰서, 도서관, 수리조합, 법원지청이 있고, 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는 우편국과 수원군청이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 바깥쪽으로는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그리고 화홍문에서 매향교 중간의 北水町에 성내시장이 있고 팔달문 밖으로 성외시장이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였다.

또한 향교 위쪽의 팔달산에는 水原神社, 일본인 군인 古志少佐記念碑, 국기계양대 등을 조성하였는데 조선의 정신적 상징인 鄕校 위쪽으로 1917년 수원신사를 높게 세우면서 팔달산에 조선인의 신성성과 상징성을 허무는 일을 자행하였다. 더욱이 일본인 군인인 古志少佐 기념비를 팔달산에 세우고, 일장기가 높이 펄럭이는 국기계양대를 팔달산 정상에 세움으로써 팔달산의 상징을 일본화하였다. 또한 팔달산공원을 조성하여 팔달산을 일상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팔달산에 대한 조선인의 이미지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꾸어 버렸다.⁵⁶⁾



〈지도〉 1943년 수원읍 중심 지도

이렇듯 도시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건물과 길이 만들어 지면서 화성의 석재가 건축자재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수난이 시작되었다. 식민지적 도시변화 속의 화성의 방치와 파괴는 다음의 기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⁵⁷⁾

56) 한동민, 앞 논문, 188쪽, 2006.

57) 『朝鮮日報』, 1927년 7월 20일자.

무너지는 水原城
水原支局 一記者
沒落의 訪花隨柳亭

面當局은 前年以來로 城壁을 무너서(허물어서) 建築材料 또는 下水道 溝修築 石材로 提供하여 온다. 市街 發展上 障礙가 되는 것을 달리 有用하게 쓰이는 異意가 無한바이나 그래도 古蹟保存 및 市街 美觀 등에 開通되는 점은 考慮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원래 水原城은 朝鮮各地에 散在한 城壁 중 가장 最新한 城壁術과 莫大한 精力과 金力을 다하여 築造한 精固無比한 城壁이라하며 현금에 가장 完전하게 保存되었던 것이다. 그 雄大한 形態와 偉觀巧妙極致한 配置와 技巧! 市街의 美觀을 모도와 裝飾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城壁을 본 자의 同感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금번 무너져가는 態度를 보면 차등의 모든 美點과 古蹟에 대한 誠意가 조금도 없는 것 같다. 八達門=九間水間, 八達門=二間水間은 市街發展上 障礙가 있음으로 무너버림이 당연한 듯하나 ‘남광루’ 쪽은 시가발전상 하등의 障礙가 無할뿐 외라 오히려 市街偉觀을 添加하는 長點이 있음에 불구하고 무너버린 것을 보면 古蹟이든 무엇이든 전혀 度外視하고 그저 人부들의 作業上 便宜나 爲主한 듯하다.

그 혈린 터전을 보매 前날에 봤든 高雅偉壯한 詩的感興은 그 간곳이 없고 오직 醜卑한 그 꼴이 보기에 실증이 나고 愛惜한 情, 悲憤한 感慨가 뒤를 이어 世事의 無常함을 嘆하게 될뿐이다.

이미 깨어진 그릇이야 어찌하랴! 남은 그릇이나 깨뜨리지 말기를 바라노니 大里坪에서 水原을 展望할 때 맛보는 訪花隨柳亭! 華西門 간의 優雅, 雄壯한 風光이든 ‘남광루’ 로부터 烽火臺를 지나 蒼龍門까지 城壁外部로 散步하는 중에 있는 感興 등이야말로 과연 苦惱에 찌들린 우리의 靈肉의 安息處이며 그는 끝까지 保存할 우리의 것임은 重論을 要치 않은 것이다. 이 무너져가는 城壁 문제는 細少한 枝末의 문제인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터에 찢리는 자리는 자못 큰 것이다.

沒落의 訪花隨柳亭

水原은 다른 곳에 못하지 않게 名勝古蹟이 많았으나 하나 들썩 비와 눈에 무너지고 바람에 쓰러지고 모진 사람의 손에 시달려 그 형체를 감춘 것이 殆半이고 겨우 形容만 남은 것이 몇 개 있데야 또한 그 명맥이 몇날이 남지 못하였다. 訪花隨柳亭이 그렇고 -華寧殿-練武臺 등이 그렇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訪花隨柳亭이나 華虹門이 유실된 후 짝 잃은 그는 눈물 겨운 그의 외로운 자태를 쓸쓸히 자랑터니만 이제는 그나마 만일 지금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올 장마를 無故히 잘 넘길까하는 疑惑과 憂慮가 누구나 그의 形容을 본 사람에게는 다 생길 것이다. 柱礎가 틀러지고 마루가 빠지고 기둥이 어그러지고 기와가 벗겨지고 집채가 기울어진 그 꼴이야 어찌 이다지 沒落하려는가.

水原이여 왜 그렇게까지 沒落하게 내어버려두는가 내 祖上의 피와 땀으로 남기어 놓 그는 水原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냐?

그는 그만두자 내가 봄에 봄맞이하러 여름에 더위 잊으러 가을에 들 구경하러 겨울에 눈 구경하러 心火날 때 화풀이하러 가는 그곳을 어찌 이다지도 沒落하게 放置하는가. 그것이 있음으로 水原이 얼마만한 慰安을 받았으며 얼마나 水原에 대한 愛着이 깊었던가 水原이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금자리! 訪花隨柳亭의 沒落을 막자! 우리의 誠意와 努力만 있으면 그를 다시 되잡을 수 있나니 成服後藥方文格이 되지 말기를 깊이 깊이 바란다.

이 기사를 통해 화성의 성벽을 허물어서 건축재료 또는 하수도 자재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성 성벽이 정제된 돌로써 이용하기 편했고, 이동 거리가 짧았던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화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중요하게 1920년대 대홍수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南水門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허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성에 대한 방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있다. 訪花隨柳亭, 鍊武臺, 華寧殿 등이 방치 속에서 기둥이 어그러지고, 기와가 벗겨지고 건물이 기울져가는 형국에 놓여 있었다.

이후 1929년에 와서 방화수류정은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중수를 시작하였다. 지역 유지들은 중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수원지역 3대 지주였던 부호 梁聖寬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에는 車裕舜이 임명되어 2천5백원의 예산을 들여 기울어져가는 방화수류정을 중수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⁸⁾

일제강점기 화성의 모든 시설물들이 방치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복구되었던 대표적인 화성의 시설물은 앞서 얘기한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58) 『東亞日報』, 1929년 3월 11일자.

이었다. 1924년 수원군 官民회의에서는 1922년 대홍수로 멸실된 華虹門(北水門)을 복원하기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관민회의에서는 수원군수와 수원면장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화홍문 기초공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고 화홍문 복원에 들어갔다.⁵⁹⁾ 화홍문 복원에는 지역유지들의 동정금과 총독부의 지방비를 보조받아 석재 8천원, 건축 2천원 등 1만원의 공사비로 일본인 업자에게 낙찰되어 1926년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었다.⁶⁰⁾ 화홍문은 일찍이 대한제국의 일원권 화폐에도 등장했던 명소였다. 화홍문은 지역유지들의 노력으로 7개의 수문이 복원되고 누각이 새로지어져 완성되었다. 화홍문은 당시 방화수류정과 함께 화성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았다. 칠간수에서 흐르는 무지개 빛 물줄기는 수원팔경의 하나인 ‘華虹觀漲’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⁶¹⁾

화성의 몇 시설물들은 도시계획으로 방치와 파괴가 되었지만 또 다른 몇 개의 시설물들은 역사가 깃든 명승지로 알려졌다. 수원의 명승고적은 八達門, 華城將臺, 東將臺, 華虹門, 訪花隨柳亭, 華寧殿, 西湖, 禿城山城 등이었다.⁶²⁾ 이 외에도 화령전의 老松과 孔子廟(鄉校), 華西門, 長安門, 北池(萬石渠), 蒼龍門, 烽爐臺(烽墩), 遲遲臺, 龍珠寺, 花山陵 등도 명승지로 이름이 나있었다.⁶³⁾ 그러나 이 명승지들은 대부분이 잘 보호되지 못했다. 보존에 대한 노력보다는 방치되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잃어 갔던 시설물들이 더 많았다.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는 수원팔경으로도 회자되면서 사람들의 예찬의 대상이 되었다. 화성 축성이후 정조임금은 화성과 어우러지는 수원의 경치를 봄과 가을로 나눠 ‘水原春八景’과 ‘水原秋八景’으로 그려 기록으로 남겼다.

水原春八景⁶⁴⁾

花山瑞靄(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화산의 정경)

柳川晴烟(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

午橋尋花(꽃놀이가 한창인 매향교)

59) 『東亞日報』, 1924년 5월 30일자.

60) 『東亞日報』, 1925년 3월 9일자.

61) 『東亞日報』, 1926년 7월 29일자.

62) 『東亞日報』, 1927년 1월 22일, 23일자.

63) 酒井政之助, 앞의 책, 61~69쪽, 1914 ; 酒井政之助, 앞의 책, 87~97쪽, 1923.

64)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지명총람』, 249~255쪽, 1999.

吉野觀桑(뽕나무숲 아름다운 관길야)

新豐社酒(향음주례가 행해지는 신평루 광경)

大有農歌(농요소리 드높이 농사가 한창인 대유둔의 들녘)

華郵散駒(말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영화역의 풍경)

荷汀泛鷁(연꽃 사이로 물새가 떠다니는 연못 정경)

水原秋八景

虹渚素練(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 장쾌한 화홍문의 경관)

石渠黃雲(만석거 주변의 황금 물결)

龍淵霽月(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밤의 용연)

龜巖返照(저녁별 찬란한 구암의 경치)

西城羽獵(가을 사냥이 한창인 화서문 밖의 풍경)

東臺畫鵠(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

閒亭品菊(국화꽃 벌여놓고 완상하는 미로한정의 가을 풍경)

陽樓賞雪(늦가을의 화양루 눈 구경)

그것이 한말에서 일제강점 전후로 ‘水原八景’으로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수원팔경은 여러모로 알려져 유명한 관광명소로 부각되었다. 1910년대 회자된 ‘수원 팔경’은 다음과 같다.⁶⁵⁾

‘八達晴嵐, 西湖落照, 花山躑躅, 華虹觀漲, 光教積雪, 北池賞蓮, 南堤長柳, 龍池待月’

수원팔경은 시인에게는 시를 짓고, 화가에게는 그림으로 그려져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회자되었다.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된 수원팔경을 주제로 한 시조를 소개해 본다.

詩調 水原八景(一)⁶⁶⁾

劉道順

華虹觀漲

65) 酒井政之助, 앞의 책, 72~73쪽, 1914.

66) 『朝鮮日報』, 1925년 12월 18일자.

일곱문구는 물이 부서져 구슬되면
 한울은 햇빛 보내 무지개 걸어주니
 님께선 하 좋다하여 華虹門 세웠더라
 龍池待月
 기다림의 달이뜨니 못 붓어 뛰노는다
 잔물결 그린 바람 풀 향기 품어있네
 漁舟에 불이 켜오니 별레도 꿈꾸나니
 西湖落照
 맑은 물이 넘치오니 瀑布가 되온지라
 갈맷 갯버들 숨에 피꼬리 노래 아뢰니
 杭眉亭 夕陽 밑에는 金波가 춤춘는다
 八達淸嵐
 보나니 無心靑松에 바람만 맑을시고
 듣나니 行宮左址에 부영새 설리운다
 인생은 한꿈이런가 古수이 이리도 다르니

이후에 오늘날 정리되어 알려진 수원 팔경은 다음과 같다.⁶⁷⁾

光教積雪(흰눈 덮인 광교산의 장관)
 北池賞蓮(연꽃 곱게 피어난 북지)
 華虹觀漲(장쾌한 물보라가 넘쳐나오는 화홍문)
 龍池待月(방화수류정 옆 용연에서의 달맞이)
 南堤長柳(남제의 긴 버드나무 숲길)
 八達淸嵐(안개에 감싸여 신비로운 팔달산)
 西湖落照(해질녘 낙조 드리운 서호)
 花山杜鵑(진달래 흐드러지게 핀 화산)

이렇듯 일제강점기에도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는 일부 화성의 부속 시설물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랑받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시의 변화 속에 화성 내외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더구나 철도의 개통에 따른 교통의 변화는 지역민의 삶을 많은 부분 바꾸어 놓

았다. 수원역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신작로가 만들어 지면서 일본인 거주지와 거리가 형성되었고, 성내외에는 각종 관공서와 금융, 상업적 근대적 건축물들이 들어서 도시 미관을 바꾸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정조대 축조된 화성은 방치 속에 수난을 겪게 되었다. 더 이상 도시의 중심은 화성이 아니었다. 명승고적으로 이름이 높았던 화성의 몇 개의 부속 시설물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벽의 돌들은 고의로 무너뜨려져 도로와 하수도 건축 자재 등으로 사용되었다.

맺음말

일제는 식민지 도시건설을 시행하면서 施惠적 측면과 더불어 식민지배자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대부분의 식민지 사업과 관공서의 설치는 식민지 백성을 위한 사업임이 강조되었다.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도시 변화는 전통적 도시의 상징인 화성과 부속 건물들이 훼손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식민지 건설의 희망인 것처럼 포장되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왕을 상징했던 건물이었던 華寧殿과 華城行宮에는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전통 보다는 식민지의 혜택이 강조되었다. 화성행궁의 상징적인 봉수당 건물이 헐리고, 근대식 벽돌건물의 병원이 들어섰다. 또한 낙남현은 식민지배기구인 수원군청이 들어서고, 북군영에는 경찰서가 들어섰다. 화성행궁의 부속건물이었던 貳衛 건물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사용되다가 헐리었다. 이것은 일제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여 식민지 비용 절감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것을 묵살하며 그 위에 식민지배자로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했던 의도가 더 지배적이었다.

식민지 도시변화는 교통의 변화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대륙침략을 위해 건설했던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수원역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신작로가 형성되었다. 신작로를 따라 일본인 거주지와 일본인 상점들이 늘어나며 또 다른 거주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화성 내외에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많은 기관들과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은행, 우체국, 금융조합 등의 기관과 경제관련 회사들, 대지주 회사들이 들어서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67) 수원시·수원문화원, 앞의 책, 255~257쪽, 1999.

식민지 도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화성은 방치되었고 수난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방치되어 허물어지고 있던 성벽의 돌들은 도로와 하수도 개축의 자재로 사용되며 의도적인 파괴가 자행되었다.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등의 몇 시설물들은 그나마 지역유지들의 관심 속에 복원되고 보존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정조대 이후의 수원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는 '수원팔경'으로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 기억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화성과 화성행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놓여있었지만, 식민지 건설을 위한 급격한 도시변화 속에서 방치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다. 화성은 정조대 새로운 도시건설로의 의미를 퇴색한 채 변화되어 갔다. 일제강점기 방치와 수난을 겪었던 화성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또 한번 큰 수난을 겪으면서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오늘날 '세계문화유산' 으로서의 화성이 복원되고 보존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일제강점기 의도적인 방치와 파괴 속에서도 지역민들은 화성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 속에서 지켜지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 화성 속에서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가 도시 변화 속에서도 그 모습을 지켜나가며 미래의 후손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수원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

- 외삼미동 고인돌을 중심으로 -

우 장 문 (숙지고)

머리말	4) 굽의 성격
1. 외삼미동 고인돌의 고찰	5) 전파 경로
1) 외삼미동 고인돌의 개관	6) 외삼미동 고인돌의 사회 복원
2) 주변의 선사 유적	7) 만들어진 시기
3) 형식에서 보이는 특징	맺음말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무대였던 요령성, 길림성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동반도, 절강성 등과 일본의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분포 수와 축조 양식의 다양성 등에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수원지역¹⁾에도 곳곳에 다양한 양식의 고인돌이 분포하는데 여기에서는 진위천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변형된 바둑판식 고인돌의 대명사인 외삼미동고인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에서의 수원지역은 옛 수원지역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상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지역만을 범위로 한정하도록 한다.

오산시 외삼미동 384번지에 위치한 외삼미동고인돌은 탁자식과 개석식의 변천 과정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고, 전파 경로가 안성천보다는 한강 지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5개의 굽(흙구멍, 性穴)이 덮개돌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외삼미동고인돌이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고인돌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외삼미동 고인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식, 굽, 전파경로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외삼미동 고인돌의 고찰

1) 외삼미동 고인돌의 개관²⁾

경기도기념물 211호인 외삼미동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전북 고창, 전남 화순고인돌에 못지않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인돌 앞으로는 작은 저수지가 있고 가까운 천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진위천, 왼쪽으로는 향구지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두 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1호고인돌로 명명된 고인돌은 꺾돌이 있으나 꺾돌이 일반적인 탁자식과는 달리 넓혀 있어서 일찍부터 필자는 이 고인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형태를 ‘변형된 바둑판식 고인돌’로 명명했다.³⁾

1호고인돌은 화강암 계통의 암질인데 실제로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옆에서 보면 매우 웅장해 보인다. 덮개돌의 긴 방향 및 꺾돌의 방향은 남-북(N10°E)이다. 덮개돌이 260×230×90cm, 동쪽 꺾돌은 175(길이)×75(너비)×40cm(높이), 서쪽 꺾돌은 180×80×40cm이다. 1호고인돌에서 남쪽으로 2.8m의 거리에는 개석식의 2호고인돌이 있다. 2호는 170×140×46cm이고, 대부

분이 땅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 이 두 고인돌에는 굽이 있는데, 1호고인돌 덮개돌에는 15개, 2호고인돌에는 3개가 만들어져 있다.

2) 주변의 선사 유적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형태가 사라졌지만 외삼미동 고인돌 좌우의 가지능선 가운데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요즘은 말하는 소위 무덤의 명당자리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했었다.

이 외삼미동 인근의 수원·화성·오산에서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속속 발견되어 수원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유적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주변에서 수습된 구석기시대 유물을 처음 알린 것은 1969년 손보기였다.⁴⁾ 이후 수원지역에서 선사유적이 본격적으로 조사된 것은 수원시 파장동에서 굽개, 찌르개, 몸돌 등이 발굴되면서 부터였다.⁵⁾ 이후 화성 비봉 구포리 어섬⁶⁾과 송산면 고포리, 팔탄면 매곡리, 매송면 원리⁷⁾ 등에서도 여러 점의 뎀석기가 발견되었다. 또 서신면 장외리와 향남면 동오리⁸⁾, 태안읍 기안리⁹⁾, 수원 고색동¹⁰⁾, 화성 감배산¹¹⁾, 수원 지동·이의동¹²⁾ 등에서도 석기가 수습된 바 있다. 최근 외삼미동고인돌 근처에서 찌개, 흙날, 굽개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¹³⁾ 수원지역에 구석기인들이 살기

4) 손보기, 「석장리 이외의 구석기문화의 분포 가능성」 『백산학보』 7, 5~6쪽, 1969.
 5) 이용조·하문식,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7~18쪽, 1987; 최완기·박희현·이강근, 「수원 파장동유적 발굴조사 보고」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 충북대학교박물관, 471~491쪽, 1988.
 6) 공수진, 「화성지역 역사·민속학술종합조사보고」,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17~18쪽, 1987.
 7) 한국도로공사·국민대학교박물관, 『서해안고속도로(안산~안중간) 건설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2)』, 국민대학교박물관, 41~44쪽, 1993; 윤내현 외 5명, 「구석기유적 조사보고」 『서해안고속도로(안산~안중간) 유적발굴조사 보고서(2)』,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458~462쪽, 1995.
 8)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192~194쪽, 2000.
 9) 기전문화재연구원,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기안리 제철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4, 2003.
 10) 박동실, 「수원 고색동 구석기시대 유적의 일고」 『백산학보』 77, 71~97쪽, 2007. (발굴은 2005년 경기대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
 11) 경기대학교박물관, 『화성 감배산유적』, 2006.
 12) 수원역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 20~21쪽, 2008.
 1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 구간 내 외삼미동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08.

2) 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1995; 수원시, 『수원 시사』중, 63쪽, 1997; 우장문, 「수원의 고인돌 문화」, 14쪽, 1998; 세종대학교 박물관·오산시,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77~79쪽, 2005.
 3) 우장문, 「화성과 용인의 고인돌 문화」 『경기사학』 6·7호, 2003.

시작한 것은 수원 고색동유적에서 후기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주변의 용인 평창리유적¹⁴⁾과 동백리·중리유적¹⁵⁾의 연대가 각각 25,000년 전과 30,000만 년 전 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아 수원지역도 최소한 그 시기부터는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유물이 적게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1999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제부도의 조개더미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 30여개를 발견하였고,¹⁶⁾ 이어서 2001년 한신대학교에서 발굴한 동학산 유적¹⁷⁾에서 빗살무늬토기를 수습하였다. 이 외에 수원 화서동 꽃피유적, 울전동유적, 광고신도시¹⁸⁾ 등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수원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은 고인돌과 집자리가 이다. 고인돌 유적은 수원 팔달산, 화성 태안 병점리·수기리, 오산 외삼미동·수청동·금암동고인돌 등 4기에 가깝다.¹⁹⁾ 또 화성 매송 천천리유적²⁰⁾, 태안읍 기안리 고금산 유적²¹⁾에서는 집자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화성 동탄 동학산 유적²²⁾, 동탄 반송리유적²³⁾ 등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삼미동고인돌 주변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선사시대부터 이 주변은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던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4) 경기도박물관·서울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0.
 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용인 동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인 동백리·중리유적』, 2005.
 16) 이소희·김기태, 앞의 책, 56~61쪽, 2000.
 17) 이남규·이기성, 『화성지방산업단지내 동학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4쪽, 2001.
 18) 수원역사박물관, 앞의 책, 22~23쪽, 2008.
 19) 이 지역의 고인돌에 관한 조사서, 논문 및 단행본은(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1995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0 : 우장문, 앞의 논문, 1~36쪽, 1998 ; 「수원의 선사문화에 관한 고찰」 『수원문화사연구회』 2, 3~21쪽, 1998 ; 「화성과 용인지방의 고인돌 문화」 『경기사학』 6·7, 2003 : 「화성시의 선사문화」, 화성문화원, 2004) 등이 있다.
 20) 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 천천리유적』, 2002.
 21) 서울대학교박물관, 『화성 고금산유적』, 2002.
 22) 기전문화재단연구원, 『화성지방산업단지 내 동학산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4.
 23) 기전문화재단연구원, 『화성 동탄지구 내 반송리유적(15지점)발굴조사 약보고서』, 2004.

3) 형식에서 보이는 특징

외삼미동 고인돌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독특한 형식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바둑판식(남방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로 크게 나눈다.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하면 제주도나 전라도지역에서 보이는 위석식 고인돌이다. 외삼미동고인돌은 위의 형식 분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이 지역에서만 보이는 양식이다.〈그림 1〉

외삼미동1호고인돌은〈그림 2〉 일반적인 탁자식 고인돌과는 다르다. 물론 바둑판식이나 개석식과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꼽히는 것은 강화도 부근리고인돌이다. 부근리고인돌의 꺾돌 모양이 외삼미동고인돌과는 전혀 다르다.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은 주검을 꺾돌 사이에 놓고 막음돌로 마무리하는 양식이다. 그러나 외삼미동고인돌은 꺾돌이 넓혀 있어서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 수 밖에 없는 양식이라 탁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하에 무덤방을 만드는 것이 바둑판식이나 개석식이다.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덮개돌을 받치는 꺾돌이 있다는 점에서 바둑판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일찍이 이 양식을 변형된 바둑판식이라고 했던 것이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4개 이상의 꺾돌로 덮개돌을 받치고 있으나 이곳은 마치 탁자식 고인돌의 꺾돌이 옆으로 넘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바둑판식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편의상 ‘변형된 바둑판식 고인돌’로 부르게 된 것이다.

변형된 바둑판식을 한 고인돌은 직선거리로 1.8km 정도의 태안읍 병점리고인돌〈그림 3〉과 조금 더 떨어진 화성시 수기리고인돌〈그림 4〉도 있다. 두 고인돌은 모두 외삼미동고인돌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만 보였던 독특한 양식이다. 이러한 고인돌은 형식 변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외삼미동고인돌의 북쪽에 위치한 용인 왕산리·주북리〈그림 5〉·상하리 고인돌은 탁자식을 하고 있으나 외삼미동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탁자식 고인돌이 보이지 않고 개석식 고인돌만 보인다. 물론 안성천을 넘어 충남지역에는 탁자식도 보이지 않지만 안성천 이북의 경기도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즉 외삼미동고인돌에서 볼 수 있는 변형된 바둑판식 고인돌은 탁자식고인돌에서 개석식으로 변화하였거나, 개석식에서 탁자식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양식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유적이다.

형식상으로 보았을 때 외삼미동고인돌은 안성천의 영향보다는 한강 유역의 영향을 더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삼미동 인근의 금암동고인돌 아래쪽으로는 고인돌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상류쪽으로는 고인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상류지역에 탁자식의 상하리고인돌이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용인 주북리와 왕산리의 탁자식 고인돌이 있어서 이곳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주북리고인돌은 꺾돌의 높이가 매우 낮은 탁자식이다. 외삼미동고인돌의 꺾돌이 낮은 것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즉 주북리고인돌이 상하리고인돌에 영향을 주었고, 그 문화는 진위천 하류로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어 외삼미동고인돌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4) 굽의 성격

고인돌에는 굽(성혈, 홈구멍, cup-mark)²⁴⁾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는 굽이 수 백기에 만들어져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경상도 지역에는 굽이 만들어진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이와는 달리 서해안 지역에는 고인돌이 수 만기가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이 만들어진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외삼미동 주변의 수원지역에는 39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데 이 중 8기에 굽이 있어 비교적 많이 분포하여 굽을 만드는 풍습이 유행했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화도 같은 경우 160여 기의 고인돌 중 3기에만 굽이 있다는 점과 비교되기도 한다.

외삼미동고인돌 1호에는 15개, 2호에는 3개의 굽이 있는데(그림 6, 7) 그 넓이와 깊이는 <표 1>과 같다. 굽은 모두 같아서 만들었고, 크기는 9.5~2.0cm로 다양하고 깊이도 마찬가지로이다.

<표> 외삼미동 1·2호 고인돌의 굽

번호	크기(cm)	위치	번호	크기(cm)	위치
1(1호)	9.5×2.5	북동쪽	10(1호)	5.0×1.2	서북쪽
2(1호)	5.0×1.5	북동쪽	11(1호)	5.0×1.0	서북쪽
3(1호)	7.3×2.2	북동쪽	12(1호)	2.0×0.5	서쪽(흔적)
4(1호)	7.5×2.3	북동쪽	13(1호)	2.0×0.5	서쪽(흔적)
5(1호)	6.5×2.0	북동쪽	14(1호)	6.5×2.0	서쪽
6(1호)	5.5×1.5	북쪽	15(1호)	6.0×1.2	남서쪽
7(1호)	6.5×2.5	북쪽	14(2호)	5.5×1.0	북쪽
8(1호)	8.0×3.2	북쪽	15(2호)	6.0×2.0	북서쪽
9(1호)	6.0×2.0	서북쪽	16(2호)	4.0×0.8	남서쪽

이 굽은 덮개돌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이는 덮개돌에 올라가서 앞으로 엮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만들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굽은 수없이 바깥면을 비벼서 만들었기 때문에 굽의 표면이 매우 부드러워 굽의 표면이 거친 안성 만정리 2호고인돌의 굽과는 차이가 있다. 인근의 오산 지곶동 고인돌에도 6개의 굽이 있는데 이는 외삼미동고인돌의 굽과 같이 표면이 부드럽다.

굽을 만드는 방법은 처음부터 바깥면에 문지르는 방법이 있고, 조금 쪼아낸 다음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곳의 굽은 고인돌의 굽은 처음부터 표면을 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2번과 13번 굽은 아주 깊이도 낮고, 넓이도 2cm 정도 이지만 반들반들한 굽의 면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문질러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150여개의 굽이 있는 안성천 변의 만정리2호고인돌(그림 8)과 비교되는데 만정리2호고인돌은 굽을 정성스럽게 갈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쪼은 느낌이 강하다. 외삼미동고인돌이 안성천 상류의 진위천 주변에 위치하지만 만정리고인돌의 굽을 만드는 문화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대에서 굽이 가장 많은 것은 외삼미동고인돌의 15개이며, 없어진 오산 수청동고인돌에 13개의 굽이 있었다고 한다. 굽이 있는 고인돌과 굽의 수는 <표 2>와 같다.

24) 굽에 관한 명칭은 성혈, 알구멍, 알바위, 바위구멍, 홈구멍, 구멍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굽으로 쓰기로 하겠다.

〈표 2〉 외삼미동 주변의 굽이 있는 고인돌

유적	굽수	덧개돌 긴 쪽(cm)	위치	형식	유적	굽수	덧개돌 긴 쪽(cm)	위치	형식
오산 금암동2호	3	230	능선	개석식	오산 가장동	3	470	구릉	개석식
오산 외삼미동1호	15	260	능선	변형된 바둑판식	화성 수청동1호	13	210	능선	개석식
오산 외삼미동2호	3	170	능선	개석식	화성 반송리1호	4	293	능선	개석식
오산 지곶동	6	190	구릉	개석식	화성 반송리2호	4	160	평지	개석식

일반적으로 굽이 만들어진 고인돌은 규모가 크거나 단독으로 만들어져 있어 시선을 끄는 것이 많다. 외삼미동고인돌도 이 인근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고, 신성한 바위로 생각했었다고 할 수 있다. 외삼미동고인돌은 모양이 주변의 다른 고인돌에 비하여 완벽하고, 언덕 위에 놓여 있어서 훨씬 더 웅장해보여 당시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굽을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태양숭배사상 표현,²⁵⁾ 풍요와 생산의 의미,²⁶⁾ 장례식 예술의 표현,²⁷⁾ 장례의식,²⁸⁾ 장식의 의미,²⁹⁾ 난생설화,³⁰⁾ 별자리설,³¹⁾ 친족집단,³²⁾ 장수 및 질병의 치료³³⁾ 등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³⁴⁾

25) Maringer, J., The Gods of Prehistoric Man(London: Weidunfeld and Nicolson), 180~187쪽, 1960.
 26) 황용훈, 「양주 금남리 지석묘 조사보고」 『경희사학』 3, 104쪽, 1972 : 송화섭, 「고인돌 암각화의 생성 배경과 상징성 연구」 『백산학보』 59, 58~60쪽, 2001.
 27) Levy, G.R., Religious Conceptions of the Stone Age and their Influence upon European Thoughts(New York:Harper Torch Book), 65~66쪽, 1963.
 28) Hawkes, J., History of Mankind(I)(Prehistor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208, 1963.
 29) Stern, P. van, K., Prehistoric Europe(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254~257쪽, 1970.
 30) 김병모, 「한국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I)」 『한국고고학보』 10 · 11집, 71~72쪽, 1981.
 31) 이용조, 「청원 아득이 유적의 선사무덤문화」 『한국의 선사문화-그 분석연구』, 311~371쪽, 1981 : 김동일,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무덤에 대하여」 『고고연구』 1996-3, 1996 : 이준걸, 「단군조선의 천문지식은 고구려천문학의 기초」 『고고연구』 1996-3, 1996 : 박창범, 2002.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 89~108쪽 : 조선기술전사 편찬위원회, 1997. 『조선기술발전사-원시고대편』, 174~175쪽 : 김일권, 199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古文化』 51, 129~130쪽 : 박창범 외, 2001. 「청원 아득이고인돌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3-1호.

외삼미동 고인돌의 굽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서는 지배자가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과 연결시켜 별자리설이 정설화 되었으나 굽이 1개만 있는 것도 많고, 백 개 이상의 굽이 있는 경우에는 굽 여러 개를 연결시키면 어떤 형태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생명 연장이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지극 정성을 다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했을 것이고, 인근에서 영험한 대상으로 여겼던 고인돌이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럼 왜 굽을 만든 것일까?

굽을 만든 청동기시대에는 음식물에 대한 보관 상태도 좋지 않고, 독이든 어패류나 버섯 등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등의 배탈로 죽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자연히 배에 손이 가고, 배를 문지르면 웬만하면 고쳐진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큰 고인돌의 덧개돌에 돌을 문지르면서 쾌유를 빌었을 것이다. 그래서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난 바위에는 백 개 이상의 굽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예는 용인 장평리(그림 9)나 안성 만정리고인돌에서 볼 수 있다.

결국 외삼미동고인돌의 굽은 질병의 쾌유를 비는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수원, 화성, 오산에서 가장 많은 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영험한 고인돌로 주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다.

5) 전파 경로

외삼미동 고인돌은 어느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일까? 결론적으로 서해안 ⇒ 안성천 ⇒ 진위천의 경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한강 유역 고인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위천 최상류의 탁자식 고인돌인 상하리고인돌은 한강 지류인 경안천 유역에 있는 왕산리고인돌과 주북리고인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탁자식

32) 이용조, 「양평 양덕리 고인돌 문화」 『한국 선사문화의 연구』, 평민사, 153~165쪽, 1980 : 장명수, 「한국 암각화의 편년」 『한국 암각화의 세계』, 한국역사민속학회, 1995.
 33) 우장문, 앞의 글, 27~30쪽, 2004.
 34) 이 내용은 이용조(「양평 양덕리 고인돌 문화」 『한국 선사문화의 연구』, 평민사, 1980)와 유태용(『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2003)의 저서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을 한 상하리고인돌은 진위천 유역에서는 그 형태를 찾을 수 없는데 비하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용인 왕산리·주북리고인돌과는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 주북리고인돌은 무덤방을 형성하는 꺾돌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진위천변에 독특하게 나타난 '변형된 바둑판식 고인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삼미동고인돌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2) 굽의 분포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외삼미동1호고인돌에 15개의 굽이 만들어져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 굽은 반들반들하게 간 굽이다. 반면에 안성천 주변의 안정리2호고인돌 굽은 표면이 거칠어 간 것이 아니라 쪼아서 만든 굽이기 때문이다. 150여개의 굽을 가진 안성 만정리2호고인돌도 안성천 상류와 매우 가까운 용인 장평리1호고인돌과 100개가 넘는 굽이 만들어져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용인 장평리고인돌은 갈아서 굽을 만들었고 만정리고인돌은 쪼아서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외삼미동고인돌은 한강 유역의 고인돌에 분포한 굽은 갈아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만정리고인돌과 차이가 있으므로 한강 유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외삼미동고인돌이 안성천보다는 한강 유역의 고인돌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와 유사한 꺾돌이 한강 유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한강의 상류인 안양천 부근 평촌의 신촌부락 3호고인돌과 남한강변의 충북 제천 황석리충17호고인돌(그림 10)은 지하에 무덤방이 만들어졌지만 무덤방을 이루는 긴 쪽의 판자들이 높혀져 있다는 점에서 외삼미동고인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외삼미동고인돌은 아산만에서 안성천의 하류를 통해서 들어왔다기 보다는 한강 유역의 영향을 받아서 외삼미동고인돌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6) 외삼미동 고인돌의 사회 복원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생활했던 시기는 주로 청동기시대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 이유는 큰 덮개돌을 운반하거나 꺾돌 위로 올리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삼미동고인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으며,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회의 한 단면

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외삼미동1호고인돌의 덮개돌은 260×230×90cm로 무게는 10.5톤 정도이다. 1톤을 10명 정도면 이동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³⁵⁾ 105명 정도의 장정이 동원되어 덮개돌을 옮기고, 꺾돌 위로 올렸을 것이다. 105명의 장정이 5인 가족 대표로 동원되었다고 가정하면³⁶⁾ 이 주변에는 적어도 525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 뒤쪽으로 얇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양쪽으로 작은 산이 외삼미동고인돌을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또 고인돌은 낮은 언덕 위에 만들어져서 실제보다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고인돌을 매우 신성시했을 것이고, 굽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들은 외삼미동고인돌이 꼭 무덤일 것이냐에 의심이 가기도 한다.

고인돌의 기능은 무덤의 기능이 주 기능이지만 부족의 기념물이나 무덤의 묘표석으로 보기도 한다. 서성훈·성낙준은 고창 장수제 고인돌을 무덤보다는 부를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는 건축물적인 위용과 그 의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된 상징물로 추정했다.³⁷⁾ 또 이용조·하문식은 전국의 고인돌 중 포천 수입리, 강화 부근리, 광명 철산동, 고창 도산리, 고창 강촌고인돌 등은 입지 조건과 형태 등을 토대로 제단(祭壇)이라고 주장했다.³⁸⁾ 이영문도 전남지방의 고인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무덤의 기능은 물론이고 제단·묘표석의 기능을 한 것도 있다고 하였다.³⁹⁾

외삼미동 고인돌도 입지가 위의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언덕 위에 홀로 있고, 무덤방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무덤보다는 제단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1호 고인돌 옆의 2호고인돌은 고인돌보다는 제단의 부속 시설이나 1

35) 최성락·한성욱, 「支石墓 復元의 一例」 『전남문화재』 2, 11~24쪽, 1989.

36) 하문식,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의 연구-금강과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37) 서성훈·성낙준, 「고흥 장수제 지석묘 조사」, 국립광주박물관·고흥군, 52쪽, 1984.

38) 이용조·하문식, 「한국 고인돌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제단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3, 29~66쪽, 1989.

39)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호고인돌을 만들고 남은 석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언덕 위에 위치하는 2호고인돌은 몇 천년이 지나면 흙이 쓸려나가서 더 많이 돌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덮개돌 대부분이 흙속에 묻혀있으며, 규모도 인근의 고인돌에 비하여 작다는 점에서 고인돌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사진 11> 1호고인돌 앞으로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멀리까지 잘 보이며, 뒤쪽으로는 2호고인돌로 추정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다. 또, 제단 목적의 고인돌이 다른 고인돌 군과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삼미동고인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분포한 고인돌 중 가장 많은 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이 고인돌을 신성시 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삼미동고인돌은 주변의 마을 대표나 세력가가 이곳에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의 제단으로 추정된다.

7) 만들어진 시기

고인돌이 신석기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손진태⁴⁰⁾와 한홍수⁴¹⁾의 주장 이후,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제기한 것은 이용조였다.⁴²⁾ 임세권⁴³⁾, 이형구⁴⁴⁾, 박희현⁴⁵⁾, 하문식⁴⁶⁾, 우장문⁴⁷⁾ 등도 신석기시대부터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했다.

40) 손진태, 「조선 Dolmen고」 『개벽』 1, 16~26쪽, 1934 ; 「조선 돌메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민족문화연구』, 1~41쪽, 1948.

41) 한홍수, 「조선의 거석문화연구」 『진단학보』 3, 132~147쪽, 1935 ; 「조선의 석기문화개관」 『農檀學報』 4, 127~145쪽, 1936.

42) 이용조는 양평군 양수리고인돌 출토 숯의 연대측정 결과(박찬걸·양경린, "KAERI Radiocarbon Measurements III" Radincarbon, 16-2, 197쪽, 1974)인 3,900±200 bp.와 양평 양덕리고인돌에서 주로 텍스트기가 출토된 점을 토대로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용조, 「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한국사연구』 11, 55~99쪽, 1975 ; 「한국 고고학의 연대결정에 대한 한 연구-MASCA의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 선사문화-그 분석연구』, 탐구당, 412쪽, 1981).

43) 임세권, 「한반도 고인들의 종합적 고찰」 『백산학보』 20, 109쪽, 1976.

44) 이형구, 「발해연안지구 요동반도의 고인돌 무덤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32, 1987.

45) 박희현, 「한국 고인돌 문화에 대한 고찰-상한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46, 1~24쪽, 1984.

46) 하문식, 앞의 논문, 1985.

47) 우장문,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 경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86~290쪽, 2004.

고인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대를 신석기시대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나 신석기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외삼미동고인돌은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수원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몇 점 수습된 정도이고, 당시의 집자리 등 구체적으로 살았던 흔적이 발견된 예가 없다.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증거는 수원의 팔달산고인돌 주변의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간돌검을 보아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진위천과 황구지천의 사이에 위치한 외삼미동고인돌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의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위석식과는 다른 ‘변형된 바둑판식’ 모양을 하고 있다.

2) 1호고인돌에는 굽이 15개가 있고, 2호고인돌에는 3개의 굽이 있다. 인근의 고인돌 중 가장 많은 굽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호고인돌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웅장하고 세련된 모양이 신비감을 느끼게 하여 질병 치료나 장수를 기원하면서 굽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외삼미동 고인돌이 서해안에서 안성천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한강 유역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외삼미동에서 안성천 이북에는 탁자식이나 바둑판식 고인돌이 한 기도 없으나, 진위천 상류의 탁자식인 상하리고인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용인 주북리고인돌은 킴돌 높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탁자식의 킴돌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안성천변의 만정리고인돌은 굽을 쪼아서 만든 것이지만 외삼미동 고인돌을 비롯한 주변 및 한강 유역의 굽은 모두 같면서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킴돌이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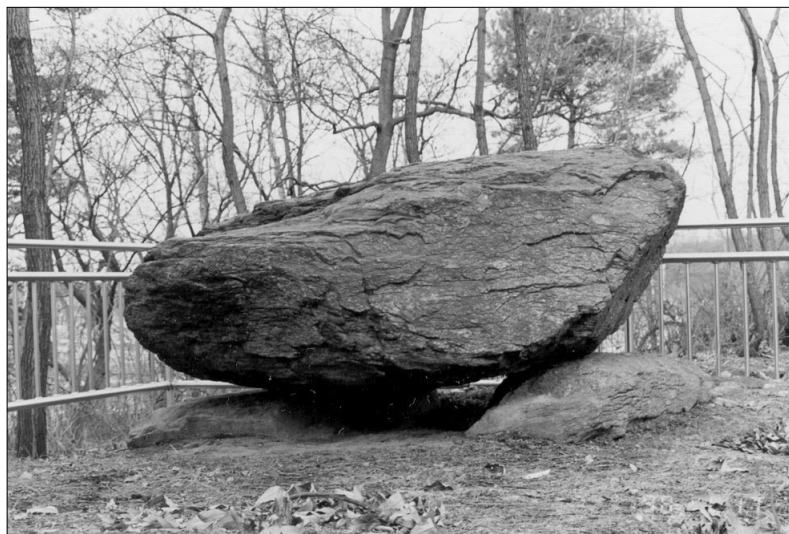
진 것이 한강 상류인 안양천 변의 평촌고인돌과 남한강 유역의 제천 황석리고인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외삼미동 1호고인돌은 10.5톤의 덮개돌을 옮겨서 만든 것으로 보아 105명 정도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배자가 등장한 사회였다. 105명을 근거로 추정한다면 이 지배자는 주변에 사는 525명 이상의 부족을 통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인돌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족장이 존재한 사회였다는 점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5) 무덤의 용도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인돌 앞의 시야가 트인 언덕 위에 있고, 단독으로 위치하며, 신성시 했던 징표인 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제단의 용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외삼미동 고인돌 주변의 고인돌 분포



〈그림 2〉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그림 4〉 화성 수기리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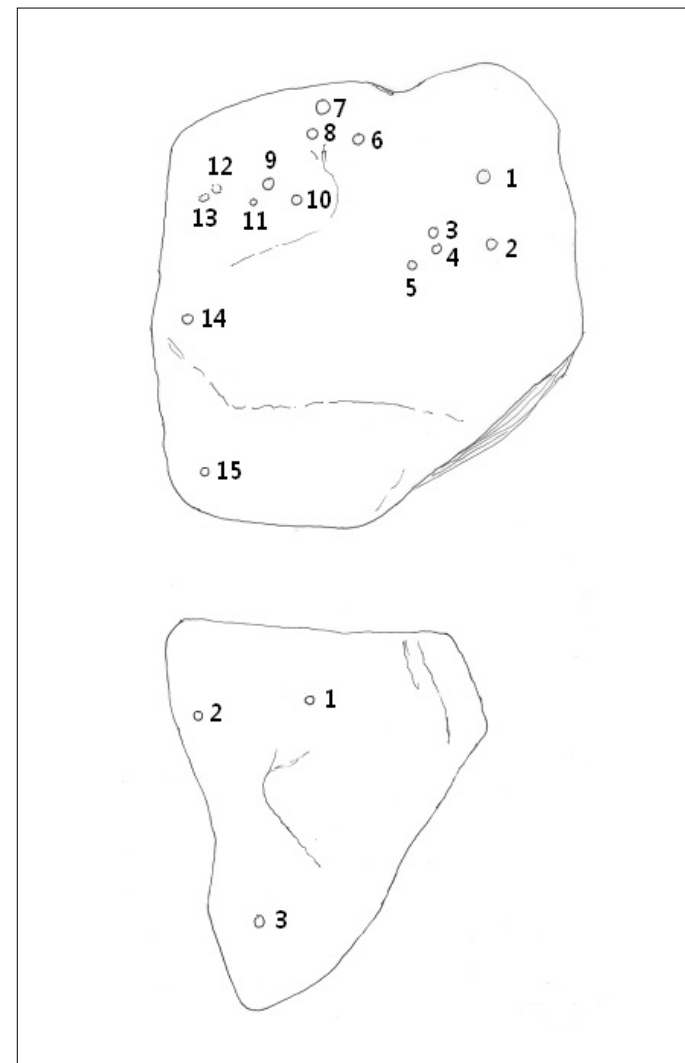
〈그림 3〉 오산 병점리고인돌



〈그림 5〉 용인 주북리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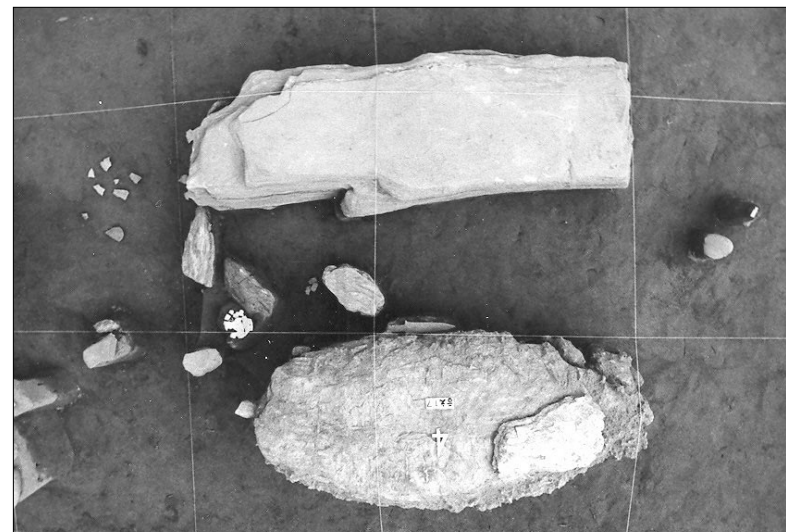
〈그림 6〉 외삼미동 1호고인돌 굽



〈그림 7〉 외삼미동 1(위) · 2호(아래)고인돌 굽



〈그림 8〉 안성 만정리고인돌 굽



〈그림 10〉 제천 황석리총17호고인돌 무덤방



〈그림 9〉 용인 장평리고인돌 굽



〈그림 11〉 외삼미동 1호(뒤) 및 2호고인돌(앞)

수원지역 혼례(婚禮)의 변화 양상과 의미

최 자 운 (경기대학교)

머리말	1.3. 1960년대 : 신식결혼의 정착
1. 수원지역 혼례(婚禮)의 시기별 양상	2. 도시화 및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혼례문화 변화
1.1. 1940년대 : 전통혼례의 지속	맺음말
1.2. 1950년대 : 전통혼례와 신식결혼의 병존	

머 리 말

전통사회에서의 혼례(婚禮)는 일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결혼이지만, 나아가서는 집안 대 집안끼리의 결합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당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사회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혼인(婚姻)과 관련된 제요소에 대한 규명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례는 사회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¹⁾

혼례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장하경은 우리나라 전통혼례의 순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부터 1944년까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1961년부터 1980년까지, 19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별 사

1) 혼례문화의 변천과 관련된 논의는 복식이나 혼수문화에서부터 혼례와 사회 변동과의 관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김일미, 「조선의 혼속 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 『이화사학연구』 4, 1972.

김정근·홍형욱, 「혼례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혼례가구의 변천」 I, 『대한국정학회지』 34, 1996.

회 변화와 혼인 연령, 배우자 선택, 혼례절차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²⁾ 그의 논의는 시대별 혼인의 추이나 통계는 알 수 있으나 조사가 설문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시기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정복남은 남해, 하동, 진주 등 서부경남지역의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개인,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이 지역 전통혼례의 절차, 복식의 양상을 조사하였다.³⁾ 그의 논의는 지역단위 혼례문화 연구에 대한 모범이 된다. 홍나영은 기존의 혼례와 관련된 논의들이 과거 유교사상 하에서의 혼례문화 특성이나 일제시대 이후 사항들을 다루어 온 것을 비판하면서 근대화 과정 이후의 혼례문화변화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⁴⁾ 그리하여 서울과 부산지역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여 시기별 혼례문화의 변화 양상을 논의하였다. 박동철은 지역적인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거시적인 환경 변화로만 설명된 기존의 혼례변화에 대한 연구 경향을 지적하면서 청운마을을 중심으로 개인과 마을 단위의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였다.⁵⁾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가 민촌(民村)이나 반촌(班村), 혹은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고 소도시에서의 혼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소도시에서의 혼인은 민촌(民村)이나 반촌(班村)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빠르고 그 요인도 다양하다. 따라서 본 논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196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도시화의 경로를 밟게 되는데 이 논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혼인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원지역에서 50년 이상 살아온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산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원지역 혼속의 변화 양상과 요인을 재구해보고자 한다.

1. 수원지역 혼례(婚禮)의 시기별 양상

2) 장하경,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4권 1호, 1996.
 3) 정복남, 「서부경남지방의 전통혼례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문화연구』 6호, 2000.
 4) 홍나영 외,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1호, 2002.
 5) 박동철,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변화양상과 요인」,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7.

1.1. 1940년대 : 전통혼례의 지속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주로 신부의 집에서 전통혼례 방식으로 혼인을 많이 하였고, 현재의 수원시민회관 오른쪽 옆에 위치했던 수원신사(水原神社)나 교동의 성공회, 종로사거리 종로교회, 북수동 성당, 남수동 포교당 등의 종교단체에서 혼례를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결혼한 제보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 시기에는 전통혼례를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신사나 교회 등의 종교시설은 그렇게 일반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시기 전통혼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자 : 어르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김인기 : 내가 열여덟 살(1932년)에 했어.

조사자 : 할머니는 어디 분인가요?

김인기 : 반월면에 속달이라고 있죠. 정씨예요.

조사자 : 결혼은 중매로 하셨어요?

김인기 : 심씨 중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분이 혼인 중매를 했지. 옛날에는 연애결혼은 여간해서 없었어요. 장가들어서 처갓집에서 하루 자고 오는데, 어렸을 적에 장가를 들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가마를 타고 오는데 부인 얼굴을 그때 잠깐 보고 집에 와서 제대로 본 거지.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는 시계가 없어서 부갓집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했지.

조사자 : 결혼식은 구식으로 하신거네요.

김인기 : 그럼요. 가마 타고 가서 식 올렸어요. 처갓집에 갔더니 술 사라고 발바닥을 막 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동네에 처남, 조카 벌 되는 사람들이랑 술 먹으로 가는 거예요.(2006. 7. 5. 이목동 김인기어르신 조사)

위 내용에서 보듯 당시 수원사람들의 통혼권은 당시 수원군 일대이다. 중매자가 대부분 집안 친척이나 마을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연령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대부분 결혼을 하였고, 집안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정하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당일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은 1943년에 혼인한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상광교동에 거주하고 있

는 정은채어르신(1923년 출생)는 집안 어른의 소개로 연출결혼을 하였다. 당시 일제가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특별히 강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결혼 전에 선을 보지는 않았고,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신부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였다. 인력거를 타고 혼례를 치르기 위해 처갓집으로 갔다. 당시에 함은 집안의 하인이 젖고, 신부 집으로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신랑에게 재(젓그래미)를 뿌렸다.

관련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자 : 결혼은 구식 결혼으로 하셨겠네요.

정은채 : 그렇지. 구식결혼이지 그때는 신식결혼은 별루 없었으니까. 그러구 그 왜정 때니까. 더군다나 왜놈들이 신식결혼으로 하는 것두 애기도 안하구.

조사자 : 결혼은 처갓집에서 하셨어요?

정은채 : 그때 나이가 20살이니까. 요새 사람들 모양 그렇게 행동도 하덜 못허게 하구. 그냥 시키는 대루 허구. 그러니까 어떻게 허면 되는 것이다. 그제 구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때는 생계도 다들 어렵구 하나까. 요즘 같이 호화식으루 허는데가 별루 없었지.

조사자 : 함 팔고 그런 건 하셨지요?

정은채 : 그거는 형식적으로 조그맣게들 했지.

조사자 : 어르신 함진애비는 누가 하셨어요?

정은채 : 그제 옛날에는 함진애비를, 요즘에는 친구들이 허잖아요. 그때는 친구들이 허는게 아니고, 그때는 그 집안에서 하인이라고 허는 제도가 있었잖아. 종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었었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는게 아니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 (중략)

조사자 : 어르신 혼례식 하시구요. 첫날밤에 사람들이 문구멍 뚫어서 보고 그랬어요?

정은채 : 그렇지. 첫날 밤이라구, 뭐야 신부측에서 하잖애. 그러면 그거를 엿본다고 문뚫구 들여다보구 그런게 있었지. 근데 나는 그런거도 별루 느끼질 못하고, 하지도 않았어.

1930년대 후반에 혼례를 치른 윤인용 어르신은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결혼 전에 선은 보지 못하였고, 혼례 다음날 처음 신부의 얼굴을 보았

다. 함은 마을의 연세 많은 분이 지고 갔다. 그리고 초례를 치르러 갈 때 동네사람들이 신랑에게 재를 던지는 것의 절차는 다른 분들과 동일하다. 원래는 초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하룻밤 자야 하는데 어르신은 혼례를 올리고 당일날 집으로 신부와 왔다. 그 뒤에 3일이 지난 뒤 재행(再行)갔을 때 저녁에 신랑 다루기를 하고, 그 다음날 신부 친척집을 돌며 인사를 드렸다.

1940년대까지의 수원지역의 혼례를 보면, 혼인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공통적으로 결혼 전에는 상대방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친척 등 아는 사람의 중매로 결혼하였다. 처갓집으로 이동하면서 김인기는 가마, 정은채는 인력거, 윤인용은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린 정은채와 윤인용의 차이는 사는 곳의 교통 상황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원 외곽에 해당하는 광교동은 상대적으로 시내인 북수동에 비해 교통편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김인기와 정은채는 집안의 하인이 함을 지고 초야를 처갓집에서 치루고 온 반면에, 윤인용은 동네에서 아들을 낳고 다복한 어른이 함을 지고 혼례 당일 날 바로 본가로 왔다. 이를 통해 1940년대에도 이미 혼수나 혼인의 규범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11월에 일제가 발표한 의례준칙은 보다 나은 착취를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보다는 기존의 전통혼례를 간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⁶⁾ 따라서 혼례 장소는 신부집이나 신사(神社), 사원 또는 교회당으로 하고, 혼인의 복장은 한복의 두루마기 이상, 일본옷은 정장인 몬 이상, 양복은 모닝이상이고, 의식 종료 후 신랑의 가정에서 예빈으로서 혼례에 참석한 근친자만 초대하여 간단한 축연을 개최하도록 하였다.

수원신사에서 이루어진 혼례는 신랑은 연미복,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마친 뒤 시댁에 가서 폐백을 올렸다고도 하고, 신사의 주지가 주례를 보고 신랑은 양복, 신부는 한복을 입었다고도 한다.⁷⁾ 혼례를 마친 뒤에는 신랑 집에서 신랑의 부모님께 신랑 신부가 폐백을 드렸다. 신사 등 종교기관에서의 결혼식에 대해선 다음

6) 주영하,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발령과 풍속교화 정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근대 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7) 수원문화원 편,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Ⅱ, 수원시, 389쪽, 2002.
2006년 9월 7일 남창동 토박이 김영태어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장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1.2. 1950년대 : 전통혼례와 신식결혼의 병존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혼례 역시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먼저, 신식결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려서부터 종로교회를 다닌 김순태어르신은 1950년 수복되던 해에 종로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 거의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 신자끼리 결혼식을 올려야하는 것 등의 이유로 인해 교회에서의 결혼식이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신부는 당시 매교동에 피난을 내려와 종로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이웃집에 살던 할머니가 소개해서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먼저 가서 처녀를 보고 와서 어르신께 결혼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후에 매교동에 있던 처녀의 집으로 선을 보러 갔다고 한다. 그렇게 처녀를 보고 온 뒤 10일 뒤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이미 결혼은 결정된 뒤에 선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어르신의 나이는 25세였는데, 당시에는 보통 남자는 20대 중반, 여자는 20대 초반에 혼인하였다.

당시 결혼식 상황을 보면, 1950년 12월 27일에 교회 바닥에 하얀색 종이를 깔고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을 하였다. 입장할 때 신랑 신부의 앞에는 화동(花童)이 서고, 뒤에는 들러리가 따라왔다. 양가친척 및 손님들은 뒤쪽에 서 있었다. 당시 담임 목사이던 정등운목사가 주례를 보았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화동 역할을, 친구들이 들러리를 하였다. 신랑 예복 등 결혼식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었다.

이때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주도 없고, 답례품도 없었다. 신혼여행도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다. 이때 신부가 준비한 혼수는 이불 한 채와 시부모님 버선 밖에 하지 못하였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객들에게 국수를 삶고, 김치, 콩나물, 부침개, 막걸리, 돼지고기 등을 조금 썰어놓고 잔치를 하였다. 신랑 집에서 초야(初夜)를 치루었는데, 당시 동네 사람들이 문풍지의 구멍 뚫고 엿보고 밖에서 웃고 떠들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였다고 한다. 신랑집에서 3일을 지낸 뒤 신부 집으로 재행(再行)을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다시 신랑 집으로 와서 살았다.

재향갈 때에 신랑은 두루마기를 입고, 떡 등 음식을 해서 갔다.

앞선 수원신사 및 종로교회에서의 혼인을 통해 50년대까지의 신식결혼은 이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식은 신식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폐백이나 재행과 집안간의 의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혼례보다는 폐백이나 재행 등의 집안간의 의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신식 예식장이 생기고 신식혼례가 늘어나면서 전통혼례의 관념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수원에서 제일 처음 생긴 신식결혼식장은 지금의 남문 제일은행 자리에 있던 평화예식장이다. 평화예식장이 지어진 때는 확실치 않은데 1948년에 세웠다는 의견(장안동 윤인용)과 1950년 수복 이후(남창동 김영태, 고등동 김순태) 생겼다는 의견이 있다. 이북(평안북도) 출신의 사람이 해방 이후 수원에 와서 세웠다는 것은 동일하다. 당시에는 수원에서 이곳밖에 결혼식장이 없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화서동 동말 출신인 김순태어르신에 따르면, 평화예식장 주인은 수원 화서동 동말 처녀와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고등동 김순태어르신은 1953년에 평화예식장에서 친구 전호준이 결혼식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한 뒤 주례 말씀에 앞서서 혼인서약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식장 주인이 주례를 서주기도 하였는데, 1950년대 후반 정도부터 신랑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정치가 등이 주례를 보게 되었고, 들러리나 화동(花童)도 없어지고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 예식장이 생기면서 50년대 초반까지 형식적이거나 신랑이 신부집으로 선을 보러 갔다면, 이 시기부터 집안 어른들의 동의하에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결혼이 서서히 일반화된다.⁸⁾

8) 이 시기에는 서호나 용건릉, 혹은 수원시내의 극장 구경 등을 하며 데이트를 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하더라도 길을 걸으며 손을 잡거나 친한 척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959년 평화예식장 결혼식. 신랑은 양복을, 신부는 흰색 치마저고리에 화관을 쓰고 있다. 주례와 들러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신랑은 양복을 입는데 비해 신부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것은 당시 사회 관념이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원천 이덕은 제공.



1955년 무궁화예식장(현재 남문 도매당약국 자리)에서의 결혼식. 1960년대에는 수원역에 역전의 계림예식장, 남문의 평화예식장(남문 제일은행 자리), 무궁화예식장, 그리고 중동사거리의 문화예식장(현재 중동사거리 농협 자리) 등 4개의 예식장이 있었다. 신랑과 신부 옆에 신랑 친구와 신부 친구, 그리고 처갓집 조카들로 구성된 들러리들이 있다. 송죽동 용향식 제공.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통혼례에서도 나름의 변화가 생긴다.⁹⁾ 1954년에 전통혼례로 혼인한 송죽동 용범식어르신과의 관련 인터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자 :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될 사람을 보러 갔었나요?
 용범식 : 대개 남자가 지금은 어디 식당에서 만나고 하는 데 그때는 색시집으로 간다고, 중매하는 사람하고 색시집으로 가서, 신랑 친척 부모,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하고 뗏이 색시보러 가는 거여.
 조사자 : 처음 가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범식 : 주로 뭐.. 단 둘이 시간을 주더라고요. 난 그 얘기 했어. 어렵게 살 구 농촌생활을 하겠느니. 그거 말고 딴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조사자 : 그때 처음 만나고 나서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겁니까?
 용범식 : 거기선 뭐 못하고, 소개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중매쟁이. 아주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양가 어른들끼리 친구지간에 술 마시다가도 네 딸 안주겠느냐.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게 두 양반들이 그래 좋다 해서 얼굴도 저도 못보고, 택일 정하고, 그냥 살고 그랬죠.

이 시기에는 혼인 전에 데이트를 하거나, 혼인 전에 신랑 신부가 선을 보기도 하고, 택일을 신랑집에서 보는 등 혼인 절차에 있어 변화가 생긴다. 1940년대만 하더라도, 혼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이 양가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매가 아닌, 온전히 연애만을 통해 혼례를 치른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1951년 1.4 후퇴 후에 전통혼례로 혼인한 남창동 김영태 어르신은 신부가 어려서부터 어르신과 아래 윗집으로 살던 처녀였다. 이 두 사람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 당시 데이트를 할 때에는 원천유원지에 보트를 타러 가고, 용주사까지 걸어서 다녀오고, 안양 관악산 등에 등산을 가기도 하였다. 당시 먹고 사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예단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9) 수원에서 이루어진 전통혼례 중에는 광고동과 조원말에서 각각 신랑집에서 혼례를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전통혼례의 소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전문화재연구원 편,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산』, 수원시, 2000.



1959년 전통혼례 때 함진애비가 들어오는 모습. 함진애비는 신랑 심익보의 친한 친구인 송씨로, 장가를 가서 첫아들을 낳아 함진아비가 되었다. 혼례식은 처갓집인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에서 이루어졌다. 신평동 심익보 제공.



1960년 분당 처갓집에서의 혼례. 이곳에서도 초례상 위에 송죽동에서 본 것과 같은 용떡이 보인다. 용떡은 가래떡보다 훨씬 굵고, 팔 등으로 눈, 코 등의 용의 얼굴 형상을 만든다. 이 떡은 초례상에만 올리는데, 부자로 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나중에 떡국 끓일 때 넣어서 먹는다. 매탄 4동 양광업 제공.

1.3. 1960년대 : 신식결혼의 정착

1960년대에도 전통혼례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초 전통혼례로 혼인한 화서동 오영철 어르신은 경우 동네에서 혼례복을 빌려주었고, 시발택시를 타고 처갓집으로 갔다. 신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네사람들에게 재(젓그러미)를 맞았고, 혼례를 치루고 곧바로 신랑 집으로 갔다. 신랑집에 간지 3일 만에 삼일나들이(재행)을 갔고, 그 날 저녁에 신랑 다루기를 하였다.

매탄 4동의 양광업어르신은 1960년에 전통혼례로 혼인하였으나 데이트를 통해 신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당시 초례상에는 국수, 떡 등을 올렸고, 함은 동네 아들 많이 낳은 아저씨가 졌다. 초례 치르고 바로 신랑 집으로 가서 자고, 3일 있다가 재향 갔다. 이후의 의례는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기 전통혼례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선을 보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초례를 치른 뒤 신부집에서 초야를 치르지 않고 신랑집으로 바로 오는 것이 일반화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신혼여행은 주변 여건상 가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점차 전통혼례는 예식장 등이 생기면서 그 수요가 적어지게 된다.



1962년 이의동(두랭이마을) 처갓집 마당에서의 혼례. 초례상 위에 차린 음식은 떡, 밤, 대추 등이다. 촛불 옆에 둥글게 솟아 있는 떡은 용의 모습을 본 뜬 용떡이다. 매탄 4동 송향섭 제공



1980년대 초 수원향교에서의 전통혼례. 이목동 김인기 제공. 혼인 복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초례상에 용떡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 초반에 남문에 평화예식장이 생긴 이래 무궁화예식장, 문화예식장 등이 뒤이어 시내 중심가에 생기면서 신식결혼은 혼인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중에서 문화예식장에 대해 살펴보면, 1962년 한의사였던 강창현씨가 중동사거리에서 역전 방향으로 남문 농협 맞은편에 세웠는데, 3층 건물로 2, 3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문화예식장은 예식장만 있던 단층 건물의 평화예식장과 달리, 식장 옆에 폐백실이 있어 폐백까지 예식장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혼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예식장의 규모나 규모가 변화함을 볼 수 있다.

화서동 송재규어르신은 1964년 고등동 성당에서 혼인하였다. 약혼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자 : 어르신, 당시 약혼식은 어떻게 하셨나요?

송재규 : 친구들끼리.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해서 중국집에서 했어요.

조사자 : 친구들만 모이고 부모님은 안 계시구요?

송재규 : 없고, 그냥 그렇게 사진 찍고.

신식결혼이 정착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약혼식도 생기게 되는데, 약혼식이 생길 초기에는 신랑 신부가 편하게 인사하는 자리로 시작된 듯하다. 그러다가 집안 사정

에 따라 결혼식만큼 비중있는 의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65년 평화예식장에서 결혼한 화서동 박영옥 할머니는 당시 시청직원이었던 김용두씨의 소개로 종로사거리 낙원식당 앞 다방에서 신랑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 결혼 3개월 전에 약혼하였는데, 당시 약혼식 준비는 신부측에서 하였고, 예물은 서로 준비하였다. 약혼식은 종로사거리에 은벽정이라는 요리집에서 하였다.

결혼 전 데이트는 주로 남문 사거리 부근의 원궁다방에서 만났고, 그 외에 화성을 산책하기도 했다. 결혼식 순서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시 남편이 법원에 근무한 관계로 주례는 수원지방법원장이 하였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시댁으로 가서 폐백을 드렸다. 그리고 시댁에서 3일을 지낸 뒤 친정으로 하룻밤 지내러 갔다. 당시 재행이라는 말은 없었고, 친정에 가서 신랑다루기를 하지도 않았다.



1965년 평화예식장 결혼식 사진.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부의 복장은 웨딩드레스로 바뀌고 화동과 들러리도 없어지게 된다. 화서동 박영옥 제공.



1968년 문화예식장에서의 결혼식 사진. 남수동 이호용 제공.

약혼식과 마찬가지로 신식결혼이 정착되면서 신혼여행 역시 일반화 되는데, 1972년에 남문 문화예식장에서 혼인한 울전동 박건창어르신은 결혼식을 치른 뒤 온양온천으로 1박 2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거리상 위치 때문에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다. 그리고 당시 결혼 연령층은 보통 20대 중, 후반에 하었다고 하는데, 1940년대에 비하면 7, 8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하면서 혼인의 목적이나 의미도 변화한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의 이유가 가계 계승,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관념이 강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은 개인간의 사랑에 의한 결합, 자아 성취의 측면이 강해졌다. 전통혼례에서는 중매에 의해 집안 어른, 특히 아버지의 의견이 혼인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신식결혼에서는 당사자간의 의견이 중요하다. 혼례 단계에서는 전자는 처갓집에서 초례와 초야를 치루었으나 1940년대 이후 처갓집에서의 의례가 약화되고, 함진에비 역시 변화한다. 그러나 신식결혼에서는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으로 단순화된다. 마지막으로 신부 및 신랑 부모님에 대한 폐백, 재행(再行), 신랑 다루기 등은 예식장에서 하는 폐백만 남아 있다. 그러나 신식결혼에서의 폐백은 그 본

래의 의미보다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시화 및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혼례문화 변화

이 장에서는 수원지역의 혼례문화가 변화하게 된 요인에 대해 사회문화적 흐름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수원지역 경제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1967년 경기도청 및 연초제조창 기공, 1968년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구간 개통, 1970년 삼성전자 생산 시작, 1976년 경수산업도로 개통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공장의 설립은 수원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삼성전자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매탄 4동 토박이인 진어용어르신과의 인터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자 : 산드래미(매탄 4동)에서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한 때는 언제인가요?

진어용 : 74년에서 75년 그쯤예요.

조사자 : 산드래미에서 새마을 사업을 맡으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있으세요?

진어용 : 새마을 공장을 지은 건데요. 이것이 삼성전자랑 관련된 겁니다.

조사자 :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진어용 :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섰어요. 당시에 터를 사서 100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조사자 : 산드래미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구하게 되었습니까?

진어용 : 네, 나름대로 몇 폰이라도 벌게 되었으니까요. 17년에서 19년 전에 새마을공장 보상을 타게 되어서 향토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조사자 : 당시에 산드래미처럼 새마을공장을 만든 곳이 수원에 있었습니까?

진어용 : 별로 없었어요. 그때 삼성전자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조사자 : 삼성전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진어용 : 바로 이 자리예요. 70년에 초반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조사자 : 새마을공장에서 몇 명 정도 일했나요?

진어용 : 산드래미는 옷마을, 아랫마을, 마을터기라고 세 개 부락이었는데, 약 30내지 40명이 일했나봐.

196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 발전과 함께 정부의 혼인 관련 정책 역시 혼인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5.16 군사 쿠데타로 시작한 제 3공화국은 정치적으로는 억압적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상공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의 이농화 현상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 인구 성장률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비교적 강압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평균 자녀 수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 현상으로 인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가족 내에서의 혈연관계보다 사회에서의 비혈연관계가 중시되었다.

혼인문화의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시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9년 1월 6일 정부에서는 국가 시책으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게 된다. 전통혼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다소 번잡한 혼인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에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전통 혼례에 대한 사항이 아닌, 사치스러운 약혼식장, 청첩장의 남발, 호화판 혼인 및 잔치 등 과소비 풍조에 대한 것이었다. 그 이후 법률 공포 4년간 정부의 강력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그 법을 개정하여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을 두어 철저히 지키게 한다.

1973년 3월 13일 가정의례에 관한 개정 법률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간략한 혼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1977년 개정된 혼인법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부모의 강요나 간섭 없이 혼인 당사자들이 자유선택에 따른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 혼인 결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배우자 선택 등 결혼 관념이 집안보다는 사람의

능력, 성격을 보는 쪽으로 기준이 변화하게 된다.

1989년 혼인법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개정되는데, 혼인한 부부가 협의에 의해 동거 장소를 정하고 부부 공동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남녀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여성의 고학력, 사회 활동 참여 증가로 초혼연령 상승하고, 독신 여성의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보다는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젊은 여성들은 본인의 어머니 세대의 결혼 생활이 희생과 인내로 대변되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삶을 거부하는 모습 나타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예물이나 예단은 신부 어머니의 정성으로 버선이나 치마 저고리 등을 하나하나 마련하였으나 경제 성장으로 예단 및 예물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고가화 되었다. 혼수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에 따라 의류의 비중이 낮아지고 가전제품 등이 증가하게 된다.

배우자 선택 기준은 1976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의 외모, 여성은 남성의 건강과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2000년대의 조사에서는 경제력과 애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¹⁰⁾ 아울러 배우자간의 애정, 자아성취 등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1970년대 중반에는 남녀 모두 동거를 원하였으나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남자는 상관없으나, 여자는 대부분 분가를 원하고 있다.¹¹⁾

혼인을 감소, 혼인 연령층의 인구 감소, 학업 연장과 그로 인한 경제활동의 지연, 개인 중심적 삶의 변화, 결혼에 대한 개념의 변화로, 과거에는 인륜지대사였던 결혼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중요하긴 하지만 적합한 상대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고 한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 결혼 연령 및 유형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결혼 적령기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고 만혼, 나이차이 많이 나는 결혼, 남편 연하 부인 연상의 결혼, 초혼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결혼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하고, 개인생활 중시에 따른 독신율도

10) 유영주, 「한국 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11) 손승녕, 「미혼여성의 결혼에 관련된 예기적 사회화연구」, 『연세사회학』 3,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증가하게 되었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혼속(婚俗)과 관련된 논의가 민촌(民村)이나 반촌(班村) 등 전통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착안하고, 소도시에서의 혼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196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도시화의 경로를 밟게 되는데 이 논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혼인과 관련된 의례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

수원에서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주로 신부의 집에서 전통혼례 방식으로 혼인을 하였고, 현재의 수원시민회관 오른쪽 옆에 위치했던 수원신사(水原神社)나 교동의 성공회, 종로사거리 종로교회, 북수동 성당, 남수동 포교당 등의 종교단체에서 혼례를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수원사람들의 통혼권은 당시 수원군 일대였는데 중매자가 대부분 집안 친척이나 마을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연령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대부분 결혼을 하였고, 집안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정하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당일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혼례 역시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원신사 및 종로교회에서 이루어진 신식혼례는 이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식은 신식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폐백이나 재행과 집안간의 의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혼례보다는 폐백이나 재행 등의 집안간의 의례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

신식 예식장이 생기고 신식혼례가 늘어나면서 전통혼례의 관념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수원에서 제일 처음 생긴 신식결혼식장은 지금의 남문 제일은행 자리에 있던 평화예식장이다. 평화예식장이 지어진 때는 확실치 않는데 1948년에 세웠다는 의견과 1950년 수복 이후에 생겼다는 의견이 있다. 평안북도 출신의 사람이 해방 이후 수원에 와서 세웠다는 것은 동일하다. 1950년대 이후에 예식장이 생기면

서 50년대 초반까지 형식적이거나 신랑이 신부집으로 선을 보러 갔다면, 이 시기부터 집안 어른들의 동의하에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결혼이 서서히 시작된다.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통혼례에서도 나름의 변화가 생긴다. 이 시기에는 혼인 전에 데이트를 하거나, 혼인 전에 신랑 신부가 선을 보기도 하고, 택일을 신랑집에서 보는 등 혼인 절차에 있어 변화가 생긴다. 1940년대만 하더라도, 혼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이 양가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1950년대를 넘어 서면서 조금씩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매가 아닌, 온전히 연애만을 통해 혼인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1960년대에도 전통혼례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시기 전통혼례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선을 보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초례를 치른 뒤 신부집에서 초야를 치르지 않고 신랑집으로 바로 오는 것이 일반화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신혼여행은 주변 여건상 가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전통혼례는 예식장 등이 생기면서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1950년 초반에 남문에 평화예식장이 생긴 이래 무궁화예식장, 문화예식장 등이 뒤이어 시내 중심가에 생기면서 신식결혼은 혼인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신식결혼이 정착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약혼식도 생기게 되는데, 약혼식이 생길 초기에는 신랑 신부가 편하게 인사하는 자리로 시작된 듯하다. 그러다가 집안 사정에 따라 결혼식만큼 비중있는 의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하면서 혼인의 목적이나 의미도 변화한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의 이유가 가계 계승,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관념이 강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은 개인간의 사랑에 의한 결합, 자아 성취의 측면이 강해졌다. 전통혼례에서는 중매에 의해 집안 어른, 특히 아버지의 의견이 혼인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신식결혼에서는 당사자간의 의견이 중요해졌다. 혼례 단계에서는 전자는 처갓집에서 초례와 초야를 치루었으나 1940년대 이후 처갓집에서의 의례가 약화되고, 함진애비 역시 하인에서 나이 많은 어른, 그리고 친구 등으로 변화한다. 신식결혼에서는 앞서 언급된 것들이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두 가지로 단순화된다. 마지막으로 혼례를 올린 뒤에 하는 신부 및 신랑 부모님에 대한 폐백, 재행(再行), 신랑 다루기 등은 예식장에서 하는 폐백만 남게 되었다. 신식결혼에서의 폐백은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이름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 기전문화재연구원 편,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산』, 수원시, 2000.
- 김일미, 「조선의 혼속 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 『이화사학연구』 4, 1972.
- 김정근·홍형옥, 「혼례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혼례가구의 변천」 I, 『대한가정학회지』 34, 1996.
- 박동철,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변화양상과 요인」,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수원문화원 편,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I, 수원시, 2002, 389면.
- 손승녕, 「미혼여성의 결혼에 관련된 예기적 사회화연구」, 『연세사회학』 3,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 유영주, 「한국 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 정복남, 「서부경남지방의 전통혼례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문화연구』 8, 2000.
- 장하경,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1996.
- 주영하,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발령과 풍속교화 정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근대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홍나영 외,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1호, 2002.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장
- 2. 운영위원 약간 명
- 3. 연구위원 약간 명
- 4. 상임연구원
- 5.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상정,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4.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 5.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6.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본 연구소의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및 회계)

-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9)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후 보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최홍규	경기사학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아파트 128/701		031-242-6795	011-319-0211		연구소장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9169	namgokchoi@naver.com		
김학웅	풍광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 133/1003		031-212-1538	011-726-7784		운영위원장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3 백궁빌딩 B1		031-211-7784 212-7784(F)			
김동욱	경기대				010-5015-5640		연구위원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dukim@kyonggi.ac.kr		
최극렬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아파트 143/1502			010-7180-2473		운영위원
				031-256-0202 257-7471(F)			
김정란					011-473-5717		운영위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62 네오디자인		031-223-1396	kant45@unitel.co.kr		
유대열	귀뚜라미 그룹				010-2515-1117		운영위원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094번지 귀뚜라미그룹		298-4560(F)			
윤한식	한국알루 미늄(주)				011-264-6524		운영위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4 한국알루미늄(주)		291-1932(F)			
정일동	수원대 사학과				019-449-1064		운영위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사학과		031-220-2349	idchung@suwon.ac.kr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97 동남빌라 5/303	031-213-6951	010-9596-6951	운영위원
		과천시 중앙동 국사편찬위원회	02-500-8346	jpk@ history.go.kr	
이달호	수원시청			016-502-4909	연구위원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수원시청 문화관광과		dalmind@ hanmail.net	
김준혁	수원시 화성사업소			016-309-9847	연구위원
		수원시 팔달구 행궁길 185 수원시 화성사업소	031-228-4411	jhkim1789@ naver.com	
조성을	아주대 사학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우아파트 109/503	031-222-6091	010-3178-6091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학과	031-219-2850	eul@ajou.ac.kr	
박 환	수원대 사학과	서울시 강남구 논현 2동 232-21	02-3477-0731	017-268-3569	연구위원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사학과	031-220-2346	hwpark@ suwon.ac.kr	
박천우	장안대학 관광레저 경영계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살구 현대아파트 723/601	031-258-8856	017-768-8856	연구위원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 장안대학 관광레저경영 전공	031-299-3294	pcwjangan@ hanmail.net	
김대길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실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216/503	02-485-4157	010-4739-4157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국사편찬위원회	02-500-8343	kimdk@ history.go.kr	
김문식	단국대			011-9768-6748	연구위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번지 단국대학교 사학과	031- 8005-3031	kmsik@ dankook.ac.kr	
박헌순	대평중학교			010-9970-4459	연구위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1-1 대평중학교		kuksa21@ hanmail.net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엄서호	경기대		031-307-1878	011-749-1875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seohoum@ kgu.ac.kr	
우장문	경기사학회			017-279-3939	연구위원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623번지 숙지고등학교		woojangmun@ hanmail.net	
유봉학	한신대			019-263-1822	연구위원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사학과		yoobh@hs.ac.kr	
안필연	경기대			011-309-5645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미술학부		pyahncissors@ hotmail.net	
주찬범	향토사가			016-242-1297	연구위원
홍영유	향토사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40 금호베스트빌 133/101		016-415-8568	연구위원
				yyhong3@ empal.com	
김동훈	홍익대학교			011-732-8120	연구위원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14-8800	ikimdh2000@ hanmail.net	
한동민	수원시청		031-228-4123	016-218-8079	연구위원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수원시청 문화관광과			

회 보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 1 > 제목, 목차, 필자명

1. 게재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2)(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2 >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3 >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4 >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원문 이용은 “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5 > 주의 사항 : 영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맺음말 뒤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맺음말 뒤에 첨부한다.

水原學研究

第五號

인 쇄 2008년 12월 15일
발 행 2008년 12월 31일

발 행 인 유 병 현
편 집 인 최 흥 규

발 행 처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산 2-1
TEL : 031-244-2161~3

제 작 풍광 : 031-211-7784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